

해외 한국학 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유산 데이터 리포지터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과 박사 논문
트와이닝 린지

목 차

국문초록	1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1
3. 연구 방법	1
II. 글로벌 시대의 한국 문화유산 교육	1
1. 한국의 문화유산	1
1) 한국 문화유산의 종류	1
2) 한국 문화유산의 성격	1
2. 한국 역사·문화 교육에서의 한국 문화유산	1
3.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교육자료	1
1) 교육을 목적으로 한 한국 문화유산 자료	1
2)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유산 자료	1
3) 해외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유산 자료	1
III. 한국 문화유산 관련 영문 자료 현황	1
1. 형태별 자료 분석	1
1) 온라인 소장품 컬렉션	1
2) 온라인 교육 플랫폼	1
3) 간행물 자료	1
4) 영상 자료	1

5) 실감 미디어 자료	1
2. 주제별 자료 분석	1
IV. 시맨틱 지식 플랫폼 사례 검토	1
1. 시맨틱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모델(온톨로지) 검토	1
2. 기타 인문지식 플랫폼 사례 검토	1
V. 한국 문화유산 지식 플랫폼 설계	1
1. 온톨로지 설계	1
1) Classes	1
2) Datatype Properties	1
3) Object Properties	1
2. 플랫폼의 환경 설계	1
1) 시맨틱 미디어위키(Semantic MediaWiki)	1
2) 페이지 폼(Page Forms)	1
3) 클래스별 페이지 양식	1
4) 자동 데이터 질의(Query) 기능	1
5) 상세검색 기능	1
VI. 샘플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1
1. 샘플 콘텐츠 사례 선정	1
2. 플랫폼 콘텐츠의 활용 방안	1
VII. 결론	1
참고문헌	1
영문초록	1
부 록	1

1. 서문

1. 연구 배경 및 목적

<대장금>으로 부터 <강남스타일>, <오징어게임>, BTS, BLACKPINK, 한식, K-뷰티, e-스포츠 등 한류로 인해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 해외에서 관심이 가진 것이 오래전 일이다. 신라 시대에는 금속품, 고려 시대에는 청자, 조선시대 도자기 등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실�크로드를 통해 중동까지 한국의 물질적 문화(material culture)와 사상 등은 해외에서 관심을 끌었다. 20세기에는 6.25전쟁, 냉전, 한강의 기적,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정치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만큼의 K-컬처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한류가 널리 세계의 타지까지 흩날릴 수 있는 이유는 21세기의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덕분이다. 물론 국제 여행이 쉬워진 것도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던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한국인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유튜브, 넷플릭스, SNS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시각, 청각적으로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진 것이 한류 성공의 제일 핵심적인 요인(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저자도 한국을 처음 접근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 때(2003년~2006년) 교포 쌍둥이 친구를 사귀면서인데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친구들이 이사 갔는데도 그 당시에 새로 생긴 유튜브(2005년 설립), CrunchyRoll(2006년 설립) 등과 같은 영상 플랫폼을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 MV, 브이로그를 통해 미국 미시간주의 작은 시골 도시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계속 배울 수 있었다. 또한 Talk To Me In Korean(2010년 설립) 등과 같은 온라인 언어 교육 콘텐츠를 통해 2010년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국인이 주변에 없는데도 한글과 간단한 인사를 혼자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발달한 정보통신망을 덕분에 해외에서 혼자서도 한국에 대한 열정을 계속 키울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이 저자가 약 3년이래도 일찍 태어났다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안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좋아진 디지털 환경이 한류의 성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환경이 한류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물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좋아진 환경에서 해외에서 한국에 대해 배우려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e-스쿨 사업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사업의 시작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어와 한국학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739명에서 8,775명까지 약 1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강의 더 많이 개설된 면도 있지만 수업이 많이 새로 개설되는데 학생들이 그 수업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수요가 있는 것이다. 어떤 대학교에서는 한국학 과정에 지원 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 다 못 받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¹⁾ 이렇게 한국어와 한국

학 교육이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 와중에서도 2020년부터 Covid-19의 세계적 유행병을 겪으면서 많은 교육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원래 어렵게 느꼈던 원격 수업이나 학회를 강제로 경험하게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많아지면서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생기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로 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은 한국 문화의 기원이며 한국 문화의 핵심적인 증거자료이다. 유적, 건축물, 유물,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실물 자료’(material objects) 및 내려온 풍습 및 기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역사 기록도 ‘글’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유물이다. 이런 유물이 남지 않으면 글도 남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유물을 기반으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 종교, 사회, 경제, 주거, 식습관, 미술, 음악, 풍습, 방어, 행정, 기술, 자연환경, 기후 등 다양한 주제 및 관점에서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현대 한국 문화와 사회가 어떻게 발달했는지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화유산도 같이 알아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은 글과 달리 오감을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교육자료이다. 시각이 물로 무형유산의 경우 청각, 촉각, 후각, 미각까지 상상력이 아닌 감각을 통해 역사의 현장, 옛사람들의 생활 등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해 한국어로 된 글을 읽지 못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관련한 개념을 보지 못한 외국인에게 감각을 통해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한국 문화에 대해 교육하는 데 더 빠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눈과 귀가 즐거워서 배움에 흥미도 더욱 준다.

문화유산은 남한에는 15,000건 이상의 지정 및 등록 국가유산이 있으며 북한에는 약 2,000~4,000건의 민족유산이 있다. 유네스코에서 등록된 세계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도 있다. 지정된 유산 외에도 박물관 소장품까지 계산하면 국내의 약 2,000,000건의 유물과 해외의 약 200,000건의 유물도 있다.²⁾ 즉, 한국 문화의 증거자료가 어마무시하게 많다. 이렇게 많은 중요하고 흥미로운 교육자료가 있는데 현재 해외 한국학 과정, 문화센터 등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국내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은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해외, 특히 영미권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영미권 대학의 한국어 과정에는 미술사학, 고고학, 음악사학, 인류학 등 문리적 또는 비문리적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진의 수가 매우 적다.³⁾ 전근대시대에 대해 가르치는 교수진도 적으며 역사 기록이나 문학,

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온라인 소식지 중 Korean Studies Interview 시리즈에서 많은 해외 대학교수가 이 현황에 대해 증언해 왔다.
<https://www.ksps-webzine-aks.ac.kr/en>

2) 이 숫자에 대한 계산은 제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3) Berd Lind Jungmann (UCLA), Maya Stiller (U. Kansas), Sungrim Kim (Dartmouth), Charlotte Horlyck (SOAS), J.P. Park (Oxford), Yoonjung Seo (Free University Berlin), Nathan Hesselink (UBC), Cedarbough Saeji (Pusan National University), Hilary Finchum-Sung (formerly SNU), Jocelyn Clark (Pai Chai University), Chan E. Park (Ohio State) 등이 있다.

경전 위주의 연구 및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분야로는 인문학계(역사, 문학, 음악학)의 분야는 사회과학계(사회, 정치, 경제 등)에 비해 학생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으며 시대로는 근현대 시대에 비해 전근대 시대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KF의 e-스쿨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1년~2020년 사이의 2,070개의 수업 중에 77%가 사회과학에 도달하고 인문학 수업은 10%에 불과했다.⁴⁾ 또 이 중에 한국의 전통문화나 역사를 다루는 수업이 19개 밖에 개설되지 않았다.⁵⁾ 전통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미술사, 종교사의 수업도 매우 적다. 즉, 이 KF e-스쿨의 통계 자료로 보아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대학교 과정 외에는 한글학교, 세종학교, 문화원, 박물관 등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기관들의 홈페이지들을 보면 영화 상영, 전통 음악 공연, 한복 입기, 공예품 만들기, 음식 만들기, 유물 관람하기 등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을 접할 좋은 기회지만 문제는 내용의 주제가 한정적이고 교육이 일회성이 있어 내용의 깊이는 얕다는 것이다. 주제는 옷, 음식, 공예품, 박물관 소장품, 영화, 음악 등 해외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것만으로 되어 있으며 유적, 건축물, 지리, 자연 등과 같은 문화유산을 경험할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한 번이나 소량의 횡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깊은 정보까지 다루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소개한다. 참여하는 외국인이 관심이 생겨도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없으면 더 깊게 배울 기회가 이어지지 않는다.

국내의 경우 문화유산을 접근할 기회가 당연히 많다. 유적이든 박물관이든 국립국악원과 같은 공연시설이든 다양한 곳에서 외국인이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 해외에 있는 것과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국내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일회성의 체험이라 깊게 배울 기회가 적다.⁶⁾ 더 많이 배우려면 한국어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참

4) 한국국제교류재단. “e-스쿨 대표 통계”

<https://www.kf.or.kr/kfglobaleschool/cm/cntnts/cntntsView.do?mi=13514&cntntsId=1841>

한국국제교류재단의 e-스쿨 통계 자료는 강의 개수의 계산은 발신 강의가 아닌 수신 강의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개설된 강의의 수가 더 적을 것이다. 그래도 분야의 분류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통계센터의 “e-스쿨 강좌 통합검색”으로 실제의 강의 분류를 살펴보면 ‘사회과학’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한국의 사회와 문화’, ‘한국 대중문화’, ‘한국 문화와 문명’ 등과 같은 강의 명으로 보아 인문학에 더 가까운 주제의 강좌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회과학 분류가 더 많은 주제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5) 대분류, 중분류, 강의명, 개설 개수, 발신 대학, 수신 국가 순으로 정리한다 : 인문학/분류 없음 : ‘한국 전통 문화’(1 - 이화여대, 베트남); 인문학/문학 : ‘한국의 전통 시 : 시조’(2 - 미시간대, 미국); 사회과학/인류학 : ‘한국 세계유산의 이해’(2 - 이화여대, 홍콩), ‘한국전통문화’(2 - 숙명여대, 홍콩, 베트남), ‘한국의 민속과 풍습’(1 - 이화여대, 몽골), ‘한국의 문화원형’(2 - 한양대, 러시아), ‘판소리’(1 - 미시간대, 미국); 사회과학/사회학 : ‘한국의 사회, 문화 전통’(2 - 서울대, 러시아), ‘한국의 사회적 전통’(2 - 서울대 러시아), ‘한국 전통 및 문화의 이해’(1 - 이화여대, 미국), ‘한국의 전통과 문화’(1 - 이화여대, 러시아); 예술체육학/기타예술체육 : ‘한국의 문화원형’(2 - 한양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러시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통계센터의 “e-스쿨 강좌 통합검색”

<https://www.kf.or.kr/koreanstudies/globalESchoolList.do>

이 중에 대상 국가가 러시아 8개, 미국 4개, 중국(홍콩) 3개, 베트남 2개, 몽골 1개, 슬로베니아 1개, 크로아티아 1개로 유럽, 아시아, 북미 순으로 수업이 개설되었다.

6) 예외로는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 운영하는 해외 전문가를 위한

여해야 한다.

즉,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기본적인 필수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이 현재 국내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주제가 한정적이거나 체험 위주의 단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문화유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문화유산은 한국 문화의 기원이고 감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교육의 효과와 흥미를 더 주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찾는 것이다.

이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부족한 전문인력, 대학교 및 학생이 선호하는 학술 분야, 문화유산과의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생긴 한정적인 주제, 외국인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해 단기적이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지원, 인력, 정치, 교육 체계 등 한 논문을 통해 절대 해결될 수 없고 장기적으로 정부나 학계에서 개선하려고 노력할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밑바닥이 되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바로 한국 문화유산 관련 영문 자료의 정리 및 제공이다.

인력, 경제적 자원, 교육 체계 상황이 이 이상적으로 좋아져도 결국에는 교육할 때 쓸 자료가 필요하다. 외국인 대상으로 교육할 때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로 되어 있어야 하며 해외에 있는 사람의 경우 글로 된 자료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하기 어려워 문화유산을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 미디어 자료도 같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의 목적에 있어 기본적인 개념부터 상세 지식까지를 다루는 자원이 있어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한국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영문 자료 및 미디어 자료 중에 어떤 자료가 있고 어디서 어떻게 제공되어 있는지 살펴본 후 종류나 접근성 등 자료의 정리 및 제공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한국 문화유산 관련한 지식을 외국인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정리하고 제공하면 좋을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영문 자료에 대한 연구
-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한국)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연구
- 원격으로 하는 (한국)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연구
- 디지털 환경에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전달 관련 연구

워크샵 등이 있으며 일반인이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왕립아시아학회에서 운영하는 강의 시리즈, 현장 투어 등이 있다.

3. 연구 방법

이 논문의 연구 방법은 ‘인문정보학’의 ‘디지털 큐레이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김현 교수가 제시한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큐레이션 방법론을 이용하고자 한다.

인문정보학은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와 교육에 쓰일 수 있는 정보처리 기술을 연구하고, 그것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실천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학술적 분야이다. (김현 2016, 97). 더 넓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각기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그렇지만 의미적으로 유관한 지식들을 함께 검색해서 찾아내는 것은 오늘날의 인터넷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그 정보들 사이에 의미적 연결 고리(Semantic Link)가 있어서가 아니라, 텍스트 안에 같은 어휘가 쓰이고 있어서 발견되는 것이다. 인문정보학은 이러한 지식의 연계가 훨씬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것을 새로운 지식의 편찬에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인다.”(김현 2016, 204)

이 논문의 맥락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 문화유산 관련 지식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연계하므로 글로벌 교육의 환경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한국학계의 인문정보학 논문에는 연구의 목적으로 고문헌 자료의 정보화, 기록 속의 인물 관계의 시각화, 아카이브 구축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인문학적 연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하이퍼텍스트, DB 구축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컴퓨터의 힘을 빌려 기존의 아날로그 연구 방법으로 알아내지 못한 연구 결과를 밝히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연구의 목적이 아닌 교육의 목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고자 한다. ‘인문학 연구’를 위한 인문정보학적 정보처리 기술 연구는 역사 기록 속의 상세적인 사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인문학 교육’을 위한 인문정보학적 정보처리 기술 연구는 인문학적 지식을 학생 및 교사가 편리하게 찾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자료 속의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에서 자료 속의 정보를 잘 활용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 목적으로 연구한 정보처리 기술에 인문정보학적 연구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설계 과정에서 정보 분석보다 정보 열람, 큐레이션에 초점을 둔 연구의 지식과 데이터도 정보 분석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인문학적 연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에 이 논문은 ‘인문학적 교육’에 쓰일 기술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교실에서 사용할 디지털 시대, 디지털 원어민을 위한 교육 방법론까지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면 학생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리고 이 논문의 연구에서 적용하는 ‘디지털 큐레이션’ 방법론은 결국 디지털 시대의 교

육환경에서 사용될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한국 문화유산의 경우에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어 모든 문화유산을 직접 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은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이용해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에 있어서 디지털 환경에서 교육을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지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방안을 직접 제안하려고 하지 않다. 즉, 디지털 시대,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문학 지식과 그에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제공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까지 하고자 한다.

디지털 큐레이션에 대한 정의 중에 ‘장기적으로 디지털 데이터 및 정보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이다’라고 한다(“What is digital curation.” Digital Curation Centre)⁷⁾. 즉, 디지털 저장소에서 기존의 디지털 양식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미래에도 살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생산하고, 선정하고, 저장하고, 활용하고, 변경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기억기관에서 유물과 기록물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전시하듯이 서버에서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도 큐레이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말하는 ‘디지털 큐레이션’은 그 기존의 정의와 다르다. 디지털 데이터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큐레이션을 의미하기보다는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인문학 지식을 큐레이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글로벌 교육을 위해 한국 문화유산 관련 지식이 무엇이고 그 지식을 어떻게 정리하고 제공해야지 전달이 효과적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논문에서 한국 문화유산 관련하여 어떤 지식을 살리고 공유해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 평가까지 고민하지 않는다. ‘연구 배경 및 목적’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문화유산이 지정 문화유산만 해도 15,000개가 있고 국내외 박물관 소장품까지 하면 약 2,000,000개가 넘는다. 또한 각 학술 분야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있는 주제나 자료가 다를 수 있는데 그것까지 파악하는 것이 이 논문의 범위 밖이다. 다른 말로 다양한 문화유산,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러한 큐레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처리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모색한 방안을 설명하고 제시하기 위해 일부의 샘플 자료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디지털 큐레이션 방법론 중에 특히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를 모방 방법으로 삼아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맞게 적용하고자 한다. ‘백과사전적 아카이브’(Encyclopedic Archives, Encyves)는 “인문지식의 ‘원천 자료’이자 그 지식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인 ‘실물 자료’(기록물, 유물 등) 데이터가 광대한 인문지식 네트워크의 노드(node)로 존재하는 세계이며 ... 시맨틱 웹 기술을 기반으로, 유관한 지식 조각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지식의 문맥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 백과사전의 새로운 모습이다.”(김현 2016, 204~205). 또한 “미래의 디지털 백과사전은 학술 연구, 학교 교육, 사회 교육, 지식문화 산업 등 인문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에서 지식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207) 이 논문의 목표는 자료의 정리와 제공으로 ‘실물 자료’인 한국 문화유산과 유관한 인문지식을 다양한 관점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7) <https://www.dcc.ac.uk/about/digital-curation>

면에서 ‘백과사전적 아카이브’가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맨틱 웹(Semantic Web)과 관련하여 해외의 문화유산 분야에서 유러피어나 데이터 모델, CIDOC CRM 등과 같은 링크 오픈 데이터(Linked Open Data, LOD) 또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기반의 온톨로지 및 데이터 스키마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서지 분야에서도 더블린 코어의 BIBO(Bibliographic Ontology), 국립중앙도서관의 NLON 등 시맨틱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모델이 활용되고 있어 연관하여 참고할 수 있다. 즉,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방법론을 통해 기존의 연구 맥락에서 이 논문의 특정한 목적에 맞게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이 논문의 연구 방법론을 바라보면 디지털 인문학적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는 김현이 “디지털로 표현하고 디지털로 소통하는 이 시대에 인문 지식이 더욱 의미 있게 탐구되고 가치 있게 활용되도록 하려는 노력”으로 정의하며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단순히 인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를 디지털화 하거나 연구결과물을 디지털 형태로 간행하는 것보다는 정보기술의 환경에서 보다 창조적인 인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통시킴으로써 보다 혁신적인 인문지식의 재생산을 촉진하는 노력”이라고 한다” (김현 2016, 17-18). 이런 의미로는 이 논문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그러한 노력과 같다고 해도 무방하다. 또한 ‘디지털 인문학 선언 2.0’에 의하면 디지털 인문학은 “학자를 큐레이터로, 큐레이터를 학자로 재구성하고, 이로 인한 가능성과 수요의 확장을 통해 학문 활동에 다시 활기를 복돋으며 박물관, 도서관 및 아카이브의 학술적 사명을 재개하려 한다.”(홍정욱의 번역).⁸⁾ 이어서 “아카이브는 교육과 실천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 유물을 소장하는 기억기관을 넘어 유적지 및 건축물, 무형유산까지의 역사문화 현장도 어떻게 디지털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이므로 ‘디지털 인문학 선언 2.0’에서 말한 디지털 인문학적 활동의 일부라 할 수 있다.

8) 홍정욱, 「미국의 ‘디지털 인문학 선언’ 한국어 번역문」, 『디지털 인문학 입문』 482 (2016).

II. 글로벌 시대의 한국 문화유산 교육

1.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면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한국 문화유산이 한반도의 특유한 지리적, 기후적, 생태적 환경에서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한국인들의 교유한 의식주, 신앙, 가치관, 기술 등을 증거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문화유산은 유적, 건축물, 공예품, 기록 등과 같은 유형유산과 전통기술, 음악, 축제, 의식 등과 같은 무형유산, 그리고 동식물 및 명승과 같은 자연유산의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문화유산이 없으면 한국의 역사에 대해 알 길이 없고 역사에 대해 알 길이 없다면 한국의 고유한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해외 한국학에서 흔히 가르치는 개항 이후의 약 150년의 한국만 알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몇 천 년 동안의 발달해온 한국도 알아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문화나 귀나 몸이 즐거운 무형유산과 같은 감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한국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론이나 글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흥미롭게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교육 자원이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 사회, 경제, 종교, 건축, 미술, 지리, 음악, 의류, 음식, 기술, 교통 등 문화유산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어서 각기 다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도 알려고 하는 K-컬처를 문화유산을 통해 알 수 있는 풍부한 지식의 바다이다.

이 챕터에서는 한국 문화유산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지정 관련한 법과 한국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통해 한국 문화유산의 정의 및 범위를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한국 문화유산의 다면적인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문화유산이 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인지 더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간단히 짚어본 후 한국 문화유산이 왜 교육적 가치가 높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교육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들이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한국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장벽들이 현존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⁹⁾

1) 한국 문화유산의 종류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어떤 문화유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문화유산의 범위와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다. 한국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흔히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유산, 자연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북한에도 한국의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지정하고 보호하는 법이 있으며 해외 박물관, 미

9) 한국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방법을 검토하고 비판하는 기존의 연구가 있으나 이 논문에서 그 논쟁에 대해 따로 다루지 않겠다. 더 알아보려면 Hyung Il Pai의 *Heritage Management in Korea and Japan: The Politics of Antiquity and Identity*(2014) 등을 참고한다.

술관, 도서관 등에서도 한반도에서 가져간 유물도 많이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챕터에서는 남한, 북한,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의 개수와 성격을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가유산

대한민국에는 <국가유산기본법>(법률 19409호)에 의해 국가유산이 정의된다. 이 법은 2023년 5월 16일에 제정하여 2024년 5월 17일에 새롭게 시행한다. 그 이전에는 문화유산 관련 법이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639호)가 있었다. 새로 제정한 법률에는 ‘국가유산’이란 새로운 용어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정의한다(제3조). 기본적으로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한다.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고, ‘자연유산’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고 한다(제3조). 이 논문에서 이 법률의 정의에 따라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은 국가 및 시도 단위로 나뉘지며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은 형태 등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 외에는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 문화유산자료 등도 있다.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¹⁰⁾에 있는 정보에 의하면 2023년 8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가유산이 총 15,194개가 있다. 다음의 표에서 구분별 개수의 확인이 가능하다.

표 II-1. 대한민국의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한 문화유산 구분 및 구분별 개수

구분 단위	상세 구분			
	국가		시·도	기타
문화유산	국보(354)	보물(2,365)	유형문화유산(4,064)	문화유산자료 (2,896)
	사적(543)		기념물(1,759)	
	국가민속문화유산(308)		민속문화유산(475)	
	국가등록문화유산(955)		등록문화유산(78)	
자연유산	천연기념물(477)		자연유산	
	명승(132)			
무형유산	국가무형유산(155)		무형유산(613)	이북5도 무형유산 (20)

※ 구분별 개수는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확인하였다.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국가유산을 약 420개의 분류로 나누는데 상위 개념으로 유적건조물,

10)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pageNo=1_1_1_0

유물, 기록유산, 무형문화유산, 자연유산, 등록문화유산이 있다.¹¹⁾ 420개의 상세 분류 중에 비중이 제일 많은 20개는 가옥(875건), 불탑(671건), 석조 불상(614건), 비석(446건), 무형문화유산(413)¹²⁾, 목판본 중 사찰본 (337건), 성곽(336), 등록문화유산 중 동산動産 유물(310), 초상화(302), 사우(299), 누정(291), 탕화 중 불도(275), 목조 불상(269), 불전(256), 향교(250), 전적류(212), 봉토묘(209), 생물과학기념물 중 생물상(207), 서원(203), 탕화 중 기타(200). 이 20 항목은 국가유산 전체의 약 46%에 해당한다. 즉, 가옥, 불탑, 성곽, 사우, 누정, 불전, 향교, 봉토묘, 서원 등과 같은 건축물 및 불탑, 불상, 탕화, 불전 등과 같은 불교 관련 국가유산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유산 중에 UNESCO에서 등재되는 것도 있다. UNESCO에는 세계유산(World Heritage List),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List), 그리고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이 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UNESCO 목록에 등재된 문화유산은 총 55개가 있으며 다음의 표에서 구분별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표 II-2. UNESCO 목록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개수

구분	개수
세계유산	15건 (13)
인류무형문화유산	22건 (14)
세계기록유산	18건 (15)

이외에는 ‘부천시 향토유적’¹⁶⁾, ‘목포시의 문화유산’¹⁷⁾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는 향토문화유산도 있다. 그리고 ‘안양9경’¹⁸⁾ 등처럼 지역의 명소를 선정하는 행

11) 문화재청의 분류 방식의 미흡한 점에 대해 논문 IV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본다.
 12) 세부적인 분류를 받지 않은 무형문화재이다. 성격에 맞게 분류를 받으면 이 숫자를 줄일 것으로 추정한다.
 13)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한국의 세계유산”
https://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korHeritageInfo.jsp&pageNo=5_2_2_0
 14)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https://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korInCulHeritage.jsp&pageNo=5_3_2_0
 15)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https://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korWorldMemHeritage.jsp&pageNo=5_4_2_0
 16)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시향토문화재”
<https://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6001003004>
 17) 목포시 홈페이지, “문화재 현황”
https://www.mokpo.go.kr/tour/attraction/cultural_assets/state
 18) 안양시 홈페이지, “안양9경”
<https://www.anyang.go.kr/tour/selectTourCntntsWebList.do?key=1858&ctgry=15>

정구역도 있다.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의 ‘서울미래유산’¹⁹⁾와 같이 현재 50년 이상이 되지 않아서 국가유산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차세대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높아서 미래의 유산으로 따로 선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 소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하는 e뮤지엄²⁰⁾을 참고할 수 있다. e뮤지엄은 대한민국 박물관 346개의 소장품 데이터베이스이다. 공개 소장품 수가 2,494,143건²¹⁾에 달하는데 외국 출신유물을 제외하면 2,346,680건의 한국 출토유물이 기록되어 있다²²⁾.

대한민국 내의 문화유산의 지역별 분포를 알기 위해 e뮤지엄 및 국가문화유산포털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각 행정구역에 있는 박물관 소장품, 지정(등록) 국가유산의 개수를 살펴보고 록 한다.

표 II-3. 행정구역별 박물관 소장품 및 지정(등록) 문화유산 분포

행정구역	박물관 소장품 ²³⁾	지정(등록) 문화유산 ²⁴⁾
서울특별시	486,951(19.5%)	2,069(13.6%)
경상북도	270,301(10.8%)	2,232(14.7%)
경상남도	263,604(10.6%)	2,349(15.5%)
대구광역시	239,855(9.6%)	330(2.2%)
충청남도	202,611(8.1%)	1,110(7.3%)
강원도	188,914(7.6%)	707(4.7%)
경기도	145,758(5.8%)	1,245(8.2%)
전라북도	127,477(5.1%)	1,012(6.7%)
제주특별자치도	101,544(4.1%)	405(2.7%)
광주광역시	100,237(4.0%)	166(1.1%)
충청북도	93,712(3.8%)	854(5.6%)
전라남도	85,051(3.4%)	1,322(8.7%)
울산광역시	65,261(2.6%)	157(1.0%)
부산광역시	63,409(2.5%)	540(3.6%)
대전광역시	26,136(1.0%)	237(1.6%)
인천광역시	19,157(0.8%)	282(1.9%)
세종특별자치시	14,135(0.6%)	56(0.4%)
전국일원	-	101(0.7%)

19) 서울특별시. 서울미래유산. <https://futureheritage.seoul.go.kr/web/main/index.do>

20)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https://www.emuseum.go.kr/main>

21)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전국 소장품 현황” <https://www.emuseum.go.kr/status>

22)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소장품 검색 - 국가/시대 - 한국” <https://www.emuseum.go.kr/headerSearch?detailFlag=true&rows=9&pageNum=1&keywordHistory=%ED%95%9C%EA%B5%AD&searchType=&dq=&location=&mcSeqNo=&author=&culturalHerNo=&tagInfos=&publicType=&ps01Lv1=&ps01Lv2=&ps01Lv3=&ps06Lv1=PS06001&ps06Lv2=&ps08Lv1=&ps08Lv2=&ps09Lv1=&ps09Lv2=&ps09Lv3=&ps09Lv4=&ps15Lv1=&ps12Lv1=&gl05Lv1=&gl05Lv2=&facet1Lv1=&facet1Lv2=&facet2Lv1=&facet3Lv1=PS06001&facet4Lv1=&facet5Lv1=&facet6Lv1=&facet8Lv1=&facet1Lv1Nm=&facet1Lv2Nm=&facet2Lv1Nm=&facet3Lv1Nm=%ED%95%9C%EA%B5%AD&facet4Lv1Nm=&facet5Lv1Nm=&facet6Lv1Nm=&facet8Lv1Nm=&tagOp=single>

23)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소장품 검색” <https://www.emuseum.go.kr/detailSearch>

24)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 검색”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pageNo=1_1_1_1

박물관 소장품 및 지정(등록) 국가유산이 제일 많이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19.5%, 13.6%), 경상북도(10.8%, 14.7%), 그리고 경상남도(10.6%, 15.5%)이다. 같이 합하면 전국의 40.6%의 박물관 소장품과 43.8%의 지정(등록) 문화유산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박물관 소장품이 많은 곳이 대구광역시(9.6%), 충청남도(8.1%), 강원도(7.6%)가 된다. 반면에 지정(등록) 문화유산이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8.7%), 경기도(8.2%), 전라북도(6.7%)가 된다. 이 차이는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강원도에 유물을 소장하는 박물관이 더 많으며 전라남도, 경기도, 전라북도에는 부동산 문화유산(유적, 건축물 등)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북한의 민족유산

한국의 문화유산을 생각하면 흔히 대한민국, 즉 남한에 있는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생각한다. 그러나 20세기 중반까지도 한반도 전체가 한국민족의 영토였다. 특히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 등과 관련한 유적이 북한에 현재 남아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직접 볼 수 없지만 한국의 전통 역사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면 한반도의 북반에 있는 문화유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후 북한)에는 문화유산 관련 법률은 2015년에 개정된 <민족유산 보호법>이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의 ‘국가유산’이 북한에서 ‘민족유산’이라고 한다. 이 법률에 의하면 ‘민족유산’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 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민족유산’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있으며, ‘문화유산’은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으로 구분된다(<민족유산보호법> 제2조).

북한의 민족유산이 대한민국과 같이 크게 유형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뉜다. 또한 대한민국과 같이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구별하는 체계도 있다. 이면에서 남북간의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 개념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정부 간의 소통 절단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달리 구분 별의 민족유산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재청의 『북한의 문화·자연유산과 남북교류협력 이해하기』(2021년)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아래에 표에는 추정되는 구분별 민족유산의 개수를 다음과 같다.

표 II-4.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에 의한 민족유산 구분 및 구분별 개수

구분	상세 구분	단위		
물질유산	역사유적 ²⁵⁾ (1,216~3,245)	국보(193)		보존(905)
	역사유물(532)	국보(285) ²⁶⁾	준국보(247) ²⁷⁾	일반(미상) ²⁸⁾
비물질유산		국보(115) ²⁹⁾		지방(13) ³⁰⁾
자연유산	천연기념물(474) ³¹⁾	-		
	명승지(68) ³²⁾	-		

25) 김혜정(2021, 158)

정확한 개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략 2,418~4,447건의 민속유산이 북한에서 등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혜정(2021)이 북한의 민속유산 중에 3,245건의 역사유적을 지역별, 시대별, 유형별로 분석한 바가 있다. 그 결과 역사유적이 제일 많이 분포되는 지역은 황해북도(454건), 황해남도(419건), 평안남도(361건), 평안북도(352건)가 있는데 같이 48.9%의 역사유적을 차지한다.³³⁾ 시대별로는 고려(569건), 청동기(541건), 삼국(483건), 조선(467건)으로 약 63.5%의 역사유적에 해당한다.³⁴⁾ 유형별로는 성곽(627), 무덤-청동기(411), 불교(396), 무덤-고구려(343), 유존(341), 무덤-기타(311) 등이 약 74.9%의 역사유적을 차지한다.³⁵⁾ 특히 무덤이 전체 북한의 역사유적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또한 북한에도 UNESCO 목록에 등재된 문화유산이 총 6개가 있다. 다음에 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표 II-5. UNESCO 목록에 등재된 북한의 문화유산 개수

구분	개수
세계유산	2건
인류무형문화유산	4건
세계기록유산	0건

이렇게 북한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 문화유산이 소재되어 있다.

북한에 있는 문화유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시각 자료 등을 확보하기 쉽지 않지만 한국 문화유산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진 필요가 있다.

다) 국외소재 문화유산

한반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 많다. 한국 출토 문화유산이 해외로 반출된 계기가 다양한데 적법적인 구입 및 기증이 있고 불법적인 식민통치, 도난으로 인한 반출 등도 있다. 이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환수, 국제교류 등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³⁶⁾이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의하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27개국의 784개처에서 229,655점

26) 박지영(2021, 205); 2009년 기준

27) 박지영(2021, 205); 2009년 기준

28) 미상

29) 박영정(2021, 252)

30) 박영정(2021, 253)

31) 이선(2021, 280)

32) 성종상, 김서린(2021, 311~313)

33) 김혜정(2021, 153)

34) 김혜정(2021, 154)

35) 김혜정(2021, 156)

36) 국외소재문화재재단. <https://www.overseaschf.or.kr/okchf/index.do>

의 문화유산이 소재되어 있다고 한다.³⁷⁾ 이 중에 95,622점(41.64%)은 일본의 393개처에 제일 많이 소재되어 있으며 그다음으로 미국에는 170개처에서 65,241점(28.41%)이 소재되어 있다. 이어서 독일, 영국, 중국이 각각 5~6%의 국외소재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다. 영미권 위주로 보면 앞서 말한 미국(28.41%)과 영국(5.58%), 캐나다(1.87%), 호주(0.12%)가 있는데 총 211개처의 82,610점의 한국 문화유산을 소재하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에서 분류한 문화유산 유형을 살펴보면 전적이 66%로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다음으로 일반공예(15%), 도자공예(9%)가 있으며 과학기술/민속자료, 전통회화, 서간류, 근대매체 등도 있다.³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데이터 중에 미국, 일본, 중국, 네덜란드의 9개처³⁹⁾의 3,678점의 문화유산에 대한 더 자세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시대별, 유형별로 문화유산을 살펴볼 수 있다. 3,678점의 유물 중에 조선시대 유물이 2,071점(56.3%)가 제일 많으며 대한제국(197점, 5.4%), 고려(148점, 4.0%), 개항(107점, 2.9%)이 그 뒤를 잇는다. 유형별로는 도자기(796점, 21.6%), 나무 (608점, 16.5%), 지(408점, 11.1%), 금속(380점, 10.3%) 순으로 제일 많으며 위에서 언급된 전체 목록의 유형별 비율과 다르게 나타난다. 국외소재 한국 문화유산은 해외로 수출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의 전적 및 공예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해외 박물관 소장품 외에도 한국 관련 유적도 해외에 있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지린성, 랴오닝성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 환도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산성, 무덤 등의 유적이 있다. 예를 들어 오녀산성, 국내성터, 환도산성, 광개토태왕비와 태왕릉, 장군총, 무용총 등이 남아 있다. 이 중에 일부가 2004년에 북한과 동시에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처럼 한국 문화유산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비롯한 30여 개의 나라에 분포되어 있다. 반복으로 계산되는 것도 있겠지만 국가유산, 민족유산, 국내외 박물관 소장품 등을 합하면 약 2백6십만여 점의 한국 관련 문화, 자연, 무형유산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지정 국가유산, 민족유산만 보면 17.6~19.6만 건의 유산이 존재한다. 이 수많은 문화유산이 이 논문의 연구대상에 포함된다. 이 중에 시대, 형태, 분류 등이 다양하며 다음 섹션에서 이 많은 문화유산의 다면적인 성격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한국 문화유산의 성격

37)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 현황”

https://www.overseaschf.or.kr/okchf/status/US_CS_FS_viw.do

38)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아카이브. <https://www.overseaschf.or.kr/archive/index.do>

39) 미국의 미시간대학교 미술관, 버몬트대학교 플레밍미술관, 브루클린박물관, 클레어몬트대학교도서관_맥 코믹컬렉션, 일본의 와세다대학교도서관, 일본민예관, 중국의 상하이도서관, 푸단대학교도서관, 네덜란드의 국립민족학박물관.

위에 소개된 수많은 한국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지정 분류 외에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파악함으로써 왜 한국 역사문화 교육과 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알 수 있다. 문화유산을 살펴볼 수 있는 과점은 형태, 지역, 시대, 종교, 기능 등이 있다. 위에서 조사한 국내외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이런 관점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가. 형태별의 문화유산

앞서 설명한 대한민국, 북한, 유네스코 지정규칙을 보면 기본적인 구분은 모두 문화유산의 형태로 한다. 각 규칙이 다소 다르지만, 크게 유형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은 유형유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뉘며 북한에는 유형유산에 해당하는 물질유산, 무형유산에 대한 비물질유산, 그리고 자연유산으로 구별한다. 유네스코의 경우엔 유형유산인 유적과 자연유산을 같이 세계유산(World Heritage Site)으로 분류하고 유형유산인 기록유산을 따로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분류한다. 무형유산에 해당하는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등이 있다. 유형유산 중에 또 추가적으로 분류되는 성향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는 국보/보물과 사적을 구별하고, 북한에는 유물과 유적을 구별하고 유네스코에는 유적과 기록유산을 구별한다. 즉, 유형유산 중에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유산과 이동이 가능한 '동산'유산을 구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정 종류와 문화유산의 형태가 이렇게 관계가 밀접한 이유는 문화유산의 형태에 따라 관리하는 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각 형태를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유형유산

유형유산이란 물질적 형태를 가진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유형유산은 규모가 커다란 도성에서 무덤에서 출토된 작고 취약한 구슬까지 포함한다. 유형유산의 규모가 클수록 옮기기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관리해야 하며 규모가 작을수록 유실되지 않도록 박물관 등으로 옮겨 조심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 불탑, 불상, 불화, 비석, 유구 등 중간 규모의 유형유산은 보존상태, 환경 등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도 하고 박물관으로 이동하여 관리하기도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가옥, 묘소 등과 같은 건축물도 도시개발 등에 의해 해체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즉, 유형유산에 있어서 이동이 아예 불가능한 형태에서 이동이 쉬운 형태까지의 스펙트럼이 있다.

- 부동산 유형유산

이동이 불가능한 문화유산 중에 유적이 대표적이다. 유적의 종류는 여러가지 있는데 유물산포지, 건물지, 패총, 요지 등과 같은 고고학적 유적지와 성곽, 읍성, 돈대, 진, 봉수 등과 같은 토조, 석조 방어시설도 있다. 이외에도 마을이나 옛 담장, 인물 관련 유적지도 있는데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유산이다. 마애불, 암각화 등과 같은 바위나 암벽

에 새긴 글이나 그림도 그 바위에 규모에 따라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해체 가능한' 부동산 유형유산

유형유산 중에 기본적으로 부동산 형태를 가지지만 필요에 따라 해체이동이 가능한 문화재가 있다. 제일 대표적인 예시는 가옥, 불전, 사당 등과 같은 목조 건물이다. 한국의 목조 건축법이 짜임새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 건축유형이다. 따라서 수리, 중수, 중창이 필요할 때 목조 건물을 해체했고 풍수지리, 자연재난, 도로나 댐 건설, 도시개발 등과 같은 이유로 예로부터 목조 건축물을 해체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시 짓는 경우가 많다. 불탑이나 비석을 비롯한 대형 석조 건조물도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화유산이지만 목조 건물과 마찬가지로 해체가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필요에 따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특히 풍화작용으로 비석의 비문이나 불상의 이목구비 등이 훼손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석조물을 보존하기 위해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다. 불전에 그린 벽화도 보존하기 위해 때어서 특별 전시실로 옮기는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묘소를 옮기는 경우도 간혹 있으며 유적지의 유구도 건설, 개발 등으로 인해 원래 위치에서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다시 설치하여 전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화유산이면서도 특별한 사유에는 해체하여 다른 곳에서 다시 조립하기 가능한 문화유산도 있다.

- 동산 유형유산

동산 유형유산은 이동이 가능한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이 중에 도자기, 회화, 출토유물, 가구, 문서, 공예품, 소규모 불상 등이 있다. 동산 유형유산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비교적 작고 상태가 취약한 유물이 많다. 따라서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도서관, 아카이브 등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동산 유형유산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전시 등을 위해 다른 박물관에 임시로 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곳에서 많은 문화유산을 전시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큐레이션할 수 있으며 여러 관점으로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해외 박물관, 도서관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은 모두 동산 유형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국제로 배송이 가능한 규모였기 때문이다.

- 문화유산의 재질

유형유산은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 이 재질로 문화유산이 분류되기도 한다. 동산 유형유산을 보관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메타데이터에는 도자기, 흙(토조, 소조), 유리/보석, 금속, 종이, 돌(석조), 나무(목조), 섬유 뻘/뿔/조개, 칠기, 가죽/털, 씨앗, 풀, 광물, 고무 등과 같은 재질로 분류되어 있다. 부동산 문화유산에는 석조, 목조, 토조 위주의 재질이 많다. 재질에 따라 문화유산의 관리보존법도 달라지고 훼손의 여지도 달라진다. 재질로 분류함으로써 비슷한 유물끼리 비교할 수도 있다.

자연유산

자연유산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역사가 깊고 풍경이 아름다운 명승,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질유적, 그리고 살아 있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그들의 번식지, 생식지가 있다.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문화유산 지정 규칙에는 화석, 산, 연못, 동굴, 바위와 같은 종류의 자연유산은 명승으로 분류하고, 번식지, 서식지, 자생지, 식물, 동물 등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 이런 자연유산은 부동산 유형문화유산 보다도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이동이 불가능한 문화유산이다. 예외적으로는 식물이나 삼살이, 진도 등과 같은 개를 해외로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는다. 자연유산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도시개발 등으로 훼손 및 멸종의 위기가 있어서 유형유산과 관리 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무형유산

무형유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이므로 전통 공예, 음악, 행사 등을 관련 기술 및 그 기술을 지키는 장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무형유산 지정은 인물이 된다. 대한민국의 무형유산법에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인이 '무형유산 보유자'라고 하며 그 후계자를 '이수자'라고 하며 기술을 공식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전수자'라고 한다. 전통기술 관련 무형유산은 궁시장, 낙화장, 선자장, 대목장, 두석장, 각자장, 불화장, 서각장, 장도장, 지장, 춘포짜기, 칠장, 술 만들기 등이 있다. 전통 무용이나 음악 관련 무형유산은 오광대, 탈춤, 교방춤, 포구락무, 한량무, 농악, 농요, 민요, 가사, 시조, 약기 산조, 굿 등이 있다. 그리고 축제나 의식 관련 무형유산은 종묘제례, 단오제, 동화제, 당제, 풍어제, 낙화놀이 등이 있다. 무형유산은 다른 형태의 문화유산과 비교했을 때 제일 큰 특징은 사람이 문화유산이 되기 때문에 해외 창출이 쉽고 기술이기 때문에 누구나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가 있다. 즉, 문화유산 중에 상호작용이 제일 가능한 형태이며 유형유산과 달리 관람객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형태의 문화유산이다. 물론 인원이 많고 지역성이 강한 축제나 의식은 해외로 가서 공연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장인이 해외 등으로 가려면 비용과 시간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형유산은 유형유산과 달리 관람객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화유산의 형태가 왜 중요한가?

문화유산의 접근성이 그 형태에 달려 있다. 부동산 유형유산이나 자연유산이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화유산을 관람하거나 연구하려면 그곳까지 가야 한다. 시간과 비용을 드려야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특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이 제일 어려운 문화유산이 된다. 동산 유형문화유산은 현장에서 보관하기도 하지만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동산 문화유산은 부동산 문화재보다 접근이 더 쉬운 이유는 우선 박물관에는 수많은 유물이 같이 보관되어 있어서 한 번에 많이 관람할 수 있고 또한 특별전시 등을 통해 다른 나라에 있는 박물관으로 유물을 임시로 빌려서 한국까지 오지 않더라도 한국 문화유산을 직접 관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 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한국 문화재는 다 동산

유형문화유산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은 사람이나 단체가 그 유산이 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만 넘을 수 있다면 접근하기 제일 쉬운 문화재 형태가 되겠다. 음악, 춤, 기술 등은 직접 감상하거나 배울 수가 있어서 경험을 통해 접근하기 가능한 문화유산이다. 결국, 문화재에 형태에 따라 그 문화유산을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달라지고 특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유산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극복해야 할 장벽이 달라진다.

나) 지역별의 문화유산

한국의 문화유산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해외에서도 분포되어 있다. 문화유산 지정에 있어서는 형태 외에 분류되는 기준이 지역이다. 세계, 국가, 지방(시도), 지자체(시군구)의 단위로 지정이 될 수 있다. 세계지정 문화유산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은 대한민국에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있으며 지방(시·도) 지정 문화유산은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민속문화유산, 시·도기념물, 시·도등록문화유산, 시·도문화유산자료가 있다. 북한에는 문화유산 중에 비물질유산(무형유산)만 국가와 지방 문화재로 나뉜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향토 문화유산은 '부천시 향토유적', '목포시의 문화유산' 등과 같이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지역의 행정적인 영향

지정 단계와 관련 없이 국가, 시도 문화유산의 관리는 물론 문화재청이 전체적으로 감독하지만 직접 관리 하는 기관이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나 지자체가 된다. 따라서 지자체의 예산 및 공무원, 의원 등의 실력, 지식, 관심사에 따라 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품질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북한, 외국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도 그 관리 기관에 따라 관리 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북한,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은 타지에서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즉, 문화유산의 소장 지역이 행정적 관리 및 접근성에 영향을 준다.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문화유산가 현재 소재되어 있는 곳과 별개로 원래 출토되거나 제작된 곳도 중요하다. 부동산 유형문화유산은 이동이 불가능하여 문화유산이 생산된 곳과 현재 소장되어 있는 곳이 같다. 그러나 동상 유형문화유산은 이동이 가능하니 원래 지역에서 옮겨간 경우가 있다. 상태가 취약한 유적지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 지역 박물관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그래도 지역성을 유지가 된다. 그러나 전국의 대표적인 유물이 모여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수출될 유물이 전시하는 해외 박물관에서는 유물들이 원래 지역과 떨어져 있어서 지역적 맥락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지역성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지역마다 사투리, 특산물 등이 있듯이 지역의 특징 및 역사를 나타낸다. 특히 도시화된 한국의 사회에서 문화유산을 통해 각 지역의 특징을 보존할 수 있다. 또한 문화유산이 역사적으로 지역마다의 특징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가옥 등은 지역의 기후적 특징을 나타내며 불상이나 물화가 제작된 곳을 알면 그 지역적 특징 및 화승 등의 활동지역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곽, 유적지 등을 통해 옛날부터의 방어시설, 농사, 거주 문화를 알 수 있다. 이런 것이 지역과 관련이 있어서 문화유산이 지역성으로 봐야 한다.

문화유산의 지역이 왜 중요한가?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소장되어 있는 나라에 따라 문화유산 관리법이 다르다. 또한 문화유산의 위치에 따라 그 접근성이 달라진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성격, 특징에 있어서 문화재가 제작된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의 역사 및 문화를 더 자세히 알게 해준다.

다) 시대별의 문화유산

문화유산은 형태와 지역에 따라 지정되고 관리된다. 지정과 관리를 관련 없이 문화유산을 분류하는 제일 큰 방법은 시대이다.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 종목별 검색에는 원시시대, 선사시대, 석기시대, 청동시대, 철기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일제강점기 등의 시대로 분류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품 명칭 용례집에 의하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 초기철기, 원삼국, 부여-삼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남북국,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대한제국으로 시대를 분류한다. 시대가 미상인 문화유산이 있을 수 있고 동식물 및 그들의 번식지, 생식지처럼 시대 분류 불가능한 문화유산도 있다.

문화유산의 시대가 왜 중요한가?

시대로 분류하는 이유는 비슷한 시대에 제작된 문화유산을 서로 비교할 수 있으며 그 당시의 문화적 특징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한 형태의 문화유산을 시대별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그 문화재를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다. 고문헌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 역사적 사실의 증거는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지역과 시대를 같이 볼 때 시공간의 흐름을 문화유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라) 종교별 문화유산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형태, 지역, 시대로 구별이 된다. 이것이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재포털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메타데이터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외에 문화유산의 정체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 중 하나는 종교이다. 민속신앙을 나타낸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성혈성穴부터 20세기 초중의 개신교 외국인 선교사들이 지은 붉은벽돌 교회건물까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종교가 문화유산에서 끊임없이 나타난다. 종교와 관련이 없는 문화유산보다 종교와

관련이 있는 문화유산이 더 많다.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로는 민속신앙, 불교, 유교, 기독교(천주교, 개신교), 신흥 종교(천도교 등)이 있다. 각 종교별로 문화유산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한다.

민속신앙의 문화유산

민속신앙은 한국의 토착 종교이며 한국의 제일 역사 깊은 믿음이다. 민속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평화와 안전, 풍요로운 수학,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수호신에게 비는 역할이 제일 크다. 무속신앙이나 풍수지리도 민속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속신앙 관련 문화유산을 형태로 나눠서 소개하면 유형유산에는 고인돌, 당산, 장승, 입석, 남근석 등, 무형유산에는 단오제, 고싸움놀이, 별신제, 농악, 줄다리 등과 같은 마을행사나 굿 등, 자연유산에는 수호나무, 비보숲, 성스러운 산 등이 있다.

불교의 문화유산

불교는 삼국시대에 한반도로 전파되면서 현재까지 한국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민속신앙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한국의 고유한 불교문화가 형성되었다. 또한 한반도에 많은 나무, 화강암 등과 같은 재료에 따라 불교 유물의 형태도 다른 나라와 달라진 면도 있다. 불교 관련 문화유산을 형태 별로 소개하면 유형유산에는 사지, 사찰, 불전, 강당, 요사재, 탑, 승탑, 승탑비, 마애불, 불상, 불화, 당간지주, 석등, 동종, 계단, 공양구, 복장유물, 전적 등, 무형유산에는 수륙제 등과 같은 행사, 자연유산에는 불교 유적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산 등이 있다.

특히 불전, 불상, 불화에는 다양한 부처와 보살을 모시고 묘사한다. 석가모니불을 모신 대웅전,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전,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 관음보살을 모신 원통전, 미륵보살을 모신 미륵전, 지장보살과 시왕을 모신 명부전, 약사불을 모신 약사전, 나한을 모신 나한전, 칠성이나 산신을 모신 칠성각 등 다양한 불전이 있다. 불상도 하나의 불상, 삼세불, 삼신불 등과 같은 삼존불상이나 시왕상, 16나한상, 천불상 등과 같이 일괄로 나타날 수 있다. 마애불, 석조, 목조, 소조 등 다양한 재질로도 만들어진다. 불화도 기능에 따라 괘불, 후불탱, 벽화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삼존불도, 영산회상도, 지장시왕도, 감로도, 칠성도 등 다양한 주제도 묘사된다.

불교 전적의 경우에 중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직지심체요절이나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불교의 신앙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뿐만 아니라 출판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사찰이 출판의 중심이 되면서 출판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불교 문화유산 중에 복장유물, 화기, 비석 등을 통해 어떤 화승이나 조승이 어떠한 시주를 받아서 어떤 이유로 불상이나 불화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흐름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인도,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불교 문화와 비교할 수 있어서 한국 국사유산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유교의 문화유산

유교는 종교이면서도 통치이념이기도 한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행정 관련 정부시설, 올바른 삶을 배우는 교육시설, 가옥과 같은 생활 시설, 사당과 같은 숭배 시설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불교에 유물이 많은 데에 비해 유교 관련 문화유산은 건축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유형유산 중에 사립 시설로 서당, 사당, 서원, 영당, 재사, 제단, 정려 등이 있으며, 공립 시설로 향교(대성전, 명륜당), 성균관, 종묘, 궁궐 안에 있는 영당 등이 있고, 그 외에는 비석, 문중 기록, 철학 문서 등과 같은 기록물도 있다. 그리고 남녀유별, 장유유서와 같은 유교 사상을 담긴 사대부가도 유교 관련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무형유산에는 종묘제례 등과 같은 의식, 넓은 의미에서 궁중 음악과 무용도 포함한다. 유교 관련 자연유산이 특별히 없다.

기독교의 문화유산

한국의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눌 수 있다. 천주교는 한국인이 중국에서 외국 선교사와 문서를 접한 후 그 믿음과 지식을 한국으로 다시 가져와 18세기에 한국에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처음에 종교를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 사람들이 관심 가졌다. 그러나 19세기에 여러 박해가 일어나면서 크게 억압을 받았다. 반면에 개신교는 개항 이후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근대 교육 및 의료지식을 가지고 오면서 종교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하였다. 기독교는 무형유산이나 자연유산이 특별히 없으나 유형유산으로 천주교는 순교성지, 성당, 공소 등이 있으며 개신교는 교회 및 근대 학교, 병원 등이 있다.

신흥종교의 문화유산

신흥종교는 한국에 새로 생긴 종교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동학에 이어서 설립된 천도교가 있다. 신흥종교 관련 문화유산이 많이 없는데 교당 및 종교 설립자의 생가지 등이 있다.

문화유산의 종교가 왜 중요한가?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 새마을운동과 같은 도시화 사업 등을 통해 종교시설이나 전통문화가 많이 파괴되고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관련 없는 문화유산보다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더 많이 남아 있다. 그 의미는 종교가 많은 유형유산이 만들게 된 계기가 되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유는 예로부터 한국인들이 신앙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면 종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종교가 문화유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 기능별 문화유산

문화유산은 형태, 지역, 시대, 종교로 외에도 기능을 통해 분류할 수 있다. 문화재청의 국가 문화유산포털 메타데이터의 분류 중에 '교육문화', '교통 통신', '산업생활', '정치국방', '주거생활' 등과 같이 기능과 관련한 분류가 있다.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교육, 행정, 방어, 숭배,

기념, 기록, 매장, 거주, 생활, 풍류, 산업, 등과 같은 기능을 통해 문화유산을 살펴보도록 한다.

교육시설

한국 문화유산 중의 교육시설은 크게 불교, 유교, 현대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사찰의 강당, 서당, 향교나 성균관의 명륜당, 서원의 강당, 근대 초·중·교·대학교 건물 등이 있다. 건축물 외에도 가르침을 전달하는 불교 전적이거나 불화, 유교 고문헌 등도 교육의 기능을 하고 있다.

행정시설

한국 문화유산 중의 교육시설은 고려, 조선 전근대시대의 관아 등과 근현대시대의 청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근대 행정시설은 시대와 지역마다 달라지지만 도성 및 중앙정부와 지방읍성과 관아로 나눌 수 있다. 도성과 중앙정부에는 궁궐, 육조, 의정부, 승정원 등을 포함하며 읍성과 관아에는 객사, 동헌, 문루 등과 같은 건물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영, 도호부와 같은 군사적 성격도 같이 있다. 이 행정 체계를 연결해주는 역원 등도 있다. 근현대 행정시설로는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에 세운 청사 등이 있다. 건축물 외에는 의궤, 교지, 실록 등 행정을 알려주는 문서도 다양하게 있다.

송배시설

송배시설은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속신앙에는 장승, 수호나무, 당상, 남근석 등 수호신을 송배하는 문화가 있으며 불교에는 불전, 제단, 불탑, 불상, 마애불, 불화, 복장유물 등을 통해 부처나 보살을 송배한다. 유교에는 조상이나 성현을 모신 사당이나 그 대상이 되는 신주, 초상화 등이 있으며 제사를 지내는 무덤도 유교적 송배시설이 될 수 있다. 송배에서 사용되는 공예물을 준비하기 위한 향대청이나 전사청, 재사, 재실 등과 같은 부속시설도 있다. 기독교에도 성당이나 교회가 송배의 공간이 된다.

방어시설

방어시설로는 도성, 읍성, 산성, 토성, 돈대, 진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성곽이 있으며 그 안에 설치된 장대, 봉수대 등도 있다.

거주시설

거주시설을 생각하면 가옥을 먼저 떠올린다. 가옥 중에 생가, 종가와 같은 특별한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옥 외에도 궁궐, 승려의 요사채, 향교나 서원의 동서재, 여관, 선사시대 주거유적, 등도 거주 공간에 포함된다.

산업시설

산업시설 중에 패총과 같은 어업시설, 제방, 우물, 금수탑 등과 같은 물 공급시설, 요지(가

마)나 공장과 같은 생활용품생산시설, 나루터, 다리, 등대, 철도역사, 전차 등과 같은 교통시설, 은행과 같은 경제시설 등이 있다. 무형유산에는 전통기술 등은 산업과 관련이 있다.

생활용품

생활용품 중에 도자기, 공예품, 가구, 옷, 농사기구 등이 있다. 생활용품을 통해 당시의 공예기술에 대해 알 수 있으며 한국인들의 의식주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풍류

풍류시설 중에 누각, 정자, 정원 등이 있으며 유형유산으로 무용, 음악, 축제 등이 있다. 풍류를 통해 민속풍습부터 선비, 왕실의 이상적인 삶과 미학적인 가치관에 대해 알 수 있다.

기록

기록하기 위해 만든 문화유산 중에 일기, 비석, 문중 기록 등이 있다. 기록은 역사적 사건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언어적 변화에 대해서도 알리게 하는 자료이다. 기록을 통해 일상생활, 상속, 경제, 가정의 구조, 건축, 전쟁 등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알 수 있다.

기념

사람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시설물로는 무덤, 기념탑, 정려, 비석, 승탑 등이 있다. 기념 관련한 유물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권력을 가졌고 어떤 공덕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됐는지 알 수 있다.

매장

매장시설로는 고인돌, 고분군, 무덤, 왕릉, 태실, 승탑, 순교성지 등이 있다. 매장 관련 유물을 통해 한국인들의 내세관, 풍수지리, 사회 계층, 건축 기술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문화유산의 기능이 왜 중요한가?

문화유산의 기능을 살펴보면 시대별, 지역별, 종교별 인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으면 한국인들의 생활습관과 중요하게 생각했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다.

바) 인물이나 사건으로 바라본 문화유산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인물 관련 문화유산의 유형으로 무덤이나 가옥, 일했던 곳, 비석(본인에 대한 비석 및 글을 짓거나 쓴 비석), 모셔진 사당, 즐겨갔던 명승, 쓴 일기, 편지, 학문저서, 시 등이 다양하게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을 통해 한 인물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으며 또한 문화유산에 같이 나타나는 다른 인물을 통해 인적교류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다. 사건도 문화유산으로 바라보면 여러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그 사건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형태, 지역, 시대, 종교, 기능 등을 통해 문화유산의 다면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한 문화유산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을 분류하는 데에 있어서 한 문화유산이 한 불류로 분류하는 것이 그 문화유산의 성격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메타데이터에는 한 문화유산 당 하나의 분류로만 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제IV장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한다.

2. 한국 역사·문화 교육에서의 한국 문화유산

한국의 문화유산이 한국 역사·문화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 먼저, 앞에서 설명했듯이 문화유산이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유산을 바라보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학술적 분야와 관련이 있기에 다양한 목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유산이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감각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 감각적인 면 때문에 이렇게 물품(object) 기반 문화유산 교육이 글자(텍스트)기반 교육과 구별이 되고 텍스트 기반 교육을 보충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이 인류의 문화와 역사가 증거되는 자원으로서 보존하고 이해하려는 가치가 있다. Freeman Tilden이 말한 것처럼 “해설을 통해 이해, 이해를 통해 감상, 감상을 통해 보존”. 즉,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면 우선 해설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법을 보면 문화유산 교육 관련하여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5조)고 하며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제26조)고 한다. 이어서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제27조)고 한다. 그리고 원래 ‘한국문화재단’이었던 ‘문화유산진흥원’을 통해 “공연·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하고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하도록 한다(제32조).

문화유산법(법률 제19588호)에는 문화유산 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 기반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하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하도록 한다(제22조의2).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도 지정할 수 있게 한다(제22조4).

그런데 문화유산 교육이 의무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이 한국의 역사문화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원이다. 다음에는 이 교육적 가치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문화유산이 다양한 학술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교육적 가치가 높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문화유산이 지역, 시대, 종교, 기능, 인물, 사건 등으로 분류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리고 문화유산의 개수가 많고 종류가 다양하다. 이어서 한 문화유산이 다양한 학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찰에 있는 불전은 건축학적 관점, 임진왜란 등 역사적 사건의 관점, 불교 신앙이나 풍습의 관점, 불교 예술(불화, 불상 등)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다면적 성격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만한 대상도 다양하다. 또 사찰의 불전을 예시로 하면 한 불전을 같은 지역의 건축물과 비교할 수 있고, 지역이 다르지만 같은 시기에 지은 건축물과 비교할 수 있고, 같은 성격의 불전(즉, 대웅전, 명부전 등)과 비교할 수 있고, 같은 건축가가 만든 건물과 비교할 수 있고, 같은 규모의 건축물과 비교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비슷한 건축물과도 비교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문화유산이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서 다양한 교육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수의 문화유산이 있어서 비교하면서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끝도 없이 가능하다. 때문에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효율적인 교육 대상으로서 가치가 높다.

또한 문화유산이 감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적인 가치가 높다. 교육할 때 글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화유산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감각으로 감상하여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형유산, 자연유산은 시각, 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무형유산은 시각, 청각, 촉각 등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감각적인 성격을 가지기에 언어적인 설명 없이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유명한 속담처럼 “그림 하나가 천 마디 말의 가치가 있다”. 특히 한국어를 모르거나 아직 배우는 사람들에게 긴말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는 것보다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더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울 수 있다. 그리고 감각을 이용하여 문화유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다. 특히 춤, 노래, 공예기술 등과 같은 무형유산의 경우엔 직접 체험하고 배우고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이 글 위주의 교육을 보충하고 어떨 때 글을 대체할 수가 있어 특별화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3.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교육자료

- 글로벌 시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인터넷을 통해 지식 전달이 빨라지고 국경을 넘는 시대
 - post-covid 시대(현장 방문 불가능하여 원격 체험의 필요성)
 -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달라지고 배움의 통로가 다양해짐
- 이에 따른 내용의 차이점
- 이에 따른 정보 전달 방식의 차이점

1) 교육을 목적으로 한 한국 문화유산 자료

- 전문가(학자, 학예사, 관리자)가 아닌 배우는 사람의 입장
- 문화유산 해설문 지침(이해하기 위한 것)

- 배움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 --> 다양한 수준의 내용
- 유기적인 전달 방식(몰라도 접근하기 쉬운 것)
- 다양한 배움의 목적을 고려한 것 --> 문화유산 위주만 아닌, 역사·문화 주제로부터의 접근

2)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유산 자료

-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
- 한국 문화와 역사의 기본 개념을 모르는 사람
- 영어 등 익숙한 언어로 제공된 자료 --> 관심이 더 가지게 한다
- 기본 개념의 설명도 같이 필요한 --> 특히 인물, 사건, 장소, 종교, 미술·건축 개념 등

3) 해외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유산 자료

- 문화유산(유물, 유적, 무형유산 등)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황
- 실감 미디어 콘텐츠의 필요성
- 360 사진(가상현실 갤러리), 3D모델, 360 영상, ASMR(오디오) 등

따라서 글로벌 시대의 한국 역사·문화 교육에 맞는 한국 문화유산 자료의 내용 및 제공 방법은 이런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한국 문화유산에 관련 영문 자료 현황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외국어 교육 자료 사례 분석의 목적은 어떤 교육자료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자료가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 한국학을 위한 한국 문화유산 디지털 큐레이션이 왜 필요한지 확인하고 기존 사례에는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한 참고할 만한 유용한 디지털 큐레이션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1. 형태별 자료 분석

1) 온라인 박물관 컬렉션

요즘은 대부분의 박물관이 소장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유물 관람은 현장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가장 쉽게 유물을 접할 방법이다. 따라서 국내외의 온라인 컬렉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정보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지 살펴볼 의미가 있다. 비교하기 위해 국외 사례 3개, 국내 사례 2개, 그리고 국내외 협력으로 이루어진 사례 1개를 분석하려고 한다. 영미권 박물관 중에 어느 정도 한국 관련 유물이 소장되어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가 풍부한 것 중으로 선정하여 영국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과 미국의 국립아시아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참조사례로 삼기로 하였다. 국내의 경우에 한국의 제일 대표적인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 및 유물과 유적 등을 함께 소개하는 문화재청의 영문 홈페이지를 참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체 디자인 및 설계는 해외에서 개발하고 콘텐츠는 국내 기관에서 개발한 구글 아트 앤 컬처도 살펴보려고 한다.⁴⁰⁾

기본적으로 국내의 경우 대부분 콘텐츠를 한국어로 제작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영어로만 제작하는 영미권 박물관보다 영어 콘텐츠의 양이나 다양성이 비교적 단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외 온라인 컬렉션을 비교 분석할 때 이 점을 감안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각 유물의 소개 페이지의 경우 국문과 영문 페이지의 디자인과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가 거의 동일하여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외 컬렉션들을 어느 정도 평등하게 비교할 수가 있다.

가.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V&A)⁴¹⁾은 영국 런던에 위치한 왕립 박물관 중 하나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및 여왕의 남편인 앨버트 공작에 의해 1857년에 처

40) 영문 온라인 컬렉션은 국내외 기관의 사례 60여 개의 사례를 찾았으며 이 중에 제일 대표적이고 품질이 좋을 것을 더 자세히 검토하였다. 전체 온라인 컬렉션 목록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Victoria and Albert Museum. <https://www.vam.ac.uk/>

음 건립되었다. 박물관의 약 1,271,000점의 유물 중 약 1,370점은 한국에서 생산된 유물이며 영국의 박물관 중에 한국 관련 유물이 3번째로 많은 박물관이다(2024년 1월 기준).⁴²⁾ 또한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의 온라인 컬렉션은 다른 영국 박물관 보다 더 다양한 큐레이션 콘텐츠가 있어서 분석 사례로 선정했다.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의 홈페이지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전시를 홍보한다. 온라인 컬렉션은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나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컬렉션 페이지⁴³⁾ 상단에는 검색창이 있으며 하단에는 공간, 시대, 인물, 재료 및 기법, 지역 등 다양한 주제별 온라인 전시가 있다. 여기서 지역 전시에 한국과 관련한 전시도 있으며 아래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온라인 컬렉션의 검색기⁴⁴⁾로 키워드를 통해 유물을 찾을 수 있다. 좌측에 다양한 필터를 제공해 원하는 검색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필터는 분류, 인물, 기관, 컬렉션, 갤러리, 스타일, 지역, 유형, 기법, 재료, 시기 등 총 11개의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다른 조건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다(가령, 일본+한국). 기본적으로 유물의 검색결과에서 사진과 제목(명칭), 제작자, 시대의 정보가 출력되며 리스트 형태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색결과에의 순서 제어할 수 없으며 어떤 기준으로 나열되어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유물 페이지에는 먼저 대표 사진이 나온다. 웹사이트의 다른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검정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를 사용한다. 대표 사진 다음에 유물에 대한 기본 정보가 소개된다. 제목(명칭)은 제일 큰 글씨로, 유형 및 시대(세기)는 그 중간 크기의 글씨로, 그리고 제작자, 기원지, 그리고 기본 설명은 제일 작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제작자와 기원지는 링크로 다른 관련 유물과 연결되어 있다. 기본 정보의 우측에 다른 사진 및 전시실이 있는데 스크롤링하면서 사진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기본 설명 다음은 '유물 상세 정보(Object details)'로 분류, 유형, 제목, 재료 및 기법, 간략한 설명, 물리적 설명, 치수, 스타일(시대), 전시실 라벨, 유물 연혁, 요약, 참조 문서, 컬렉션, 소장품 번호 등이 있다. 이 중에 분류와 유형, 재료 및 기법, 스타일(시대), 컬렉션은 링크로 관련 유물과 연결된다. 상세 정보 다음에 해당 페이지(record)의 간단한 메타데이터가 있다. 그 아래에 '관련 유물' 섹션이 있는데 선정 기준을 알 수 없는 유사한 유물 6점의 사진과 링크를 무작위로 보여준다.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은 여러 가지 온라인 큐레이션 콘텐츠 컬렉션이 있다. 각 컬렉션 페이지에 컬렉션을 소개하는 글과 전체 소장품 목록으로 연결하는 링크가 있다. 그다음으로 컬렉션의 추천 소장품의 사진이 있는데 유형, 시대, 지역이 있는 라벨도 같이 보여준다. 그다음에 피쳐(Features)라는 다양한 유형의 관련 콘텐츠가 있다.

코리아 컬렉션⁴⁵⁾의 경우 글과 사진이 있는 '읽기' 콘텐츠와 영상이 있는 '보기' 콘텐츠가 있

42) 브리티시박물관은 4,915점의 유물, 피츠윌리엄 박물관의 2,440점의 유물로 한국 관련 유물이 더 많다.

<https://www.britishmuseum.org/collection/search?place=Korea>

<https://data.fitzmuseum.cam.ac.uk/search/results?query=korea&operator=AND&sort=desc>

43) "From the Collections," Victoria and Albert Museum.

<https://www.vam.ac.uk/collections?type=featured>

44) "Search Results," Victoria and Albert Museum.

<https://collections.vam.ac.uk/search/>

45) "Korea Collection." <https://www.vam.ac.uk/collections/korea>

으며 특히 박물관에서 지난 특별전시를 위해 만들어 둔 콘텐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다른 컬렉션⁴⁶⁾에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듣기’ 콘텐츠, 전시실의 지도와 진열장을 같이 보여주는 ‘방문하기’ 콘텐츠 등 더 다양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상호 작용하기’ 콘텐츠에는 ‘나만의 유물’을 만들기 활동, 갤러리 오디오 가이드, 고화질 사진을 통해 유물의 상세 요소를 살펴보기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은 온라인 방문객이 유물을 더욱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었고 다양한 검색 필터와 유물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관련 유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노력이 보인다. 아쉬운 점은 큐레이션 콘텐츠와 유물 페이지 간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피쳐 기사에는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해주는 링크는 종종 있는데 소개되는 유물의 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는 대부분 없으며 반대로 유물 페이지에서도 관련이 있는 피쳐 기사로 연결하는 링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다.

나. 미국 국립아시아미술관(National Museum of Asian Art)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미술관(National Museum of Asian Art)⁴⁷⁾은 스미스소니언 협회(Smithsonian Institution) 소속의 미술관으로 아시아 고미술품을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미술관이다. 국립아시아미술관의 유물은 서로 옆에 위치한 프리어 미술관(Freer Gallery of Art)과 새클러 갤러리(Arthur M. Sackler Gallery)에 전시되어 있다. 국립아시아미술관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45,467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 780점의 유물은 ‘한국(Korea)’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2024년 1월 기준).⁴⁸⁾ 한국 관련 유물의 점수가 미국의 다른 미술관 보다 적지만⁴⁹⁾ 스미스소니언 협회의 소속 미술관인 만큼 미국의 대표적인 기관이면서 전문성도 뛰어난 기관으로 참고 사례로 선정하였다.

국립아시아미술관의 홈페이지에는 영상 위에 큰 글씨로 “호기심을 환영합니다(Curiosity Welcomed)”란 내용 아래에 ‘미술과 문화를 탐색하기(Explore Art + Culture)’ 버튼이 보인다. 미술과 문화를 탐색하기 페이지로 넘어가면 온라인 컬렉션을 3가지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먼저 ‘미술 이야기를 발견하기(Discover Art Stories)’란 여러 큐레이션 콘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컬렉션 검색기로 연결해주는 ‘소장품 둘러보기(Browse the

46) "Europe 1600-1815", "Global Africa" 등을 참조
<https://www.vam.ac.uk/collections/europe#articles>
<https://www.vam.ac.uk/collections/global-africa#articles>

47) National Museum of Asian Art. <https://asia.si.edu/>

48) National Museum of Asian Art. "Search the Collections."
<https://asia.si.edu/explore-art-culture/collections/search/>

49) 미국 미술관 중에 보스턴 미술관(약 1,800점), 하버드 미술관(약 1,430점), 메트로폴리탄 미술 박물관(약 790점)이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2024년 1월 기준)
<https://www.mfa.org/collections/featured-galleries/arts-korea>
<https://harvardartmuseums.org/collections>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geolocation=Korea>

collection)' 링크가 있으며 마지막에 영상, 오디오, 상호작용 콘텐츠로 연결해주는 '더 많은 탐색 방법(More Ways to Explore)' 링크가 있다. 이 콘텐츠를 순서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미술 이야기를 발견하기(Discover Art Stories)' 페이지에는 색깔과 주제(테마), 재료 및 기법에 대한 총 8개의 '미술 이야기(Art Stories)'라는 큐레이션 콘텐츠가 있다.⁵⁰⁾ 이를 통해 색깔(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테마(여행, 환경), 재료 및 기법(무지갯빛, 먹, 금)에 대해 유물 사례와 같이 더 자세한 해설을 받을 수 있다. 이 콘텐츠는 Google Arts & Culture의 온라인 전시와 상당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온라인 컬렉션 검색기에는 시대(period)와 지역(geography), 유형(classification)의 검색 필터가 있다. 검색 결과 페이지에는 유물의 사진과 함께 제목 또는 명칭, 시대(연도), 그리고 지역이 함께 출력된다. 필터는 하위 항목으로 필터링(즉, 한국>전라도)을 할 수 있으나 동시에 각기 다른 조건으로 필터링(즉 한국+일본)은 불가능하다. 검색 결과의 순서 제어할 수 없으며 어떤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유물의 페이지는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검정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로 표기된 명칭이 위에 있으며 그 아래 사진도 크게 표시되어 있다. 다른 사진은 캐로셀(carousel) 형태로 되어 있으며 사진이 고화질 사진으로 확대 가능하다. 사진 바로 아래에 이용약관으로 연결하는 링크가 있다. 사진 다음에 '한눈에 보기(At a Glance)' 섹션이 있고 이 섹션에는 시대(세기)와 재료, 소장번호, 지역, 치수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하얀색 배경에 '유물 상세 정보(Object Details)'가 있다. 여기에는 설명, 소장 이력(provenance), 관련 전시실, 전시 연혁, 기존의 소장처 또는 관리자, 기원(지역), 크레딧 라인(credit line: 기증, 구입 정보), 유형, 그리고 제한 및 권리가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은 '더 탐색하기(Keep Exploring)'의 내용으로 비슷한 유물을 찾을 수 있도록 링크가 있는데 날짜(세기)와 관련 인물, 지역, 주제, 문화(민족), 유물 유형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스미스소니언 협회의 전체 DB로 연결해주는 링크도 있다.

다시 요약하면, 국립아시아미술관의 유물 페이지는 '한눈에 보기', '유물의 상세 정보', 그리고 '더 탐색하기'로 내용을 나누어 이용자가 알고 싶은 만큼 배울 수 있도록 구성 되어있다. 특히 명칭, 사진, '한눈에 보기'를 검정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로 하고 '유물의 상세 정보'와 '더 탐색하기'를 하얀색 배경에 검정색 글씨로 다르게 표기하여 시각적으로 '기본 정보'와 '상세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더 탐색하기'에 여러 종류의 관련성이 있는 유물의 링크를 제공하여 문화유산에 대해 배우려는 사람에게 유용하게 되어있다. 단, 아쉬운 점은 관련 인물, 관련 주제 등과 같은 링크는 '더 탐색하기'에서 제공하여 키워드만으로 유물 필터가 가능한데 기본 검색기 페이지에는 시대, 지역, 유형만의 조건으로 필터링할 수 있어 상세 검색하기엔 한계가 있다.

셋째로 '더 많은 탐색 방법(More Ways to Explore)'은 영상, 오디오, 상호작용 콘텐츠로 각 개별의 페이지로 나누어져 있다. 영상은 '최근에 올린 영상' 그리고 '분류 별 영상'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되어 있다. 각 영상의 링크는 유튜브 영상으로 직접 연결해 준다. 분류 별

50) National Museum of Asian Art. "Art Stories." <https://asia.si.edu/explore-art-culture/art-stories/>

영상'에는 보존 과학 및 기술(Conservation Science & Technology), 학예사의 시각(Curator Perspectives), 아시아 영화 및 영화 제작자(Film & Filmmakers of Asian Cinema), 실습 시연(Hands-on Demonstrations), 공연(Performances), 학술 심포지엄 및 패널(Scholarly Symposia & Panels)로 나누어져 있다. 오디오는 <Sidedoor('협문')>이란 스미스소니언의 팟캐스트, 동화 등 실크로드 관련 이야기들, '소리풍경(Soundscape) 공연', 그리고 '프리어 생각하기' 팟캐스트와 전시실 하이라이트, '학예사의 이야기'를 포함한 '과거의 이야기와 지혜(Words and Wisdom from the Past)'등의 다양한 청각적 콘텐츠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콘텐츠(Interactives)에는 전시실 VR 갤러리, 유물의 3D모델, 전시실 AR 콘텐츠 등으로 7개의 가상현실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제공되어 있다. 요약하면 '더 많은 탐색 방법'의 콘텐츠는 시각 외에 다른 감각을 사용하여 유물을 더욱 실감 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국립아시아미술관의 온라인 컬렉션은 웹사이트 이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유물에 접근하고 탐색하도록 하며 유물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수준으로 자세하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도록 설계한 노력이 보인다. 물론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필터링 기능 등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국립아시아미술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 화면에서 온라인 컬렉션 콘텐츠로 바로 연결하는 링크가 크게 강조되어 있으며 관람 정보, 현재 전시 등에 대한 정보는 그 다음 순위로 소개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상단의 메뉴도 간략화되어 있어 온라인 이용자가 컬렉션 및 큐레이션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순위로 매겨 순서에 맞게 시각적으로 배치한 것은 홈페이지를 단순한 정보 제공의 공간이 아닌 배움의 장터로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스미스소니언 협회가 'Learning Lab'⁵¹⁾이란 교육 웹사이트도 따로 개발한 것을 함께 고려했을 때 스미스소니언 협회가 미술관의 역할 중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치관은 국립아시아미술관의 홈페이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⁵²⁾은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미국의 제일 큰 미술관으로 460,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소장품 중에 한국과 관련된 790여 점의 유물을 소장 중이며 한국 미술 갤러기도 설립되어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홈페이지에는 방문 방법을 비롯한 주소, 현재 전시, 및 관람 시간, 최근의 정비 사업, 회원 가입, 뮤지엄샵 등을 홍보하고 있다. 온라인 컬렉션을 찾으려면 메뉴에 있는 '미술(Art)' 아래에 있는 '메트 컬렉션(The Met Collection)'으로 클릭하면 된다. 온라인 컬렉션 페이지의 상단에 검색창이 있으며 그 아래로 20여 개의 전시실을 개별로 관람할 수 있다. 그 아래에는 소장품 관련 연구 및 자료 등을 소개하는 링크가 있다.

51) Smithsonian Learning Lab. <https://learninglab.si.edu/>

52)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https://www.metmuseum.org/>

검색기에는 키워드 검색이 있는데 제작자 및 문화, 제목, 설명, 전시실, 소장품 번호 항목별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다. 필터링 옵션은 4가지가 있는데 유물의 유형 및 재료, 지역, 날짜 및 시대, 그리고 전시실별로 검색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로 동시에 여러 조건을 이중 선택하여 필터링할 수 없다. 그 아래로 다른 검색결과 옵션이 있는데 하이라이트, 이미지 있는 유물, 전시 중인 유물, 오픈 액세스, 그리고 나치시 기원 등으로 토글할 수 있다. 검색결과와 사진과 함께 제목(명칭), 제작자 또는 문화(지역), 그리고 날짜 또는 시대가 표기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사례로 분석한 다른 박물관 온라인 컬렉션과 달리 검색결과를 정렬할 수 있으며 관련성, 제목, 날짜, 제작자, 소장품 번호 순으로 결과를 정렬할 수 있다.

유물 페이지의 좌측에는 유물의 제목(명칭)을 큰 글씨로 표시했고 그 바로 아래 제작자 및 문화(지역)와 시대(연도, 세기)가 표시했다. 그 아래에 해당 유물이 전시 중인 전시실을 알리거나 전시 여부를 표시했다. 그 아래에는 유물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일부 유물 페이지에는 '전문가의 해설' 오디오 파일도 설명 아래에 첨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페이지의 우측에는 대표 사진을 두고 사진 아래에 다른 사진을 클릭해서 볼 수 있게 했다.

기본 정보와 사진 아래에 가로줄로 내용을 분리했고 가로줄 아래에 유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표시했다. 탭을 이용해 상세 정보를 요약, 직인 및 명문, 기원(provenance), 전시 연혁, 그리고 참고문헌으로 나눴다. 요약 탭에는 한글 명칭, 한자 명칭, 영문 명칭, 시대, 날짜(세기), 문화, 재료, 치수, 분류, 크레딧 라인, 소장품 번호 등이 있다. 직인 및 명문은 말 그대로 새겨진 명문이나 인장이나 서명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 설명을 했다. 기원 부분에는 유물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획득했는지 소개되어 있다. 전시 연혁에는 유물을 언제 어디서 전시했는지 기록했다. 그리고 참고문헌에는 유물에 대한 소개 내용 및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참고한 논문, 단행본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이 유물에 대해 더 배우기'라는 섹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련 전시실 페이지로 연결하여 경우에 따라 관련 기사, 영상 등으로 링크해준다. 그 다음은 메트 미술관의 '미술사 타임라인(Timeline of Art History)' 콘텐츠 및 미술관 간행물로 연결해주는 링크가 있다. 그 아래는 관련 유물을 사진과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키워드별로 관련 미술품을 볼 수 있지만 이중 선택은 불가능하다. 맨 마지막은 연구 자원, 피드백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다른 온라인 컬렉션 사례와 달리 메트 미술관은 일부의 '하이라이트' 유물 페이지에 설명문, 유물에 대한 요약 정보를 영문 외에도 다른 언어로도 볼 수 있게 했다. 아랍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등 총 11개의 언어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미술사 타임라인(Heilbrunn Timeline of Art History)'⁵³⁾은 메트가 특별히 개발한 교육 콘텐츠로 타임라인과 에세이, 대표 유물, 연혁(chronologies, 즉 지역 및 시대별의 역사) 등을 같이 볼 수 있다. 검색기도 있는데 관련 시대 및 미술 양식, 제작자, 지역, 세기 등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에세이, 미술품, 연대표를 검색결과로 보여준다.

53) "Heilbrunn Timeline of Art History," The Met. <https://www.metmuseum.org/toah>

특히 1,000건 넘는다고 하는 에세이는 시대, 지역, 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한국 미술사 관련 에세이는 15건이 있다. 에세이의 상단에는 관련 유물의 사진 및 링크가 있고 글 속에서도 링크가 있는데 외부 링크, 관련 에세이, 관련 유물의 사진 및 요약이 있는 팝업 등 다양한 정보로 연결해준다. 에세이 아래에는 출처 표기법, '더 읽기' 추천 글, 에세이 작가의 다른 에세이, 다른 관련 에세이, 역대 국왕 목록, 관련 역사 연혁(chronology), 키워드, 제작 등으로 다양한 관련 콘텐츠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에 메트의 콘텐츠인 경우에 해당 콘텐츠로 연결해주는 링크도 있다.

연대표(chronology) 콘텐츠에는 대표 유물, 타임라인, 요약 글, 주요 사건, 출처 표기법이 있으며 우측 메뉴에 지조, 관련 시대, 국왕 목록, 관련 에세이, 키워드 등으로 연결해주는 링크가 있다.

각 학예 부서별 페이지를 통해서도 교육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데 소개 글, 연혁, 소장품의 범위 등 부서에 대한 기본 설명 다음에 하이라이트 유물, 최근에 인수한 유물, 최근의 간행물, 전시실 사업, 심포지엄 영상, 관련 간행물, 관련 미술사 타임라인 콘텐츠, 관련 블로그 기사, 관련 영상, 관련 소식, 가족 및 교사를 위한 자료, 학예사 및 연구자에 대한 소개 내용 등이 있다.

학예 부서 페이지에 소개한 콘텐츠 중에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입문서(Primer)'로 여러 주제로 된 교육 콘텐츠이다.⁵⁴⁾ 이 콘텐츠는 국립아시아미술관의 '미술 이야기'와 구글 아트 앤 컬처의 온라인 전시와 성격이 유사하다. 글과 함께 유물 사진 등이 있으며 사진의 상세 요소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다양한 버튼을 클릭하면서 내용과 상호작용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나의 아쉬운 점은 콘텐츠에 소개된 유물이 해당 유물 페이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장점은 소장품이 많은 만큼 다양하고 많은 큐레이션 및 교육 콘텐츠가 있다는 것이고 출처나 참고문헌, 관련 콘텐츠 등 어떤 유물이나 주제에 대해 배우고 싶으면 추가로 참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물 페이지나 '미술사 타임라인'의 기사 등에는 이러한 참고 정보로 연결하는 링크를 많이 찾을 수 있다. 반면에 아쉬운 점은 그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유기적으로 찾는 것이 웹사이트의 구조상 상당히 번거롭게 되어있어 일반 이용자가 관련 콘텐츠를 찾는 것이 어렵게 되어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문서(Primer)' 콘텐츠를 찾으려면 학예 부서의 페이지로 들어간 다음 페이지를 하단까지 스크롤링 한 후 '가족 및 교사를 위한 자료(For Families and Teachers)'를 찾아야 확인할 수 있다. 학예 부서의 페이지는 메뉴를 통해 '미술>학예부서(Art>Curatorial Areas)'으로 이동한 후 아래에 있는 해당 부서를 클릭하거나 각 유물 페이지 아래에 있는 '더 배우기' 내용 중에 해당 학예 부서를 클릭하는 방법으로만 찾을 수 있는데 일반 이용자에게는 복잡한 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입문서(Primer)' 콘텐츠는 웹사이트의 메뉴의 '배움의 자원'(Learning Resource)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해당 메뉴에는 '입문서(Primer)' 콘텐츠로 연결해주는 링크가 없다. 또한 메뉴에 있는 '함께 배우기(Learn with

54) "Meet the Primers," The Met. <https://www.metmuseum.org/primer>

Us)’ 아래에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있는데 주제보다 교육 대상이나 콘텐츠의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어 정확히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있다. 따라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좋은 콘텐츠가 있더라도 이용자가 그 콘텐츠를 찾을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National Museum of Korea)⁵⁵⁾은 한국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e뮤지엄에 따르면 207,000여 점(2024년 1월 기준)⁵⁶⁾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상설전시관(상설전시실 7개, 디지털 실감 영상관 3개, 특별전시실 1개), 어린이박물관, 기획전시실, 도서관, 교육관, 극장 등 다양하고 대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홈페이지는 한국어 홈페이지 외에 영문⁵⁷⁾과 중문⁵⁸⁾, 일본어⁵⁹⁾ 홈페이지도 제공하고 있다. 영문 홈페이지는 중문, 일본어 홈페이지보다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영문 홈페이지는 국문 홈페이지와 같지만 전체적으로 더 간략하게 되어있다. 홈페이지의 앞에 현재 진행중인 특별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홍보하는 캐로셀 형태의 배너가 있다. 그 바로 아래에 관람 시간, 관람료 등 관람 관련 정보가 있다. 그 다음에는 다시 현재 진행 중인 전시를 소개한 후 공지 및 전시 안내 어플, 외국인을 위한 해설 시간 등의 내용이 있다. 맨 마지막에 소장품 및 온라인 전시의 링크가 있다. 위에 있는 메뉴에는 관람 정보, 전시, 교육, 소장품, 글로벌 박물관, 박물관 소개 등의 탭이 있으며 맨 위에는 어린이박물관, 박물관의 잡지, 관련 웹사이트, 언어, SNS 링크 등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온라인 컬렉션은 메뉴의 ‘소장품(Collection)’ 탭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Curator's Picks)’, ‘소장품 검색(Collection Database)’, ‘하이라이트 검색(Highlights)’ 등을 이용한 3가지의 관람 방법이 있다.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페이지에는 검색창 및 60개의 검색결과가 있다. 검색창은 무엇을 검색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⁶⁰⁾ 60개의 결과물은 사진과 함께 제목, 국적 및 시대, 치수, 지정, 소장품 번호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한 페이지에 10개의 결과물이 있으며 결과물이 나타나는 순서는 어떤 기준으로 되어있는지 알 수 없고 출력 순서도 조절할 수 없다.⁶¹⁾ 결과물을 선택하면 유물을 소개하는 학예사가 쓴 기사로 연결되며 글과 함께 몇 점의 사진도 있다.

‘소장품 검색(Collection Database)’ 페이지의 상단에는 검색창이 있으며 검색 조건은 소장

55) 국립중앙박물관 국문 홈페이지. <https://www.museum.go.kr/>

56) '소장품 검색 -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57) 국립중앙박물관 영문 홈페이지. <https://www.museum.go.kr/site/eng/home>

58) 국립중앙박물관 중문 홈페이지. <https://www.museum.go.kr/site/chn/home>

59) 국립중앙박물관 일본어 홈페이지. <https://www.museum.go.kr/site/jpn/home>

60) 같은 국문 페이지에는 검색바가 제대로 작동되며 전시실별로도 필터링이 가능하다. 303개의 결과물로 영문의 약 5배로 분량이 많다.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list>

61) 순서를 분석해 보니 시대별로 목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선사시대부터 20세기 초까지).

품명, 지정, 국적/시대, 출토지, 재질, 작가, 소장품 번호로 좁힐 수 있다. 중복 필터는 불가능하며 하나의 키워드로만 검색이 가능하다.⁶²⁾ 전체 결과는 6,711점의 유물로 박물관의 전체 유물의 약 30분의 1에 해당한다. 한 페이지에 12개의 결과물이 있으면 사진과 소장품명이 표시되어 있다. 결과물이 나타나는 순서는 알 수 없고 출력 순서를 조절할 수도 없다. ‘하이라이트 검색(Highlights)’ 페이지는 ‘소장품 검색’과 동일하지만 1,427점으로 전체 소장품 검색의 약 5분의 1로 결과물을 줄인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하이라이트’ 소장품 선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⁶³⁾

소장품 검색을 통해 소장품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소장품 페이지 상단에는 진입 경로에 따라 ‘하이라이트’ 또는 ‘소장품 검색’이란 제목이 있다. 그다음에 큰 대표사 진이 있으며 아래로 내려가면 다른 유물 사진을 선택할 수 있고 사진을 확대해서 보거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링크가 있다. 사진 아래에는 소장품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좌측에는 소장품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있고 우측에는 설명문이 있다. 기본 정보는 먼저 ‘하이라이트’ 유물이면 ‘하이라이트’ 태그가 있으며 그 아래로 큰 글씨로 소장품명이 있다. 그다음에 전시명칭, 국적/시대, 재질, 분류, 크기, 지정 정보, 소장품 번호, 그리고 전시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설명 글 아래에는 조건이 해당하는 경우에 3D 이미지로 연결하는 링크도 있다. 그 링크를 누르면 새로운 창이 팝업되며 여러 각도에서 소장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뷰어가 열린다. 그 아래에는 전체 목록으로 가는 링크와 한국어로 된 연관 특별전시 링크가 있다. 영문 소장품 페이지와 국문 소장품 페이지는 배치 등 디자인이 동일하지만 차이는 국문페이지에는 해당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인 경우 소장품명 위에 ‘추천’ 태그가 있고 설명문 아래에 추천 기사로 연결해주는 링크가 있는 점이다. 그 외에 설명문 아래에 출처표시, 유의사항, 소장품 열람·복제 링크, 관심 유물로 등록 링크 및 기본 정보의 ‘다른 명칭’ 항목 등 일부의 추가 내용이 있다. 그러나 국문 홈페이지 든, 영문 홈페이지 든 소장품 페이지에는 해외 박물관 사례와 달리 관련 유물을 찾을 수 있는 링크가 없고 국문 홈페이지의 큐레이터 추천 기사 외에 관련 콘텐츠로 연결하는 링크도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컬렉션 및 소장품 페이지 외에도 몇가지의 다른 교육 콘텐츠가 있다. 우선 메뉴에 ‘교육(Learning)’ 탭이 있는데 이 탭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교육 플랫폼 ‘모두’로 연결이 되며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다음 소챗터에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한다. ‘전시(Exhibitions)’ 탭에 주목한 부분은 ‘온라인 전시관(Exhibits Online)’인데 49건의 영상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고 그중에 VR 360도 실감 콘텐츠도 있다. 영상은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고 6가지의 테마로 필터링이 가능하나 결과물이 나타나는 순서를 알 수 없으며 출력 순서를 조절할 수도 없다. 해당 국문 페이지에는 콘텐츠가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으로 나뉘는데 각각 100건, 54건의 콘텐츠가 있고 영문 홈페이지 보다 약 3배 더 많다. 국문 콘텐츠는 영상뿐만 아니라 특별전시 및 일부 상설전시 41건의 VR전시 콘텐츠도 있다. VR전시의 인터페이스는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전시

62) 해당 국문 페이지에는 키워드 검색과 같이 국적/시대, 출토지, 재질로도 필터링이 상세검색을 통해 가능하다.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collectionList>

63) 대부분의 ‘하이라이트’ 소장품 페이지에는 설명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설명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별한 모양이다. 그러나 설명문이 없는 예외도 있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해설 내용 자체가 영어 및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해설문이 잘 되어있어서 외국인들에게 유용할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영어 콘텐츠는 <NMK Magazine>이란 1년에 4번이 간행되는 영문 잡지와 <Journal of Korean Art and Archaeology>란 1년에 한 번에 간행되는 학술지가 있다. 이 간행물은 아래의 '간행물 콘텐츠' 소챗터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언급할 만한 점은 이 콘텐츠가 온라인 컬렉션과 링크 등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예 없다는 점이다.

중문과 일본어 홈페이지는 영문 홈페이지와 비슷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분량이 더 적다. 메뉴에는 'NMK Global' 탭이 없고 '교육' 탭은 교육 플랫폼 '모두'로 연결하지 않고 외국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연결한다. 또한 메뉴의 '전시' 탭에는 '온라인 전시' 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도 없다. 컬렉션은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과 '소장품 검색'이 세 홈페이지에 모두 있는데 일본어 홈페이지에는 국문 홈페이지와 같이 '국보·보물 검색'이 있고 중문 홈페이지는 영문 홈페이지와 같이 '하이라이트 검색' 페이지가 있다.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은 세 언어 모두 60개의 기사가 있는데 '소장품 검색'에는 영문 6,711점, 중문 1,418점, 일본어 1,565점의 결과물이 있다(2024년 1월 기준). '하이라이트 검색'에는 영문, 중문 홈페이지가 각각 1,427점, 61점이 있으며 일본어 홈페이지의 '국보·보물 검색'에는 61점이 있다. 따라서 이름이 다르지만 사실상 중문의 '하이라이트 검색'과 일본어의 '국보·보물 검색' 페이지는 검색 결과물이 같다.

결론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온라인 컬렉션은 소장품과 소장품 사이, 소장품과 관련 콘텐츠 사이 등의 관계가 거의 이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관련성이 있는 소장품과 콘텐츠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소장품이나 온라인 전시 콘텐츠 등의 검색 기능에 있어서 키워드만 가능하고 나열 순서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미리 어떤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검색해야 하거나 수백 개의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면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한국인들도 한국 역사나 문화를 잘 모르면 무엇을 검색해야 하는지 모를 텐데 외국인들이 배경지식이 더욱 부족하니 영문 홈페이지에서 키워드로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은 검색 기능의 유용성을 크게 줄어둘게 하는 일이다. 또 검색결과에 있어서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에는 크기, 소장품 번호 등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을 수 있는 정보가 같이 검색결과에 나타나는데 반면에 '소장품 검색'에는 소장품명만 나타나 시대 등에 대한 배경정보가 없어 본인의 관람 목적에 맞는 유물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즉, 내용상으로 해외 박물관의 온라인 컬렉션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부족한 검색 기능 및 존재하지 않은 링크 때문에 온라인 컬렉션의 콘텐츠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문화재청

문화재청(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⁶⁴⁾은 한국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64)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s://www.cha.go.kr/>

지정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으로 한국의 제일 대표적인 문화유산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박물관이 아니라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없지만 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국가문화유산포털⁶⁵⁾이란 문화유산 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문화유산포털에는 15,300여 건의 문화유산에 대한 검색 외에도 관련 콘텐츠, 간행물, 미디어 자료 등을 제공한다. 따라서 박물관이 아니지만 온라인 컬렉션과 성격이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분석 사례로 삼도록 하였다. 특히 박물관과 달리 소형의 유물뿐만 아니라 유적, 건축물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어 특수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검토하기 중요한 컬렉션이다.

문화재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문⁶⁶⁾, 중문⁶⁷⁾, 일본어⁶⁸⁾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컬렉션(문화재 검색) 기능은 영문 홈페이지에서만 제공하고 있다.⁶⁹⁾

영문 홈페이지의 문화재 검색은 키워드, 지정종목(국가지정만 선택 가능), 지정 연도, 지역(시도 기준만 선택 가능), 시대로 검색이 가능하며 동시에 여러 항목의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으나 한 항목에 이중 선택이 불가능하다(즉, '국보+조선시대'로 검색할 수 있는데 '국보+보물'로 검색할 수 없다). 키워드 검색은 '문화재명'과 '문화재명+설명' 기준으로 검색 옵션이 있는데 실제로는 설명 검색이 작동되지 않아 '문화재명'에 있는 키워드로만 검색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반면에 국가문화유산포털에 있는 검색 기능은 설명 검색 및 전승자명 검색이 가능하며 항목 조건의 이중 선택도 된다. '유형분류'란 검색 항목도 있는데 유적건조물, 기록유산, 유물, 무형문화재, 자연유산, 등록문화재로 검색이 가능하다.

영문 홈페이지의 검색결과는 5,370여 건의 결과물이 있는데 총 문화재의 약 3분의 1에만 해당한다. 영문 홈페이지의 검색결과가 모든 문화재 중에 영문 해설문이 있는 것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문 해설문이 어떤 기준으로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 2014년~2015년쯤까지 해설문이 다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는 일부만 해설문이 있다. 또한 검색 항목에 지정종목의 조건에 국가지정 분류만 선택이 가능하지만 '전체'를 선택하여 검색하면 국가지정이 아닌 결과도 결과목록에 나온다. 문화재자료, 시도민속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유형문화재 총 610여 건이 있으며 그중에 약 85%는 경기도의 문화재이다.⁷⁰⁾ 결과목록은 사진이 없는 결과번호, 지정종목, 문화재명, 행정구역, 관리자의 정보가 있는 표로 나타나는데 한 페이지에 10건의 결과물이 있다. 결과목록을 엑셀 파일로도 다운받아 관람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⁷¹⁾ 결과물은 나열 순서를 제어할

65)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66) 문화재청의 영문 홈페이지. <https://english.cha.go.kr/>

67) 문화재청의 중문 홈페이지. <https://chn.cha.go.kr/>

68) 문화재청의 일본어 홈페이지. <https://jpn.cha.go.kr/>

69) 중문, 일본어 홈페이지에서 문화재 검색 기능이 없지만 국가문화유산포털의 문화재 검색 결과 중에 일부는 국문, 영문에 비해 비교적 간략한 중문, 일본어 해설문을 제공하고 있다. 정확히 어떤 문화재는 중문, 일본어 해설문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분석할 결과는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 2009년 말까지 지정된 문화재는 중문, 일본어 해설문이 있고 그 이후로 지정된 문화재는 대부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0) 검색 결과 엑셀 파일의 분석 결과(2024년 1월 기준). 왜 경기도 문화재가 특별히 많은지 파악하지 못하였다.

71) 엑셀파일에 지정종목, 영문명칭, 국문명칭(한자명칭), 소재의 정보가 있다. 반면 같은 국문 파일에는

수가 없으며 어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⁷²⁾ 반면에 국가문화유산포털의 검색 결과는 한 페이지에 12건의 결과물로 각 결과물이 사진과 함께 지정종목, 문화재명(한글+한자)이 표시되어 있으며 나열 순서는 가나다순, 지정일 순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관련 이미지, 동영상, 도면 등도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영문 홈페이지의 각 문화재 페이지에는 맨 위에 '문화재 검색'란 제목 아래에는 문화재에 대한 정보가 있다. 문화재 정보는 지정종목, 영문명칭, 국문명칭(한자명칭)이 있는데 영문명칭은 굵은 표시로 되어있다. 그 아래로 좌측에 대표사진, 우측에 기본 정보가 있다. 기본 정보는 지정종목과 영문명칭이 다시 기재한 후 수량/면적, 지정(등록)일, 시대, 소재지(주소)가 있다. 사진과 기본 정보 아래에 해설문이 있으며 해설문 아래에 더 많은 사진이 있다. 검색 결과목록으로 가는 링크가 사진들 아래에 있다. 사진은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는데 확대(줌) 기능이 없으며 사진 아래에 저작권 정보와 인쇄, 다운받기 버튼이 있다.

반면 국가문화유산포털의 문화재 페이지에는 영문 페이지와 디자인이 같은데 기본 정보에 명칭, 지정종목이 반복적으로 있지 않고 대신에 분류 정보, 소유자, 관리자 정보가 있다. 해설문 아래에 오디오 나레이션 버튼이 있어 컴퓨터가 해설문을 읽어준다. 또한 영문, 중문, 일본어 해설문이 있는 경우에 해당 '국기' 버튼을 누르면 해설문도 바꾸고 나레이션 파일도 그 언어로 들을 수 있다. 영문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사진도 제공되는데 그 외에는 동영상, 도면, 조사연구자료도 제공된다. 특히 문화재 페이지에는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는 동영상, 조사연구자료에만 있다는 점을 주목할만하다. 사진을 클릭해서 더 크게 보면 파일의 해상도 및 용량도 국문 페이지에서만 기재되어 있다.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문화재 검색 외에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일부 제공하는데 서울의 5개의 궁궐, 조선왕릉, 종묘, UNESCO 세계유산,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한정되어 있다. 각 콘텐츠 페이지에 관람 정보와 같이 그 문화재에 대한 기본 설명과 사진이 있다. 특히 궁궐의 경우엔 건물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는 영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81건의 문화재청 간행물을 소개하는 페이지도 있다. 한 페이지에 10건의 결과물이 있고 맨 아래에 제목 키워드 검색바가 있다. 각 간행물이 표지와 제목이 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 뷰어, 다운받는 버튼이 있다. 간행물은 어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이 외에는 퀄리티가 높은 <Korean Heritage>란 온라인 잡지⁷³⁾도 있고 K-Heritage.tv⁷⁴⁾란 영상 콘텐츠도 있고 K-Heritage.tv 유튜브 채널⁷⁵⁾도 있는데 다 개별의 웹사이트로 제공되어 있어 문화재청의 홈페이지에 있는 콘텐츠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

결론적으로는 문화재청의 영문 홈페이지의 문화재 검색 등 문화유산 관련 교육 콘텐츠는 검색 기능과 검색결과물의 나열 방식은 국문의 국가문화유산포털의 기능에 비해 훨씬 부족해서 활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예를 들어 검색 기능에는 설명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정종목, 국문명칭, 한자명칭, 소재지, 시대명, 지정일, 분류, 수량/면적 정보가 있다.

72) 어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상은 문화재 지정번호 순위이다.

73) Korean Heritage 잡지 홈페이지. <http://www.koreanheritage.kr/>

74) K-Heritage.tv 홈페이지. <https://www.k-heritage.tv/en>

75) K-Heritage.tv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koreanheritage>

코딩의 오류인지 실제로는 불가능해서 문화재명어로만 검색이 가능한데 ‘궁궐’, ‘사찰’, ‘한옥’ 등의 키워드가 검색하면 결과가 아예 안 뜨는 현상이 벌어져 외국인 이용자들이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공식 영문명칭을 알아야지만 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키워드 검색이 기능하지 못한다.⁷⁶⁾ 또한 한국어로 검색이 불가능하여 국문명칭이나 한국어 키워드로 문화재를 검색할 수도 없다. 검색 결과를 나열하는 방식도 조절할 수 없어 검색 필터 조건을 이용하더라도 너무 많은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 목록의 수십 개의 페이지들이 하나씩 넘기면서 관람할 수밖에 없다. 검색결과에 외국인들의 이해에 돕는 사진도, 시대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뿐더러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는 관리자 정보가 검색 결과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문화재청이 영문 홈페이지를 설계하면서 외국인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검색 문제는 ‘간행물’ 페이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아쉬운 점도 있다.

각 문화재 페이지로 넘어가면 지정종목, 영문명칭을 이중으로 표기하는 등 반복적인 내용도 있고 링크가 아예 없어 관련 문화재, 관련 개념, 관련 영상이나 간행물 콘텐츠 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홈페이지의 설계 외에도 콘텐츠의 내용을 보면 번역의 오류, <문화재 영어 안내문 작성 가이드라인>(2019년)에 준수하지 않은 해설문,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법>(2014년, 2019년 갱신)에 어긋난 영문명칭 표기, 로마자 표기 오류 등 여러 내용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부터의 진행된 <문화재 안내판 개선 사업>을 통해 많은 새로운 영문 해설문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해설문들이 영어 홈페이지를 통해 찾을 수가 없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사업, 연구, 규칙 등이 영문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Korean Heritage>와 K-heritage.tv 등에 많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문화재 검색의 국가 유산 페이지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콘텐츠 간의 연결성이 없는 것으로 교육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있는 것이라고 가정하기가 쉽다. 즉, 웹사이트 설계로 인해 문화재청의 영문 콘텐츠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바)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⁷⁷⁾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시 플랫폼이다.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통해 세계의 미술관 문화를 보존하고 온라인상으로 제공해야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⁷⁸⁾ 웹사이트의 기본 기능 중에 주제나 분류별 찾아보고,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박물관이나 전시를 찾고, 본인이 좋아하는 콘텐츠 모으고, 그리고 게임화(gamification)를 통해 업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콘텐츠를 기관이나 특별 주제별로 관람할 수 있고 ‘미술 및 문화 실험’이란 상호 작용적인 멀티미디어, 가상현실, 게임 등의 형식의 콘텐츠도 제공한다. 그 외에도 작가, 매체, 미술 운동, 역사 사건, 역대 인물, 장소로 콘텐츠 관람이 가능하다. 구글 아트 앤 컬처 플랫폼은 웹사이트를 뿐만 아니고 모바일

76) 이뿐 더러 공식영문명칭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공식영문명칭이 없는 경우에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법에 맞지 않게 영어 이름을 지은 경우도 많아 외국인이 공식영문명칭이 알더라고 검색결과에 나오지 않은 일도 벌어진다.

77) Google Arts & Culture. <https://artsandculture.google.com/>

78) "About," Google Arts & Culture. <https://about.artsandculture.google.co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관람이 가능하다.

구글 아트 앤 컬처의 특별 주제(테마) 중에 ‘한국 문화유산(Korean Heritage)’⁷⁹⁾이란 컬렉션(project)이 있다. 경기고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수원시,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으로 약 32,200여 건의 온라인 소장품 컬렉션이 이루어지며⁸⁰⁾ 이 기준으로 영어로 관람이 가능한 제일 규모가 큰 온라인 한국 문화유산 컬렉션이다. 한국 문화유산 관련 다양한 온라인 전시 콘텐츠도 제공하는데 신라, 조선, 대한제국, 회화, 전통의례, 일상생활, 지도, 전통 공예, 보존 등 여러 주제로 54건의 ‘스토리(story)’라고 하는 온라인 전시가 있으며⁸¹⁾ 구글 지도의 거리뷰 등으로 유적지, 박물관 내부 등 가상현실로 방문할 수 있는 ‘박물관 뷰(museum view)’ 33건이 있다.⁸²⁾ 특히 흥미로운 기능 중에 유물을 색깔 별 관람할 수도 있다.⁸³⁾

소장품 관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먼저 전체 테마 컬렉션의 소장품 검색이 있는데 검색바에 키워드 검색만 가능하며 필터 기능이 없다.⁸⁴⁾ 또 다른 방법은 각 기관별 컬렉션 페이지로 검색하는 것인데 기관 컬렉션 페이지에는 두 가지 형태의 검색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인기, 시대, 색깔 별로 나열해서 관람하는 방법인데 제목 없이 사진만 보여주는데 사진 위에 마우스를 허버(hover)하면 제목이 뜬다. 또 하나는 지역, 재료, 유적, 형태 등 주제로 관람하는 방법인데 이 주제를 필터링할 수가 없고 해당 소장품이 많은 순으로 나열된다. 사진만 있는데 사진 위에 마우스를 허버하면 제목과 작가가 뜬다. 이 외에는 각 기관 컬렉션 페이지에는 관련 온라인 전시와 뮤지엄뷰(거리뷰, 가상현실 투어),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전시에 대한 정보, 기관 관람 정보 등 있다.

각 소장품(asset) 페이지에는 사진이 위에 있으며 사진 위에 ‘상호작용 항목’ 두 개로 연결해주는 링크가 있고 사진 아래에 관련 콘텐츠로 연결해주는 링크가 있다. 관련 콘텐츠는 우측에 있는 팝업 메뉴로 뜨며 관련 온라인 전시, 유형이 같거나 시각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유물 등을 보여준다. 사진 아래에는 좌측에 소장품명과 작가, 제작 연도(시대, 세기) 및 ‘좋아요’, ‘url’, ‘공유’ 버튼이 있으며 우측에 소장품의 제공 기관이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로는 소장품에 대한 설명문이 있다. 서명문 다음에 상세 정보가 있는데 소장품명, 작가, 제작 연도(시대, 세기), 출토지, 유형, 저작권, 재질, 크기, 문화, 소장 기관, 외부 링크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 아래로는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큐레이션한 관련 주제(관련 유적지, 지역, 유형, 재료 등)로 연결해주는 링크가 있다. 설명문 및 상세 정보에 이 관련 주제가 언급되면 그 관련 주제의 페

79) "Korean Heritage," Google Arts & Culture.

<https://artsandculture.google.com/project/korean-heritage>

80) "Korean Heritage - Items," Google Arts & Culture.

<https://artsandculture.google.com/search/asset?project=korean-heritage>

81) "Korean Heritage - Stories," Google Arts & Culture.

<https://artsandculture.google.com/search/exhibit?project=korean-heritage>

82) "Korean Heritage - Museum Views," Google Arts & Culture.

<https://artsandculture.google.com/search/streetview?project=korean-heritage>

83) "Color Explorer: Korean Heritage," Google Arts & Culture.

https://artsandculture.google.com/color?project=korean-heritage&col=RGB_CE4A3F

84) "Korean Heritage - Items," Google Arts & Culture.

<https://artsandculture.google.com/search/asset?project=korean-heritage>

이리로 링크로 연결해주는 경우가 있다.

관련 주제(entity) 페이지도 있는데 이 주제는 구글 아트 앤 컬처가 선정한 것으로 유적지, 지역(행정구역), 유형, 재료 등을 포함한다. 각 주제 페이지에는 위에서부터 대표 사진과 제목, SNS 연결 링크,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설명문(정의)이 있다. 그 아래로 관련 온라인 전시(스토리), 관련 소장품 관람 등이 있는데 기관 페이지와 같이 소장품 관람은 인기, 시대, 색깔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란 온라인 전시는 해설문, 소장품 사진, 유튜브 영상, 유적지 거리뷰 사진, 지도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구성된 이야기 콘텐츠이다. 이 스토리 콘텐츠는 협력 기관에서 준비된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일부 스토리는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특별히 제작된 경우도 있다. 후자인 경우에는 ‘온라인 전시(online exhibit)’가 아닌 ‘editorial feature(특집 기사)’라고 한다. 스토리에서 소개된 모든 소장품은 사진의 윗부분에 ‘정보’ 아이콘이 있으며 마우스로 허버하면 소장품명과 제공 기관이 뜨며 누르면 해당 소장품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스토리의 기능 중에 사진에 확장하여 소장품의 상세 요소까지 주목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스토리 맨 마지막에 관련 기관, 관련 스토리, 관련 테마로 연결해주는 링크도 있다. 일반 사용자가 스토리 콘텐츠를 만들 수가 없는데 선택된 소장품만 모여 있는 제목과 설명문이 있는 개인 갤러리를 만들 수가 있으며 공유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는 구글 아트 앤 컬처의 장점은 구글이 세계적인 회사로서 많은 기관의 협력을 확정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으며 검색 서비스나 개발 기술이 세계의 최고 수준으로 콘텐츠의 디자인이나 설계가 뛰어났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콘텐츠 자체가 각 기관에서 개발한 것으로 콘텐츠의 품질(내용, 영어 표현 등)의 차이가 있는데 웹사이트 구성의 품질이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소장품과 기관, 주제, 전시, 뮤지엄 뷰, 크게 이 5개의 정보 유형으로 정리된 다양한 콘텐츠가 서로 잘 연결되어있는 점도 주목된다. 상호작용 콘텐츠도 구글 아트 앤 컬처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문화유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호작용 콘텐츠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구글 아트 앤 컬처의 온라인 컬렉션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소장품 검색하거나 관람할 때 필터링 기능이나 나열 기능이 없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주제별로 지역, 유형, 재료 등으로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검색할 수가 없다.

이 6건의 국내외 온라인 컬렉션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외, 국내 사례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연결성, 즉 ‘링크’의 차이이다. 해외 사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장품의 기본 정보 중에 있는 시대, 지역, 유형 등에 링크를 만들어 관련 소장품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다른 관련 콘텐츠로도 링크를 통해 연결해주기도 하였다. 반면에 국내의 사례에는 관련 유물로 연결하는 링크가 없었으며 해당 국문 홈페이지 내에서조차도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관련 기사 하나(큐레이터 추천 기사), 국가문화유산포털은 동영상, 조사연구 자료밖에 링크가 없었다. 국내 사례의 경우 문화재청의 <Korean Heritage> 잡지, K-heritage.tv 영상 콘텐츠, 국립중앙박물관의 교육 플랫폼 ‘모두’, <NMK Magazine> 잡지,

<Journal of Korean Art and Archaeology> 학술지 등을 개별의 웹사이트로 제공하는 반면 국외 박물관은 교육 콘텐츠가 같은 도메인에 호스팅이 되어있는 점도 국외 사례의 연결성이 국내 사례보다 더 잘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검색 기능도 해외 사례는 검색 조건을 다중 선택할 수 있거나 유형, 재료 등과 같은 항목을 통해 더 상세하게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검색결과에서는 사진과 같이 시대, 출토지 등 유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같이 보여주며 크기(치수), 관리자 등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검색결과에서 제외하였다. 국내의 경우 국문 사이트의 검색 시스템은 영문 사이트보다 잘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영문 사이트도 그러한 검색 기능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부족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가 의문이다. 양질 콘텐츠가 이미 존재하나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실제로 잘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온라인 교육 플랫폼

온라인 박물관 컬렉션 외에도 한국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다양하게 있다. 특히 한국 문화유산을 교육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4가지의 대표적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례를 검토하려고 한다. 국외 사례 중에서는 앞서 소개한 미국의 국립아시아미술관(National Museum of Asian Art)과 관련이 있는 '스미스소니언 러닝 랩(Smithsonian Learning Lab)' 및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자를 위한 아시아(Asia for Educators)' 플랫폼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사례는 한국의 대표적인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 플랫폼 '모두(MODU)'를 통해 한국 문화유산 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가) 스미스소니언 러닝 랩(Smithsonian Learning Lab)

스미스소니언 러닝 랩(Smithsonian Learning Lab)⁸⁵⁾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스미스소니언 재단의 이미지, 오디오, 영상, 글 등 수백만 건의 자원들을 재활용하여 본인만의 교육 및 전시 콘텐츠 만들 수 있는 온라인 큐레이션 공간이다.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도 볼 수 있으며 분야의 전문가가 많은 콘텐츠도 많아 학교 선생님, 학생, 박물관 해설사, 부모 등 믿을 만한 교육 자료를 쉽게 참고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보면 발견하기(Discover), 만들기(Create), 공유하기(Share), 배우기(Learn) 4가지의 키워드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다.

발견하기(Discover)에는 스미스소니언 재단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영상 등과 같은 '자원(Resources)'과 기존에 만들어진 '컬렉션(Collection)'이란 큐레이션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 우선 검색바에 키워드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데 필터링을 통해 상세검색도 가능하다. 자원(Resources)은 미디어 유형, 자원 제공 기관, 시대(연도), 문화, 지역 등으로 필터링이 가능하며 컬렉션은 교과 과목, 교육 대상의 나이, 교육 특징(교육 시간 등), 제작자(스미스소니언 관

85) Smithsonian Learning Lab 홈페이지. <https://learninglab.si.edu/>

개인 또는 일반 이용자), 포함된 자료의 종류, 주석 유형(글, 퀴즈 등) 등으로 필터링이 가능하다. 결과물의 순위도 연관성, 제목, 제작 날짜, 수정 날짜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 ‘한국(Korea)’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약 5,230건의 자원 및 48건의 컬렉션 콘텐츠의 결과물이 있으며 컬렉션 중에 28건은 일반 이용자, 20건은 스미스소니언 관계인이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

각 컬렉션은 소개 페이지가 있으며 컬렉션 소개문이 위에 있고 그 아래로 컬렉션의 각 아이템이 타일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각 아이템 페이지에 우측에 해설문이나 퀴즈를 두고, 왼쪽에 관련한 여러 사진 등의 자료를 두며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통해 아이템을 순서대로 넘길 수 있다. 사진에 핫스팟(hotspot, 즉 정보 박스)을 넣을 수 있어 사진의 각 부위에 라벨을 둘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스미스소니언 러닝 랩은 기존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퀴즈, 핫스팟 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보인다.

나) 교육자를 위한 아시아(Asia for Educators)

‘교육자를 위한 아시아(Asia for Educators)’⁸⁶⁾는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의 동아시아연구소(Weatherhead East Asian Institute)에서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아시아의 지리, 역사, 문학, 미술, 종교 등 다양한 주제에 관련한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대상으로 한 1차 자원(primary sources), 학습 계획안(lesson plan), 타임라인, 참고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미술에 대한 교육 콘텐츠는 ‘아시아 미술 관련 온라인 미술관 교육 자료(Online Museum Educational Resources in Asian Art)’⁸⁷⁾란 개별의 소속 웹사이트에 정리되어 있다. 이 사이트는 다양한 미술관의 아시아 미술 관련 교육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자료를 분류(유형 및 기법), 시대, 지역(나라)별로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종교 및 몇 가지의 특별 주제(테마)로도 교육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다. 콘텐츠의 기본 검색에는 분류+지역 또는 시대+지역으로 필터링할 수 있으며 특별전시, 교육 콘텐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콘텐츠로도 필터할 수 있다. 검색결과 순서는 제목의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있으며 나열 방식을 제어할 수 없다. 자료의 대표 사진과 제목, 제공 기관, 요약문, 링크가 리스트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한국 미술 관련한 결과는 55건이 있다. 즉, 콘텐츠 호스팅하지 않고 타 기관의 자료로 링크로 연결해주는 포털의 형태를 가진 웹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자를 위한 아시아’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자를 위한 자료를 정리한 플랫폼으로서 ‘교육’이란 뚜렷한 목적이 있고 또한 뚜렷한 이용자 대상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 미술 관련 온라인 미술관 교육 자료’ 소속 사이트는 일반 교육자가 가르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 어떤 미술관에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지 알기가 어렵고 모든 자료를 찾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텐데 그러한 자료에 대한 포털을 만듦으로써 각 미술관의 교육 콘텐츠를 홍보

86) Asia for Educators. <http://afe.easia.columbia.edu/>

87) Online Museum Educational Resources in Asian Art.

<https://afemuseums.easia.columbia.edu/cgi-bin/museums/search.cgi>

하는 동시에 교육자의 노동을 줄여서 서로의 상호이익 상황이 되고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교육 자원으로 본다.

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교육 플랫폼 모두(MODU)

‘모두(MODU)’⁸⁸⁾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2년 4월부터⁸⁹⁾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플랫폼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박물관의 교육 자료를 찾고,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퀴즈, 게임 등의 상호작용 콘텐츠를 즐기고, 박물관의 교육과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다. 영문 홈페이지는 국문 홈페이지와 디자인 및 설계가 같지만 현재 국문 홈페이지에 비해 콘텐츠가 많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는 교육 프로그램 신청, 상호작용 콘텐츠, 박물관 소식에 대한 콘텐츠가 없고 교육 자료만 검색할 수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교육 자료 검색기에 검색바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 필터는 유형, 테마, 박물관으로 검색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다. 필터는 유형은 조건의 이중 선택이 불가능한데 테마와 박물관은 이중 선택이 가능하다. 유형 항목에는 활동지, 영상, 연구 자료, 사진이 있는데 실제로는 현재 28건의 학습지와 29건의 영상 밖에 없다. 테마는 ‘선사에서 고대까지’, ‘중세에서 근세까지’, ‘다른나라 이야기’, ‘미술의 세계’, ‘가티’, ‘전시연계’가 있다. 검색 결과는 ‘최근’ 및 ‘인기’로 나열할 수 있다.

각 교육 자료 페이지에는 활동지 표지나 영상 썸네일이 있으며 그 아래로는 자료의 제목, 제공 박물관, 등록일, 조회 수와 관련 키워드 해시태그 및 파일 보기, 좋아요, 공유, 다운로드 링크가 있다. 그 아래로는 자료에 대한 설명 및 이용 조건 안내가 있으며 추천 활동지, 추천 동영상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플랫폼 ‘모두(MODU)’는 현재 영문 홈페이지에 있는 콘텐츠가 거의 없지만 설계로 보았을 때 앞으로는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검색 시에 필터도 있어 유용한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유용한 필터 더 있으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육 자료가 국립중앙박물관의 온라인 컬렉션이나 <NMK Magazine> 잡지나 <Journal of Korean Art and Archeology> 학술지와 연계성이 없다는 것이다. 연계성을 확보하면 교육이 활동지나 영상 하나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국내외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은 각자의 특징을 가지면서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러닝랩’은 온라인 컬렉션과 연결되어 있고 일반 이용자도 콘텐츠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 ‘교육자를 위한 아시아’는 온라인 컬렉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대신 기존의 교육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모두’는 아직 초기의 단계에 있지만 국립박물관들의 교육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문화유산 관련

88) 국립중앙박물관 교육플랫폼 - 모두. <https://modu.museum.go.kr/>

89)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통합 플랫폼 '모두'공개", 국립중앙박물관, 2022.04.15. https://www.museum.go.kr/site/main/archive/post/article_18292

교육 콘텐츠로 봤을 때 해외의 경우 외국 미술관에 있는 소장품과 관련 교육 자료 밖에 없었으며 유적, 무형유산 등에 관련한 자료가 없어서 아쉽다. 국내의 '모두' 플랫폼도 박물관의 유물 관련 콘텐츠 위주라 한정적이다. 이 점에서 앞서 소개된 구글 아트 앤 컬처와 비교하면 구글 플랫폼은 국내외 박물관 소장품, 유물과 유적 등이 함께 있는 반면에 활동지, 퀴즈, 수업 계획안(lesson plan) 등과 같은 교육 콘텐츠가 없다.

3) 한국 문화유산 관련 용어사전

외국인들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한국인에 비해 부족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개념에 대해 배우기 위해 보통 한 곳에 모든 개념을 모아 놓은 용어사전을 참고하게 된다. 때문에 한국 문화유산 관련하여 어떤 용어사전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용어사전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용어 사전도 있고 물리적으로 간행된 책 형태의 용어사전도 있다. 여기서는 온라인 용어사전 9개와 단행본 용어사전 23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단행본 용어사전 사례

한국 역사문화 관련한 영어 단행본 백과사전 또는 영-한 용어사전(용례집)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20권이 간행되었다. 이외에도 백과사전적 지식이 다른 단행본도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제목에 '사전(용례)'의 말이 들어간 책에 한정하여 정리해 보았다.

주제	제목	출판 연도	출판사	항 목 개 수	항 목 나 방 열 식	작가 또는 편집가(번역자)
문화 전체	An Encyclopaedia of Korean Culture	2004	Hansebon	-	주제 별(45개)	Suh Cheong Soo, Bernard Rowan, Yoon-jung Cho
문화 전체	Glossary of Korean Culture	2001	지문당	~7000	국문 가나다	Ki-joong Song
문화 전체	Korea: A Historical and Cultural Dictionary	1999	Curzon Press	~1500	국문 가나다 순, 영문 ABC 순 혼동	Keith Pratt, Richard Rutt
문화 전체	Selected Bibliography of Korean Studies	1995	한국국제 교류재단	-	-	Ki-joong Song
문화 전체	Basic Glossary of Korean Studies	1993	국국제교 류재단	-	-	Ki-joong Song
미술 및	Dictionary of Korean Art and	2004	Hollym	2,824	국문 가나다	Roderick Whitfield

고고학	Archaeology				순	
미술 및 고고학	Dictionary of Korean Archaeology	2014	국립문화재연구원	-	유적지 이름 영문 ABC 순	Han Changgyun, Seong Chuntaek (Park Hae Woon)
미술 및 고고학	Dictionary of Korean Archaeology (The Paleolithic)	2018	국립문화재연구원	-	유적지 이름 영문 ABC순	Han Changgyun, Seong Chuntaek (Park Hae Woon)
불교	A Korean-English Dictionary of Buddhism	2014	운주사	~12000	국문 가나다 순	A. Charles Muller, Ockbae Chun
불교	An Encyclopedia of Korean Buddhism	2013	운주사	~560	로마자 ABC순	Ven. Hyewon, David A. Mason
근대 역사	Historical Dictionary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9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400+	-	James E. Hoare
근대 역사	Historical Dictionary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0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700+	-	James E. Hoare
명칭 용례 집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품 명칭 용례집	2015	국립중앙박물관	-	분야별, 국문 가나다	국립중앙박물관
명칭 용례 집	English Names for Korean Cultural Heritage	2019	문화재청	-	주제별 + 문화재 지정번호 순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민속 문화	Encyclopedia of Korean Seasonal Customs	2010	국립민속박물관	~230	월별	Choi Soon-geun, An Jeong-yun, Oh Changhyun (PanTransNet, Chae Ria, Timothy Tangherlini, Yoo Juyi)
민속 문화	Encyclopedia of Korean Folk Beliefs	2013	국립민속박물관	-	6개의 주제별	Chung Myung-sub, Kim Tae-woo, Ahn Hye-kyeong, Cho Hyun-sook, Kim Seung-yu (Jung Ha-yun, Charles Montgomery)
민속 문화	Encyclopedia of Korean Folk Literature	2014	국립민속박물관	-	3개의 주제별, 영어	Chung Myung-sub, Kim Tae-woo, Ahn Hye-kyeong, Cho

					제목 ABC순	Hyun-sook, Kim Seung-yu (Jung Ha-yun, Charles Montgomery)
민속 문화	Encyclopedia of Korean Rites of Passage	2017	국립민속 박물관	-	9개의 주제별	Kang Kyung-pyo, Lee Sa-bin (Saltlux)
민속 문화	Encyclopedia of Nongak	2018	국립민속 박물관	-	8개의 주제별	Kang Kyung-pyo, Lee Sa-bin (Saltlux)
민속 문화	Encyclopedia of Korean Folk Games	2019	국립민속 박물관	132	로마자 ABC 순	Kang Kyung-pyo, Lee Sa-bin, Kim Hye-young (LioNkorea)
민속 문화	Encyclopedia of Korean Folk Drama	2020	국립민속 박물관	-	4개의 주제별	Kang Kyung-pyo, Lee Sa-bin (E4NET)
민속 문화	Encyclopedia of Traditional Korean Clothing	2021	국립민속 박물관	-	4개의 주제별	Kang Kyung-pyo (MINT& Co., Ltd.)
민속 문화	Encyclopedia of Traditional Korean Food	2022	국립민속 박물관	-	4개의 주제별	Baek Min-young (Cactus Communications Korea Co. Ltd.)

단행본 백과사전-용어사전은 문리적인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물론 색인이 있겠으나 단어 찾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주제가 비슷한 용어사전이 있는데 내용이 겹치기도 한다. 일부의 사전에는 일부의 항목에 사진도 같이 있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중에 직접 문화유산에 대하여 용례집 2건(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만 있고 사전은 <Dictionary of Korean Art and Archaeology> 외에 고고학, 불교, 민속문화 등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전밖에 없다.

나. 온라인 용어사전 사례

영어로 제공되는 한국 역사문화 관련 온라인 백과사전, 용어사전, 용례집은 다음과 같이 약 9개를 찾을 수 있었다.

분야	제목	제공 기관	출판 연도	인터페이스 언어	항목 개수	항목 나열 방식	설명
한국학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 사전 ⁹⁰⁾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년~2010년(사업 기준)	한국어	19,629개	검색바, 분야-유형-시대별 필터 검색	한국 역사문화 관련 유명 단행본에서 나온 번역어 정리한 용례집이다. 번역어의 출처와 활용예시를 보여준다.
역사(조선)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2012년부	한국어,	1,453개(고)	검색바, 영문 ABC순, 한글	조선왕조실록 영어 번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록에서 나타나는

사전)	역사 용어 글로서리 ⁹¹⁾	위원회	터(사업 전체)	영어	유명사 14,748개)	가나다순	역사용어 및 고유명사가 정리된 용어사전
역사	한국역사용어 시소리스 ⁹²⁾	국사편찬위원회	2001년~2005년(사업 기준)	한국어, 영어	-	검색바, 주제별	한국의 역사 관련 용어 사전인데 국문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영어 사전에는 로마자 표기만 있다.
민속 문화	한국민속대백과사전 ⁹³⁾	국립민속박물관	-	한국어, 영어, 중문, 스페인어	2,104개(영문 기준)	검색바, 분야별, 한글 가나다순, 영어 ABC순(영어, 로마자 혼돈), 집필진	계절, 신앙, 설화, 무용, 음악, 의식주 등 관련한 한국의 민속문화를 소개하는 용어사전 (단행본 시리즈도 있다.)
복식	한국복식사전 ⁹⁴⁾	한국복식학회	2005년, 2011년(사업 지원 기준)	한국어	1,738개	주제별, 한글 가나다순	한국의 복식 관련 용어사전으로 로마자, 번역어, 간단한 영어 정의가 있다. *현재 주제별 검색(디렉토리검색) 외에 웹사이트는 오류가 발생하여 검색, 관람이 불가능하다.(2024년 1월 기준)
불교	디지털 불교사전(Digital Dictionary of Buddhism) ⁹⁵⁾	Charles Muller(편집자)	1995년부터	영어	77,557개(2023년 12월 기준)	검색바, 한자, 영어, 문서, 인물, 사찰, 학교, 장소, 이름(부처 등) 등	불교(인도, 티베트, 중국, 일본, 한국 등) 관련한 온라인 용어 사전으로 용어의 성명과 참고 자료를 보여준다. (단행본도 있다.)
불교	실용한-영 불교용어사전 ⁹⁶⁾	한국 불교 대학, 박영의	2011년	한국어	4,781개	검색바, 한글 가나다순, 영어 ABC 순	불교 관련 용어 사전
유교	유교, 도교, 사상사전(CJKV-English Dictio	Charles Muller(편집자)	1995년부터	영어	68,253개(2023년 12월 기준)	검색바, 한자, 인물, 장소 등	유교, 도교, 역사적 사상 관련 중문-일본어-한국어-베트남어-영어 사전으로 용어의 성명과 참고 자료를 보여준다.

	nary of Confu cian, Daoist , and Intelle ctual Histor ical Terms)97)						
지명 (서울)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 전 ⁹⁸⁾	서울 특별 시	-	한국 어	33,49 5개(영어 표기 기준)	검색바, 한글 가나다순, 분류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서울의 지명, 기관,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 관련 용어 사전

이 외에도 한국 역사문화 등 관련 원래 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⁹⁹⁾이 있었는데 2024년 1월 16일부터 운영이 종료되었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이 지원한 사업 중에 <한국문화 국영문 사전 편찬 사업>도 있다.

온라인 사전 9개 중 4개는 인터페이스가 한국어로만 되어있어서 한국어 모르는 외국인 접근하기 어렵다. 그 외의 인터페이스는 영어 2개, 한국어와 영어 2개, 기타 언어 1개가 있었다. 다루는 주제 중에 불교, 유교, 역사, 민속문화, 복식 등이 있는데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사전은 없었다. 이 중에 Charles Muller 하에서 운영 중인 불교, 유교 온라인 사전 두 개는 한국 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종교 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용어 개수가 특별히 많다. 온라인 사전 중에 로마자 표기만 제공하는 <한국역사용어 시소리스>나, 웹사이트 오류로 검색이 어려운 <한국 복식사전> 등과 같이 활용도에 있어서 부족한 온라인 사전도 있었다. 검색 및 관람 기능에 있어서 단행본보다 찾기 쉽게 되어 있지만 필터 기능 등 상세검색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단행본 및 온라인 용어사전 중 한국 문화유산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자료는 총 3가지며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Dictionary of Korean Art and Archaeology>(Hollym,

90) <http://glossary.aks.ac.kr/>

91) <http://esillok.history.go.kr/glossary/glossaryList.do>

92) <http://thesaurus.history.go.kr/>

93) <https://folkency.nfm.go.kr/>

94) <http://www.dic-costumekorea.org/>

95) <http://www.buddhism-dict.net/ddb/>

96) <http://dic.tvbuddha.org/>

97) <http://www.buddhism-dict.net/dealt/>

98) <https://dictionary.seoul.go.kr/spelling/dictionary>

99) <https://kto.visitkorea.or.kr/kor/translation/list.kto>

2004)등이다. 이중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의 사례는 정의를 같이 설명하지 않으므로 용례집(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에 가까우며, <Dictionary of Korean Art and Archaeology>(Hollym, 2004)은 미술과 미술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나 문화유산을 주로 다루며 정의를 설명하여 용어사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불교에 대한 단행본 2개, 온라인 사전 2개가 있어 한국 불교에 대해 배울 수가 있으며, 국립민속박물관의 온라인 사전 및 단행본 시리즈를 통해 민속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 관련 용어가 있는 <Digital Dictionary of Buddhism> 및 <CJKV-English Dictionary of Confucian, Daoist, and Intellectual Historical Terms>와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에서도 도로명 주소 등 역사문화와 관련 없는 용어를 생략하면 용어사전에서 다루는 항목은 최소 55,000여 개에 달한다. 이 중에 같은 주제(용어)에 대해 중복적으로 다루는 것도 있겠지만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적지 않은 개수가 된다.

그런데 이 모든 사전의 문제점은 서로 연결성이 없다는 것이다. 단행본은 물리적인 형태이므로 연결성이 없는 것이 당연하나 온라인 사전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와 거의 연결되어 있지 않다. 물론 사이트 내부에서 연결이 있는 경우가 있다. <Digital Dictionary of Buddhism(DDB)> 및 <CJKV-English Dictionary of Confucian, Daoist, and Intellectual Historical Terms(CDIH)>은 정의 중에 언급되는 다른 용어의 링크를 제공하며 관련 참고자료를 글로 표기한다. <조선왕조실록 역사 용어 글로서리>는 해당 용어가 언급된 실록 기사를 연결하는 링크를 준다. <한국역사용어 시소리스>는 상위어, 하위어, 관련어를 같이 보여주며 <한국 복식사전> 및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관련 사진 및 관련 항목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용어사전은 DDB 및 CDIH 사전 외에 다른 참고 자료 등을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개념에 대해 더 깊게 배우고 싶으면 사용자가 따로 그 정보를 찾아 배워야 한다.

4) 간행물 자료

소장품 컬렉션, 교육 플랫폼, 용어사전 외에도 한국 역사문화 및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단행본 자료도 많다. 양이 많아 모든 단행본 및 영상 자료를 다루지 못하겠지만 대표적인 문화유산 관련 잡지, 학술지, 책 시리즈 등을 여기서 소개하여 어떤 종류의 콘텐츠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료를 찾기 위해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문화홍보원, Hollym, Seoul Selection 등 한국 문화유산, 한국학, 문화교류 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위주로 알아보았다. 이 외에도 한국학 등 관련이 있는 학술지나 책 시리즈 등도 많은데 문화유산이나 전통문화를 거의 다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 리스트에서 생략하였다.

형태	주제	제목	출판 기관	횟수	출판 기간(연별 횟수)
----	----	----	-------	----	--------------

잡지	박물관	NMK Magazine ¹⁰⁰⁾	국립중앙박물관	65	2005년~현재(4)
잡지	문화유산	Korean Heritage ¹⁰¹⁾	문화재청	63	2008년~현재(4)
잡지	문화	Koreana ¹⁰²⁾	한국국제교류재단	135	1989년~현재(4)
잡지	문화	KOREA ¹⁰³⁾	해외문화홍보원	229	2004년~현재(12)
잡지	문화(서울)	Seoul ¹⁰⁴⁾	Seoul Selection	-	2003년~2018년(12)
학술지	미술, 고고학	Journal of Korean Art and Archaeology ¹⁰⁵⁾	국립중앙박물관	17	2007년~현재(1)
학술지	고고학	Journal of Korean Archaeology ¹⁰⁶⁾	국립중앙박물관	8	2014년~2021년(1)
학술지	미술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¹⁰⁷⁾ (일부만 영어)	한국미술사학회	319	1960년~현재(3~4)
학술지	역사문화	Transactions ¹⁰⁸⁾	한국왕립아시아학회	97	1900년~현재
시리즈	문화유산(보물)	Overview of Korean Cultural Heritage Treasures ¹⁰⁹⁾	문화재청	5	2014년~2018년
시리즈	문화	Selections from Koreana ¹¹⁰⁾	한국국제교류재단	4	2009년~2010년
시리즈	문화유산(국보)	National Treasures of Korea ¹¹¹⁾	한국국제교류재단	3	2005년~2010년
시리즈	문화	Korean Culture Series ¹¹²⁾	한국국제교류재단	14	2005년~2010년
시리즈	문화	Korean Essentials Series ¹¹³⁾	한국국제교류재단	20	2010년~2014년
시리즈	고대역사	Early Korea Project ¹¹⁴⁾	University of Hawai'i Press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	8	2008년~2018년
시리즈	역사문	The	한국학중앙연구원	12	2013년~2021년

	화	Understanding Korea Series ¹¹⁵⁾	구원 출판부		
시리즈	미술	Handbook of Korean Art	Yekyong	4	2002년~2003년
시리즈	문화	The Spirit of Korean Cultural Roots ¹¹⁶⁾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30	2004년~2015년
시리즈	음악	Korean Musicology Series ¹¹⁷⁾	국립국악원	10	2007년~2019년

한국 역사문화 관련 잡지 5개, 학술지 4개, 책 시리즈 10개를 찾았는데 이 중에 문화유산을 직접 다루는 자료는 잡지 2개, 학술지 2개, 시리즈 4개가 있다. 특히 책 시리즈 중에 ‘한국 문화’ 전체를 다루지만 상당한 부분을 문화유산을 다루며 약 110권의 책에 달하는 많은 단행본이 있다. 문화유산을 다루는 <NMK Magazine>, <Korean Heritage>, <Journal of Korean Art and Archaeology>, <Journal of Korean Archaeology>의 권수만 합해도 150권 넘으며 그 안에도 다양한 주제의 여러 기사 및 논문도 실려 있다. 즉, 문화유산에 대한 영어로 된 자료가 잡지, 학술지, 책 시리즈만 봐도 많은 양의 자료가 이미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료의 접근성을 보면 잡지와 학술지 대부분은 웹상에서 무료로 기사(웹페이지) 형식이나 PDF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비용의 문제나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없다. 책 시리즈 중에 <Korean Musicology Series>, <The Understanding Korea Series>, <Overview of Korean Cultural Heritage Treasures>도 웹상에서 PDF 파일로 무료로 관람 및 다운을 받

100) <https://webzine.museum.go.kr/eng/>

101) <http://www.koreanheritage.kr/>

102) <https://www.koreana.or.kr/>

103) <https://www.korea.net/Resources/Publications/KOREA-Magazines>

104) <https://magazine.seoulselection.com/>

105) <https://www.ijkaa.org/>

106) <https://portal.nrich.go.kr/kor/journalList.do?menuIdx=570>

107) <https://www.kjah.org/>

108) <https://raskb.com/transactions-of-the-royal-asiatic-society-korea-branch/>

109) https://english.cha.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201&mn=EN_01_03

110) <https://www.kf.or.kr/kfEng/cm/cntnts/cntntsView.do?mi=2164&cntntsId=1736>

111) <https://www.kf.or.kr/kfEng/cm/cntnts/cntntsView.do?mi=2164&cntntsId=1737>

112) <https://www.kf.or.kr/kfEng/cm/cntnts/cntntsView.do?mi=2164&cntntsId=1738>

113) <https://www.kf.or.kr/kfEng/cm/cntnts/cntntsView.do?mi=2164&cntntsId=1739>

114) <https://korea.fas.harvard.edu/early-korea-project>

115)

<https://www.aks.ac.kr/cms/usr/wap/selectAplctnDataList.do?siteAplctnId=koreaReferenceAks&listAll=1&menuNo=2010330000&lang=kor>

116) http://rwcms.ewha.ac.kr/ewhapress_eng/774/subview.do

117)

<https://www.gugak.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boardid=15415&boardtypeid=24&menuid=001003002005>

을 수 있다. 그런데 PDF 파일로 제공된 간행 자료는 PDF 형태로 되어있어 그 내부 내용에 대한 검색 기능 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키워드 검색, 필터 등이 불가능하다. 웹상 기사 형태로 제공되는 잡지는 키워드로만 검색이 가능하니 타마별 관람이 불가능하며 기사 웹 페이지마다 관련 기사나 소장품으로 연결해주는 링크 등이 없다. 즉, 문리적인 간행물을 웹상으로 그대로 올리고 링크, 검색 필터, 해쉬태그 등과 같은 디지털 기능을 반영되어 있지 않아 아날로그 시대의 제공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영상 자료

한국 역사문화 및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영상 자료도 많다. 개인이 만든 영상 자료도 많지만 우선 간행물 자료와 같이 한국 문화유산, 한국학, 문화교류 등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위주로 알아보았다.

주제	제목	제공 기관	영상 수	구독자 수 (유튜브)	제공 기간
문화유산	K-Heritage.tv 118)	한국문화재단	448	-	2011년~현재
문화유산	K-Heritage.tv 119)(일부만 영어)	한국문화재단	~2,300	~1,110,000	2010년~현재
문화	KOCIS Videos ¹²⁰⁾	해외문화홍보원	201	-	2014년~현재
문화유산	모두 교육 영상 ¹²¹⁾	국립중앙박물관	29	-	?~현재
역사문화	한국왕립아시아 학회 ¹²²⁾	한국왕립아시아 학회	152	~760	2012년~현재
역사문화	Societas Koreana ¹²³⁾	한국학중앙연구 원 국제교류처	78	~1,250	2012년~현재
역사문화	Korea.net ¹²⁴⁾	해외문화홍보원	~2,500	~470,000	2009년~현재
역사문화	Semu-Yeol Lecture ¹²⁵⁾	서울역사박물관	12	-	2022년~현재
문화유산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126)(일부만 영어)	문화재청	~1,800	~35,500	2013년~현재
역사문화	The Korea Society ¹²⁷⁾	The Korea Society	766	~15,900	2008년~현재
문화	한국국제교류재 단 ¹²⁸⁾ (일부만 영어)	한국국제교류재 단	~1,000	~28,900	2012년~현재
역사문화	Arirang TV ¹²⁹⁾ (일부만 영어)	Arirang TV	~21,000	~496,000	2013년~현재

문화유산 관련 영상 자료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기도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문화유산만을 다루는 것은 한국문화재단의 K-heritage.tv, 문화재청의 유튜브, 서울역사박물관의 강의 시리즈, 국립중앙박물관의 교육 자료가 있다. 그 외에 자료는 문화유산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문화유산 관련 영상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도 K-heritage.tv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자료만 봐도 문화유산에 대한 약 500개의 영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전문가의 강의 시리즈와 현장 영상 자료로 성격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접근성 관련하여 홈페이지로 제공하는 자료는 검색바 외에 기능이 없거나 영상 시리즈별로만 검색이 가능하다. 유튜브 영상은 'Playlist'를 통해 관련이 있는 영상을 주제별로 정리된 것도 있고 각 영상 페이지에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관련 영상도 같이 보여준다. 즉, 일반 이용자는 관련 자료를 찾으려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 실감 미디어 자료

360 VR 영상, 360 VR 전시 및 거리뷰, 3D 모델과 같은 실감 미디어 자료는 언어 및 공간을 초월하는 콘텐츠로 해외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에게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된다. 모든 자료를 찾기가 힘들지만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구글 아트 앤 컬처의 자료를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로 정리되어 있다.

형태	제목	제공 기관	자료 수	주제
360 사진(갤러리), 360 영상	온라인 전시관(VR, 디지털 실감 영상관) ¹³⁰⁾	국립중앙박물관	33	온라인 전시, 360 영상
360 사진(현장 갤러리)	한국 기록유산 Encyves ¹³¹⁾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148	유적지, 반찬도 360 사진
3D 모델	한양 타임머신 ¹³²⁾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	건축물, 복식, 물품, 음식 3D 모델

118) <https://www.k-heritage.tv/en>

119) <https://www.youtube.com/user/koreanheritage>

120) <https://www.kocis.go.kr/eng/openVideos.d>

121) <https://modu.museum.go.kr/explore/video>

122) <https://www.youtube.com/@raskb1>

123) <https://www.youtube.com/@SocietasKoreana>

124) <https://www.youtube.com/@GatewayToKorea>

125) https://museum.seoul.go.kr/eng/board/NR_boardList.do?bbsCd=1160

126) <https://www.youtube.com/c/chluvu>

127) <https://www.youtube.com/@TheKoreaSociety>

128) <https://www.youtube.com/@TheKoreaFoundation>

129) <https://www.youtube.com/@KOREAairangTV>

3D 모델, 360 사진	목포시 근대문화역사 아카이브 ¹³³⁾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251	건축물 3D 모델; 유적지 360 사진; 드론 360 사진
360 사진	3D 데이터 검색 ¹³⁴⁾	국립중앙박물관	108	소장품 3D 모델 또는 사진
3D 모델, 영상	3D 문화유산 검색 ¹³⁵⁾	국가문화유산포털	755	문화재 3D 모델, 스캔, 영상 등
360 사진	Korean Heritage - 33 museum views ¹³⁶⁾	구글 아트 앤 컬처	33	유적지, 박물관 내부
360 사진(갤러리)	VR Exhibition ¹³⁷⁾	서울역사박물관	126	전시

이 자료만 봐도 약 1,450여 개의 가상현실 360 갤러리(유적지 현장 또는 박물관 전시)나 3D 모델 등이 있어 외국인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이 사진이나 일반 영상보다도 실감 나게 한국 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접근성에 있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는 시맨틱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고 국가문화유산포털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3D모델 정보가 해당 소장품 컬렉션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자료 검색 기능이 다른 자료처럼 검색 기능이 부족하고 기관 간의 연결 등이 없다. 특히 구글 아트 앤 컬처, 서울역사박물관 외에 사이트들이 국문으로 되어 있어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챕터를 통해서 현재 영어로 한국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자료의 설계, 접근성 등을 검토하였다. 국내외 박물관의 온라인 소장품 컬렉션, 한국 문화유산 관련 교육 자료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잡지, 학술지, 단행본 시리즈 등 간행물 자료, 영상 자료, 실감 콘텐츠 자료 등 다양한 기관의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미디어 자료가 있는 것이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 문화유산 관련 많은 단행본, 뉴스 기사, 논문, 영상, 실감 콘텐츠 등이 존재한다. 검토한 자료 중에 한국 문화유산만이 아닌 한국 역사와 문화, 또는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을 같이 다루는 자료가 많아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영문 자료

130) <https://www.museum.go.kr/site/main/exhiOnline/list>

131) <https://www.museum.go.kr/site/eng/exhiOnline/list>

132) <http://dh.aks.ac.kr/hanyang2/wiki/>

133) <http://dh.aks.ac.kr/~mokpo/wiki/>

134)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3DData/list>

135) https://www.heritage.go.kr/heri/threeD/select3DCullList.do?pageNo=6_3_1_0

136) <https://artsandculture.google.com/search/streetview?project=korean-heritage>

137) https://museum.seoul.go.kr/eng/board/NR_boardList.do?bbsCd=1042&q_exhCd=vr

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자료의 접근성 관련하여 여러가지 요소로 나눠서 이야기 할 수 있다. 먼저, 영문 자료가 있는데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로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한국어를 아는 사람만 그 영문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 정보의 검색 관련하여 많은 경우에는 검색바를 통한 키워드 검색이나 분류(주제)별 검색 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검색 결과를 가나다 순이나 기재 날짜순으로만 관람이 가능하니 결과가 많은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면서 자료를 찾아야 하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뭘 찾아야 할지 모르면 유용한 자료를 찾는 것을 매우 어려워 할 것이다. 셋째로 필터 등 검색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선택이 되지 않거나 관리인에게 중요하지만 배우는 사람이나 교사에게 무의미한 필터 항목이 있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즉, 소장품을 관리하고 콘텐츠 만드는 기관이 편리한 기준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배우는 사람의 입장, 외국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장품 소개 페이지, 관련 개념(용어), 큐레이션 콘텐츠(기사, 온라인 전시 등), 미디어 콘텐츠 등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즉, 웹사이트(기관) 내의 자료는 커녕 웹사이트, 자료 간의 링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한 주제에 대해 배우려는 사람은 여러 웹사이트를 따로 알아보고 한 웹사이트 내의 정보도 소장품 따로, 해설 자료 따로, 미디어 콘텐츠 따로 관련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링크, 해쉬태그, 참고 자료든 한국인도, 문화유산 전문가도, 어떤 자료가 어떤 기관에 의해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한 주제에 대해 배우고 교육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유용한 자료를 찾는 것이 상당한 노력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화유산 관련 기관이 문화유산에 대한 영문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 알리기 위한 목적이 클 텐데 콘텐츠 편찬 자체만에 집중해서 외국인이 그 콘텐츠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싶다. 이어서 기관마다 또는 부서마다 각자의 소장품, 각자의 예산, 각자의 목적(관리, 연구, 교류 등)에만 관심이 있어 기관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인다. 서로 어떤 자료를 개발하고 제공하는지 모르고 기존의 자료를 개선하기보다 각자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해온 모습이 위에 검토한 자료를 통해 드러난다. 또한 콘텐츠간의 링크나 관련 자료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콘텐츠를 웹상으로 올리는데 간행물 간의 링크가 없듯이 온라인 콘텐츠도 링크가 아직 없는 것이다. 해외 사례는 이면에서 링크든 관련 자료(소장품, 기사, 개념 등)로 연결하는 링크 등이 더 많은 편이므로 정보 간의 연결성이 없는 것이 특히 국내 기관의 개선해 나갈 문제로 보인다. 검색 기능도 마찬가지이다. 해외 온라인 컬렉션 사례를 보면 필터 항목이나 검색결과 나열 방식 등이 비교적 많고 관리자가 아닌 이용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설계된 성향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원인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며 추측밖에 못 한다.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웹사이트의 설계, 자료 제공 방식 등으로 외국인이나 배우려고 하는 비전문가가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기존의 많은 영문 자료 중에 본인에게 필요한 유용한 자료를 찾는 것이 현재로

서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유산을 알리는 목적도 지난 30여 년간 콘텐츠 개발에 투자한 만큼 달성하고 있지 않을 것도 추론할 수 있다. 즉, 이제는 콘텐츠 큐레이션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주제별 자료 분석

기존의 영문 자료 접근성 및 연결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주제 관련한 모든 자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실습(실험)을 하려고 한다.

사례 주제는 2~3개 정도 하려고 하며 문화유산, 역사 인물, 개념에 대한 것 하나씩 할까 하는데 아직은 선정하지 않았다.

IV. 시맨틱 지식 플랫폼 사례 검토

이 논문에서 택한 연구방법은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기반의 디지털 큐레이션이다.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시맨틱웹(Semantic Web)에서 활용이 가능한 링크 오픈 데이터(Linked Open Data, LOD)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조의 데이터는 노드(node)의 객체와 노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어(relation), 그리고 노드에 대한 기본 정보(attribute)로 이루어진다.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에서 이런 시맨틱 데이터로 구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백과사전적 지식과 아카이브에 있는 유물, 문서 간의 정보를 연결하고자 하는 큐레이션 방법 때문이다. 특히, 단순한 하이퍼링크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관계로 정보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더욱 세밀한 검색 및 분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특히 ‘오픈’데이터, 즉 여러 사람이 관람하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일관성이 필요하고 관계를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즉, 어떤 유형의 노드가 어떤 유형의 기본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유형의 노드와 어떤 관계를 맺어도 되는 규칙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온톨로지이다.

이 챕터에는 ‘온톨로지’란 개념을 더 이해하고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시맨틱 데이터 온톨로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의 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유산 지식 플랫폼에 필요한 온톨로지를 제시할 것이다.

1. 시맨틱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모델(온톨로지) 검토

글로벌 시대의 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유산 데이터 큐레이션 모델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기존의 관련이 있는 데이터 모델 및 온톨로지(어휘)를 선행 사례로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유산, 한국 역사문화, 자료 관리, 개념 설명 등 이 논문에서 모색하고자하는 데이터 큐레이션 모델에서 필요한 온톨로지 요소를 검토하고자 한다.

어떤 LOD 온톨로지(어휘)가 제일 많이 활용되는지 ‘Linked Open Vocabularies’ 홈페이지¹³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톨로지 간의 재활용도의 분석을 통해 제일 널리 활용되는 LOD 온톨로지를 보여준다. 제일 많이 활용되는 5개의 어휘는 dcterms, dce, foaf, vann, skos가 된다.¹³⁹⁾ 이 사이트를 통해 분야별의 온톨로지 검색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대의 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유산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에 참고할 만한 온톨로지를 찾도록 하다. 참조한 온톨로지는 아래에 표에서 정리하였다.

138) “Linked Open Vocabularies (LOV)”. <https://lov.linkeddata.es/dataset/lov/>

139) Ontology Engineering Group. "Linked Open Vocabularies."
<https://lov.linkeddata.es/dataset/lov/>

네임스페이스	이름
bibo	The Bibliographic Ontology ¹⁴⁰⁾
CIDOC-CRM	Classes & Properties Declarations of CIDOC-CRM ¹⁴¹⁾
dbo	DBpedia Ontology ¹⁴²⁾
dct	Dublin Core Metadata Initiative ¹⁴³⁾
edm	Europeana Data Model ¹⁴⁴⁾
ekc	Encyclopedic Archives of Korean Culture ¹⁴⁵⁾
foaf	Friend of a Friend Vocabulary ¹⁴⁶⁾
locn	ISA Programme Location Core Vocabulary ¹⁴⁷⁾
nlon	National Library of Korea ¹⁴⁸⁾
owl	Web Ontology Language(OWL) ¹⁴⁹⁾
schema	Schema.org ¹⁵⁰⁾
skos	Simple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 ¹⁵¹⁾
time	Time Ontology in OWL ¹⁵²⁾

위에서 참고한 온톨로지 중에 특히 문화유산 관리 관련 CIDOC-CRM, EDM, 한국 전통 역사문화 관련 EKC, 서지 관리 관련 NLON, 그리고 개념 설명 관련 SKOS를 더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한 후 제3장에서 살펴본 온라인 컬렉션 사례의 정보 구조 등도 같이 검토하면서 비교하려고 한다.

온톨로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클래스(분류)와 관계어(property)로 구별하여 정의하는데 아래에서 클래스 위주로만 검토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관계어를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참고하는 데이터 모델에 해당하지 않은 클래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이 논문의 데이터 큐레이션 모델에서 필요한 클래스를 제시한 후 그 선정된 클래스만에 맞게 관계어를 다시 보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1) CIDOC-CRM 데이터 모델

CIDOC-CRM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¹⁵³⁾ 속의 국제정보과학위원회(CIDOC, International Committee for Documentation)¹⁵⁴⁾에서 지난 20년 동안 계속 개발해온 ‘개념적 참조 모델’(CRM, Conceptual Reference Model)로 “문화유산

140) <https://dcmi.github.io/bibo/>

141) https://www.cidoc-crm.org/html/cidoc_crm_v7.1.2.html

142) <https://dbpedia.org/ontology/>

143) <https://www.dublincore.org/specifications/dublin-core/dcmi-terms/>

144) <https://pro.europeana.eu/page/edm-documentation>

145) http://dh.aks.ac.kr/Encyves/wiki/index.php/EKC_Data_Model-Draft_1.1

146) <http://xmlns.com/foaf/spec/>

147) <https://semiceu.github.io/Core-Location-Vocabulary/releases/w3c/>

148) <https://lod.nl.go.kr/home/>

149) <https://www.w3.org/OWL/>

150) <https://schema.org/docs/datamodel.html>

151) <https://www.w3.org/TR/2009/REC-skos-reference-20090818/>

152) <https://www.w3.org/TR/owl-time/>

153) "Hom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https://icom.museum/en/>

154) "Hom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Documentation. <https://cidoc.mini.icom.museum/>

분야에서 정보 통합을 위한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도구로서...문화유산 기록에 사용되는 내재 및 명시적인 개념 및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정의와 형식적인 구조를 제공하며 해당 데이터의 조회 및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¹⁵⁵⁾ 문화유산 관련한 대표적인 데이터 온톨로지로서 참조할 의미가 있어 여기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CIDOC-CRM 데이터 모델(v.7.1.2 기준, 2022년)은 81건의 클래스 및 160 프로퍼티를 가진다.¹⁵⁶⁾ 모든 클래스는 상위의 E1 CRM Entity 클래스 아래에 있다. 그 클래스 제외하여 하위 클래스 일부의 구조를 아래에 보여준다. 일부의 클래스는 두개의 상위 클래스 아래에 있어 두 번 표기하였다.

- E2 Temporal Entity
 - E3 Condition State
 - E4 Period
 - ◆ E5 Event
 - ◆ E63 Beginning of Existence
 - ◆ E64 End of Existence
 - ◆ E7 Activity
- E52 Time Span
- E53 Place
- E54 Dimension
 - E97 Monetary Amount
- E59 Primitive Value
 - E4 Period
 - E60 Number
 - E61 Time Primitive
 - E62 String
 - E94 Space Primitive
 - E95 Spacetime Primitive
- E77 Persistent Item
 - E39 Actor
 - ◆ E21 Person
 - ◆ E74 Group
 - E70 Thing
 - ◆ E71 Human-Made Thing
 - ◆ E24 Physical Human-Made Thing

155) "Home." CIDOC CRM. <https://www.cidoc-crm.org/>

156) "Classes & Properties Declarations of CIDOC-CRM version: 7.1.2." CIDOC CRM. https://www.cidoc-crm.org/html/cidoc_crm_v7.1.2.html

- ◆ E28 Conceptual Object
 - ◆ E72 Legal Object
 - ◆ E18 Physical Thing
 - ◆ E90 Symbolic Object
- E92 Spacetime Volume
 - E93 Presence

이 중에 E71 Human-Made Thing의 경우에는 문리적인 것(E24 Physical Human-Made Thing)과 개념(E28 Conceptual Object)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24 Physical Human-Made Thing에는 문리적 객체, 문리적 요소, 컬렉션(E22 Human-Made Object, E25 Human-Made Feature, E78 Curated Holding)으로 세부적은 분리하며 E28 Conceptual Object에는 유형, 명제적 객체, 상징적 객체(E55 Type, E89 Propositional Object, E90 Symbolic Object)으로 나뉘어 있다. 또한 E72 Legal Object 속의 E18 Physical Thing 클래스를 살펴보면 인공(E22 Human-Made Object)이나 자연(E20 Biological Object)의 문리적 객체(E19 Physical Object), 앞서 소개된 E24 Physical Human-Made Thing, 그리고 인공적인 문리적 요소(E25 Human-Made Feature), 유적(장소, E27 Site)로 이루어져 있다.

또 CIDOC-CRM의 특징 중 하나는 E5 Event 클래스 관한 것인데 그 하위 클래스인 E63 Beginning of Existence, E64 End of Existence, E7 Activity를 통해 문화유산과 관련 인물 등의 탄생(Production, Creation, Formation, Birth, Transformation), 소멸(Destruction, Dissolution, Death, Transformation), 관련 활동(Transfer of Custody, Modification, Attribute Assignment Creation, Formation, Acquisition, Joining, Leaving, Curation Activity, Move)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특징을 보면 E72 Legal Object의 클래스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문화유산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여기며 E5 Event 클래스를 통해 문화유산의 변천사를 자세히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중요시하는 데이터 모델인 것을 볼 수 있다. 즉, 국제박물관협회의 국제정보과학위원회에서 만든 데이터 모델인 만큼 CIDOC-CRM은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기록하는 데에 목적을 둔 데이터 모델로 보인다.

2) Europeana Data Model

Europeana Data Model(EDM, 유로피아나 데이터 모델)은 유럽연합(EU)의 유로피아나(Europeana) 디지털 문화유산 웹포털 사업 하에 개발된 데이터 모델로 시맨틱 접근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표준을 사용하는 제공 기관이 디지털화한 유럽의 다양한 문화유산 객체를 문화적, 다양한 언어적 맥락에서 의미 있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노력의 중복을 피하고 링크 오픈 데이터 환경에서의 새로운 지식 개발에 기여하며 인물, 장소, 주제

등에 대한 정보 자원을 다른 기관과 연결하여 한 기관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한다.¹⁵⁷⁾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웹포털에서 활용되는 온톨로지로 살펴볼 의미가 있다.

EDM은 총 18개의 클래스가 있다.¹⁵⁸⁾ 이 중에 11 개는 유로피아나에서 새로 만든 것이며 7 개는 기존의 온톨로지(ore, skos, dcmitype, cc, dcat, rdfs)에서 가져온 것이다. 모든 클래스는 다 rdfs:Resource 클래스 하위에 있다.

- ore:Proxy
- Non-Information Resource
 - Event
 - Agent
 - Place
 - Physical Thing
 - skos:Concept
 - TimeSpan
- Provided Cultural Heritage Object
- Information Resource
 - Web Resource
- dcmitype:Collection
 - ore:Aggregation
 - Europeana Aggregation
- dcmitype:Dataset
 - dcat:Dataset
- cc:License
- Europeana Object

기술적인 요소를 생략하면 크게 정보자원(Information Resource), 비정보자원(Non-Information Resource), 컬렉션(Europeana Object, Europeana Aggregation, Provided Cultural Heritage Object)으로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다. 비정보자원은 단순한 글로 전달할 수 없는 인물, 사건, 개념, 기간, 문리적 객체 등을 의미한다. 여러 기관의 소장품과 그 소장품 관련 지식을 한번에 볼 수 있게 하는 데이터 모델일 것을 클래스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157) 'Europeana underpins the knowledge economy'. Europeana. https://pro.europeana.eu/files/Europeana_Professional/Share_your_data/Technical_requirements/EDM_Documentation/EDM_Factsheet.pdf

158) Europeana. Definition of the Europeana Data Model v5.2.8. 2017. https://pro.europeana.eu/files/Europeana_Professional/Share_your_data/Technical_requirements/EDM_Documentation//EDM_Definition_v5.2.8_102017.pdf

3) EKC 데이터 모델

EKC(Encyves of Korean Culture) 데이터 모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에서 2016년에 처음 제정한 것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속의 역사적 사실 관계 및 그 사실의 문헌적 근거에 관한 지식을 데이터화 하기 위해 개발한 온톨로지 스키마이다.”¹⁵⁹⁾ 한국의 전통 역사와 문화 관련 정보를 다루는 데이터 모델로 더 자세히 살펴볼 의미가 있다.

EKC 데이터 모델은 다음과 같은 온톨로지 클래스 17개(하위 79개)가 설계되어 있다. 하위 클래스를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 Actor(국가, 관서, 기관, 단체, 인물, 인물군)
- Event(사건, 행사, 전시)
- Place(유적지, 근대유적지, 장소, 소장처, 행정지명, 자연지명, 고지명, 권역)
- Architecture(건축, 조형, 건축부품)
- Clothing(복식, 복장)
- Food(상차림, 식재료, 음식, 제수)
- Object(물품, 그림, 탑본, 기장, 기념물, 현판, 화폐)
- Record(문헌, 근대문헌, 현대문헌, 금석문, 기사, 시각자료)
- Work(음악, 연희, 정재, 시, 악장가사)
- Concept(제도, 의례, 관직, 직역, 호칭, 개념용어, 분류주제)
- Heritage(국보, 무형, 보물, 사적, 등록문화재, 시도문화재)
- Multimedia(3D_지도, 3D_모델)
- WebResource(해설, 참고, 원문, 지도, 그림, 도면, 동영상, 사진)
- Bibliography(단행본, 논문, 고문헌)
- Text(원문, 번역문, 명문(銘文))
- Story(스토리라인, 에피소드)
- Index(연대기정보, 소장정보, 참고문헌색인, 웹자원색인)

이 클래스를 크게 정리하자면 '역사문화 요소'(Actor, Event, Place, Architecture, Clothing, Food, Object, Concept, Heritage), '문헌적 근거'(Record, Work, Bibliography, Text), '참고 자료'(WebResource, Multimedia), '데이터 큐레이션'(Story, Index)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 Record나 Work은 상황에 따라 역사문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반면에 Object나 Heritage 등은 근거 자료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 설계를 통해 역사문화 요소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그 관계의 근거 자료도 같이 제시하며 그 관계를 더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159)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Ontology:EKC 2022. 한양도성 타임머신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편찬 연구 홈페이지. http://dh.aks.ac.kr/hanyang2/wiki/index.php/Ontology:EKC_2022

4) 국립중앙도서관 LOD 모델

국립중앙도서관 온톨로지 모델(National Library of Korea, NLON) 국가서지 LOD(Linked Open Data)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된 온톨로지이다. 해당 홈페이지에 의하면 “국가서지 링크드 오픈 데이터(LOD)란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 보존하고 있는 국내 출판물과 각종 지식정보를 대상으로, 기존 MARC 또는 DBMS 데이터를 RDF 형태로 변환하여 웹상에 Linked Open Data 형식으로 발행한 서비스”이다.¹⁶⁰⁾

국립중앙도서관 온톨로지 모델은 다음과 같은 온톨로지 클래스 총 16개가 설계되어 있다. 하위 클래스를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 foaf:Agent(foaf:Organization(nlon:Library, nlon:University, nlon:Government))
- geo:SpatialThing (nlon:Location)
- skos:Concept(nlon:Concept)
- schema:Place
- schema:PostalAddress
- bibo:ThesisDegree
- bibo:Periodical
- nlon:Book
- nlon:OnlineMaterial
- nlon:OnlineMaterialType

국가서지 링크드 오픈 데이터의 홈페이지에는 온톨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를 RDF로 표현하기 위한 온톨로지 스키마는 BIBO, SKOS, FOAF를 활용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모델은 서지데이터에 대한 부분, 주제명에 대한 부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서지데이터는 bibo:Document 클래스를 기반으로 각각의 분류에 맞게 생성하였으며, 주제명은 SKOS, 저자(개인명/단체명)는 FOAF를 기반으로 표현하였습니다.”¹⁶¹⁾ 즉, 서지데이터(BIBO 기반), 주제명(SKOS 기반), 개인 및 단체(FOAF 기반) 관련 정보를 나눠 기본의 온톨로지 모델을 참고하여 개발된 구조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클래스 기준으로 분리해서 분석하면 실제로 4가지의 정보 유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소장품 유형(Thesis, Periodical, Book, Online Material, OnlineMaterialType), 인물 및 기관(Agent, Organization, Library, University, Government), 개념(Concept), 장소 및 지리(SpatialThing, Location, Place, PostalAddress). 즉, 지리 정보도 같이 있다는

160)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 링크드 오픈 데이터. 국가서지 LOD.
<https://lod.nl.go.kr/home/service/introduction.do>

161)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 링크드 오픈 데이터. 온톨로지 모델.
<https://lod.nl.go.kr/home/service/ontology.do>

점을 알 수 있다. 클래스로 보면 어떤 서지 자료를 어디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고 그 서지 자료를 무엇을 다루며 누구에 의해 만들어 졌는지 기록하기 위해 만든 온톨로지 모델인 것을 알 수 있다.

5) SKOS 데이터 모델

SKOS(Simple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 단순한 지식 정리 체계)는 2009년에 W3C에서 발표한 것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시소 라스, 분류법 등과 같은 지식 정리 체계를 명시적으로 포착하여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 및 기술 공유를 가능하게 하도록” 개발된 온톨로지이다.¹⁶²⁾ 개념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온톨로지이므로 이 논문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데이터 큐레이션 모델에서 필요한 '개념 설명 기능'을 설계하기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념 간의 관계만을 설명하는 데이터 모델로 클래스가 Concept(개념), ConceptScheme(개념 체계)이란 2건 밖에 없다. ConceptScheme은 여러 관련 개념을 한 컬렉션으로 묶을 수 있는 기능을 한다.

SKOS은 개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용한 관계어가 있는데 지식 플랫폼 온톨로지 설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기타 인문지식 플랫폼 사례 검토

RDF나 LOD기반의 데이터 모델이 이닌 것도 클래스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살펴볼 의미가 있다. 또한 RDF/LOD 데이터 모델이 아니므로 관계어가 없는데 기본 메타데이터를 살펴보면 관계어에 해당되는 정보가 무엇일지 알아볼 수 있다.

1)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는 URL 설계를 통해 클래스에 해당되는 분류를 확인할 수 있다.

- asset(또는 item; 소장품)
- entity(또는 topic; 개념)
 - artists(작가)
 - mediums(제질)
 - art movements(미술 운동)
 - historical events(역사 사건)

162) W3C. 2009. "SKOS Simple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 Reference." <https://www.w3.org/TR/2009/REC-skos-reference-20090818/>

- historical figures(역대 인물)
- places(장소)
- partner(또는 collection; 협조 기관)
- project(또는 theme; 테마 컬렉션)
- story(또는 online exhibit, feature; 온라인 전시)
- streetview(또는 museum view; 360 VR 사진)
- experiment(상호 작용 활동)

이를 내용의 성격으로 정리하자면 소장품(asset), 관련 개념(entity), 미디어(streetview), 큐레이션 콘텐츠(partner, story, project, experiment)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구글 아트 앤 컬처는 소장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큐레이션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클래스 간의 관계는 시맨틱 관계가 따로 없는데 소장품의 경우에는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상세 정보가 있다.

V. 한국 문화유산 지식 플랫폼 설계

1. 온톨로지 설계

온톨로지 설계의 전략은 기존의 데이터 모델 온톨로지 및 온라인 컬렉션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다. 온톨로지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 해외에 살아서 유적지 등 한국 문화유산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한국학 학생이나 박물관 학예사 등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 더욱 깊이 배우고 싶은 사람이 탐구하고자 하는 지식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제공하는 목표라 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유물이나 문서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직감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수준으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가 온톨로지 설계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였다.

온톨로지 설계는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편리하도록 지식 플랫폼의 콘텐츠가 영어로만 구성되도록 하였다. 즉, 일부의 이중 언어(한-영) 참고 자원 외에 플랫폼의 인터페이스와 내용은 모두 영어로 표시되어 있을 거라고 가정하여 클래스, 관계 등을 설계하였다. 이는 나중에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수요에 따라 같은 온톨로지 맥락을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언어의 서로 해당하는 두 노드(콘텐츠)는 나중에 시맨틱 데이터로 연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위키백과 등에서 작용하는 언어별 서브도메인 방법과 유사하다. 그런데 위키백과와 마찬가지로 문화유산의 명칭, 개념의 한글, 한자 표기 등은 시맨틱 관계가 아닌 메타데이터(즉, 데이터타입 속성)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나중에 이를 시맨틱 관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¹⁶³⁾

온톨로지 설계에서 또 크게 고민됐던 부분 중 하나는 한 문화유산이나 개념이 여러 영문 표기를 어떻게 시맨틱 데이터상에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즉, 같은 한국어 개념이나 문화유산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영문 번역어나 명칭은 개별의 노드로 분리할지 같은 노드의 하위 개념어로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로마자 표기는 한국어 단어와 관련이 있어 한국어 정보의 데이터타입 속성으로 할 수 있다.¹⁶⁴⁾ 그런데 한 한국어 단어는 여러 영문 번역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의 노드로 하되 SKOS 데이터 모델의 ‘기본 라벨(prefLabel)’, ‘대체 라벨(altLabel)’을 이용하여 ‘기본 라벨’에 해당하는 노드에만 속성 데이터, 관계 데이터를 연

163) 이를 owl:sameAs 관계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164) 이는 영문이 아닌 국문 데이터의 속성으로 나중에 한국어 기반에 노드의 속성으로 할 것이다. 이 논문에는 영문만의 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에 한국어 데이터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 그런데 로마자 표기는 외국인에게 유용할 수 있으니 이 논문을 통해 제시하는 ‘시맨틱 미디어 위키’의 ‘subobject’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로마자 표기를 같이 보이게 하도록 한다.

“Subobject”. Semantic Mediawiki.

<https://www.semantic-mediawiki.org/wiki/Subobject>

결하도록 하고 ‘대체 라벨’ 노드는 ‘기본 라벨’로 연결하는 관계만 연결하도록 설계하였다. 즉, 로마자는 한국어 노드의 하위 데이터타입 속성으로, 번역어는 기본 라벨, 대체 라벨을 관계속성으로 구별하는 개별의 노드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온톨로지 설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클래스, 데이터타입 속성, 관계 속성으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한다.

1) 클래스(Class) 설계

클래스는 크게 문화유산(Heritage), 주제(Topic), 자원(Resource), 미디어(Media), 컬렉션(Collection)으로 5개의 클래스로 나뉘었다. 이 클래스는 위에서 검토한 데이터 모델 및 온라인 컬렉션 사례에서 참고를 했으며 글로벌 시대의 한국 문화유산 교육에 필요한 요소로 전략적으로 선정하였다. 사물, 기술 등 문화유산 그 자체, 그 맥락을 설명하는 외국인을 위한 용어사전의 역할 하는 주제, 어떤 문화유산이나 주제에 대해 더 깊게 배울 수 있도록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자원, 해외 등에 있어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실감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이 4가지 지식을 다양한 테마로 큐레이션을 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컬렉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가) Heritage

문화유산(Heritage) 클래스는 유형 및 무형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설명하는 클래스이다. 따라서 ‘문리적과 비문리적 사물’(material and immaterial objects)에 해당되는 클래스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문화유산의 ‘1차 자료’(primary source)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클래스의 하위 설계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유산’ 지정방식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일부러 따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같게 지정되는 유산이 성격이 다를 수 있고 성격이 비슷한 유산이 다르게 지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화유산’의 사적과 ‘자연유산’의 명승, 또는 일부의 기념물은 장소(즉, 지리적 정보)와 직접 관련이 있어 ‘부동산’ 유산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움직이는 ‘자연유산’의 동식물 기념물이 있으며 ‘문화유산’의 유물 중에 출토도 되고, 기관 안에서 소장되는 ‘동산’ 유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리가 아닌 글로벌 교육을 위한 설계라 지정규칙에 사용되는 ‘국보’, ‘보물’, ‘기념물’ 등과 같은 단어가 외국인들에게 익숙하지 못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국가유산 지정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메타데이터가 비슷한 유산을 기준으로 하위분류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EDM, CIDOC-CRM 등과 같은 데이터 모델도 참고하였다. 그 결과는 규격 및 문리적인 범위를 가진 유형유산과 보유자를 통해 전송되는 기술 등과 같은 무형유산으로 기본적으로 나뉘었다. 그 다음에 유형유산을 더 구체적으로 절대 옮길 수 없는 유적, 해체이동이 가능한 건축물, 쉽게 옮기며 건물 안에서 소장해야 하는 유물, 저질로 이동할 수 있고 살아 있는 동식물, 이 4가지로 분류하였다. 매핑되는 클래스는 ekc:Heritage가 있는데 ekc:Heritage은 지전 및 등록 국가유산에만 해당되는 점에서 다르다.

하위 클래스 1	하위 클래스 2	정의	예시	Maps To
Tangible Heritage		유형유산		edm:Place dct:PhysicalObject dct:PhysicalResource
	Site	유적지	경주 대릉원 일원, 고창 병바위 일원, 경복궁, 부안 유천리 요지, 금남 백로 서식지	edm:Place
	Structure	건축물	구례 화엄사 대웅전, 금곡사지 원광법사 부도탑, 경주 석빙고	edm:PhysicalThing E18_Physical_Thing (CIDOC CRM) edm:Place
	Object	유물	황남대총 북분 금관,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구미 대둔사 아미타불회도	PhysicalThing E18_Physical_Thing (CIDOC CRM)
	Flora/Fauna	동식물	경산의 삼살개, 강천사 모과나무	E20 Biological Object dbo:Species
Intangible Heritage		무형유산	담양 선자장, 임실필봉농악, 광주 칠석 고싸움놀이	

나) Topic

주제(Topic) 클래스는 용례사전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개념, 인물과 단체, 장소, 사건과 시대로 나뉘었다. 즉, 문화유산 관련하여 '누구', '언제', '어디', '무엇'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돕는 내용이다. 반면으로 이 클래스를 토해, 어떤 인물이나 개념, 사건, 장소와 관련한 문화유산 및 참고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에 볼 수 있게 한다. 매핑되는 클래스는 edm:NonInformationResource가 있다.

하위 클래스 1	하위 클래스 2	정의	예시	Maps To
Concept		개념(용어)	불화, 신도비, 단청	skos:Concept
Agent				foaf:Agent edm:Agent E39_Actor (CIDOC CRM) dct:Agent
	Person	인물	이순신, 이항, 선덕여왕, 트와이닝 린지	foaf:Person

	Organization	단체	한국학중앙연구원, 집현전, 조계종, 조선, 밀양 박씨	foaf:Organization
Place		행정구역, 지리적 장소	제주도, 경기도 성남시 운중동, 청계산, 금강, 삼막사계곡	edm:Place E53_Place (CIDOC CRM)
Event		시대, 사건, 행사	조선시대, 임진왜란, 3.1운동	event:Event edm:Event edm:TimeSpan E52 Time-Span (CIDOC CRM) E4_Period (CIDOC CRM) dct:Event dct:PeriodOfTime

다) Resource

자원(Resource) 클래스는 '참고자료'의 기능으로 문화유산이나 주제에 대해 더 배우고 싶으면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의미한다. 이 자원은 책 시리즈 등과 같은 수집품(Collected Resource), 단행본과 같은 독립형의 자원(Individual Resource), 그리고 그 하위의 챕터 등과 같은 자원 일부 부분(Partial Resource)으로 나눠 자원 간의 관계를 알 수 있고 또 참고하기 좋은 것을 단위별로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게 한다. 그 하위 클래스는 기존의 데이터 온톨로지에서 참고했으며 자원의 학술적 수준, 자료의 형태 등에 대해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하였다. 매핑되는 클래스는 foaf:Document, edm:InformationResource, E72_Information_Object (CIDOC CRM), dct:Text, dct:BibliographicResource 등이 있다.

하위 클래스 1	하위 클래스 2	정의	예시	Maps To
Collected Resource		자원 수집품		bibo:CollectedDocument
	Journal	학술지		bibo:Journal
	Magazine	잡지		bibo:Magazine
	Newspaper	신문		bibo:Newspaper
	Book Series	책 시리즈		bibo:Series
Individual Resource	Conference Series	학회(워크샵) 시리즈		bibo:Conference
		독립형 자원		bibo:Document
	Website	웹사이트		bibo:Website edm:WebResource
	Issue	잡지, 학술지, 신문 호		bibo:Issue
	Book	단행본		bibo:Book

	Encyclopedia/ Dictionary	사전		
	Thesis	학위논문		bibo:Thesis
	Report	보고서(지침서)		bibo:Report bibo:Manual
	Conference	학회(워크샵)		bibo:Conference
Partial Resource		자원의 일부		bibo:DocumentP art
	Webpage	웹페이지		bibo:Webpage edm:WebResour ce
	Chapter	책 장		bibo:Chapter
	Article	기사(신문, 잡지), 논문(학술지)		bibo:Article
	Entry	항목목(사전)		
	Lecture	강의		

라) Media

미디어(Media) 클래스는 문화유산, 주제 관련한 시청각 자원을 말한다. 특히 문화유산을 직접 볼 수 없는 경우에는 360도 사진이나 영상, 가상현실 갤러리, 3D 모델 등을 통해 실감 나게 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시각 자료(사진), 청각 자료(오디오), 시청각 자료(영상)로 불리하여 2D, 3D, 360도인지에 따라 하위분류를 하였다.

일부의 Resource 중에 특히 강의의 경우엔 오디오, 영상이 있을 수 있는데 미디어는 '실감 콘텐츠'로 문화유산이나 장소를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지식적' 정보 전달과 '감각적' 정보 전달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하위 클래스 1	하위 클래스 2	정의	예시	Maps To
Image				foaf:Image
	2D Image	일반 사진		dct:StillImage
	VR Image	360도 사진		dct:InteractiveResource
	VR Gallery	360도 사진의 수집품		dct:InteractiveResource
	3D Model	3D 모델		dct:InteractiveResource
Video				bibo:AudioVisualDocument dct:MovingImage
	2D Video	일반 영상		bibo:AudioVisualDocument dct:MovingImage
	VR Video	360도 영상		bibo:AudioVisualDocument dct:MovingImage dct:InteractiveResource
Audio		음성		bibo:AudioVisualDocument dct:Sound

마) Collection

마지막으로 컬렉션(Collection)이 있는데 온라인 전시 등과 같은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엮일 수 있는 클래스로 제작자가 원하는 문화유산, 주제, 자원, 미디어 등을 한 곳에서 모일 수 있도록 기능하는 클래스이다. 컬렉션은 따로 하위 클래스를 두지 않았다. 매핑되는 다른 온톨로지 클래스는 dct:Collection 등이 있다.

이렇게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클래스 중에 두 개의 상위 클래스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다. 예를 들어 Site와 Structure는 Heritage와 Place의 성격을 가지며, Organization은 Agent와 Place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Conference Series, Conference, Lecture 등은 Resource와 Event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객체 속성(Datatype Property)에는 그 두 상위 클래스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진다.

이 클래스 설계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 설명 외에 외국인의 교육에 돕는 용어사전 및 참고자료 콘텐츠, 해외에 있어 문화유산을 관람하지 못하는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교육자와 학생이 관심 및 목적에 맞게 큐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시대 교육에 맞는 한국 문화유산 관련 지식을 잘 접근하고 전달하도록 한다.

2) 데이터타입 속성(Datatype Property) 설계

데이터타입 속성(datatype property)은 노드에 대한 기본 정보로 다른 노드로 연결할 수 없는 문자(string, text), 숫자(number), 시간(datetime), url 등과 같은 정보에 해당한다. 문자 데이터로 각 노드의 id, 이름, 설명 등이 있으며 자원에 해당하는 isbn, doi 등과 같은 url도 있다. 숫자 관련 데이터로 문화유산의 규격이나 영상 자료의 길이 등이 있으며 시간 관련 데이터는 문화유산의 제작 및 변경 연도, 인물의 생몰년, 사건의 시작과 끝 등이 있다. 그리고 장소 관련한 데이터로 경위도, 도로 주소 등이 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온톨로지 설계인 만큼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타입 속성을 최소화하고 관계 속성을 최대화하도록 설계하였다.

자세한 데이터타입 속성 목록은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Domain	Name	정이	예시
All	dct:identifier	식별자	
All	dct:title	제목, 이름	
All	dct:description	설명	
Heritage, Topic	owl:sameAs ¹⁶⁵⁾	해당 한국어 객체	
Heritage, Topic, Resource	dct:alternative	대안 제목, 이름	
Heritage, Media, Resource	dct:created	제작된 날짜(연도)	
Heritage	dct:modified	변경된 날짜(연도)	

Tangible Heritage, Media	dct:extent	치수(규격)	
Site, Structure, Place	schema:streetAddress	주소(행정구역 + 상세 주소)	
Site, Structure, Place	kh:addressDetails	상세 주소	
Site, Structure, Place	geo:lat	위도	
Site, Structure, Place	geo:long	경도	
Structure, Object	kh:accessionNo	소장품 번호	
Flora/Fauna	dbo:scientificName	학명	
Resource	prism:doi	doi	
Resource	dct:language	언어	
Collected Resource, Individual Resource	bibo:isbn	ISBN	
Resource, Media	kh:imageLink	사진 링크(url)	
Resource, Media	bibo:uri	uri	
Issue	bibo:issue	호(시리즈) 번호	
Issue, Book, Encyclopedia/Dictionary, Thesis, Report, Chapter, Article	bibo:numPages	쪽수	
Chapter, Article, Entry	bibo:pages	페이지 시작~끝	
Lecture, Video, Audio	ma:duration	시간	
Thesis	bibo:degree	학위 종류	
Conference, Lecture	dct:date	행사 날짜	
Agent, Event, Conference	edm:begin	생년, 사건 시작	
Agent, Event, Conference	edm:end	몰년, 사건 끝	

3) 관계 속성(Object Property) 설계

관계 속성(object property)는 시맨틱 데이터의 노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어휘를 말한다. 특히 어떤 클래스 간의 어떤 관계가 가능한지 온톨로지에서 설명해 준다. 앞서 설명한 클래스는 크게 문화유산, 주제, 자료, 미디어, 컬렉션이 있는데 특히 주제 중에 개념 인물(단체), 장소, 사건(시대)이 있다. 관계 중에 기본적으로 각 클래스별 상위, 하위 노드가 있을 수 있고 관련 노드가 있는 것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주제 클래스(인물, 사건, 장소, 개념)와 연결해야 문화유산이 만들어진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며 반면에 주제와 관련한 문화유산을 찾을 수 있다. 문화유산 외에도 자원, 미디어, 컬렉션의 경우는 만든 사람이 있어 인물 클래스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 자원 등을 누구에 의해 지원받고 만들었는지 알아야지 그 자원의 품질과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 배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자원, 미디어, 컬렉션은 어떤 문화유산이나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지에

165) owl:sameAs는 원래 object property인데 현재 논문에서 설계하고자하는 영문 플랫폼에는 한국어 노드가 없어 연결한 노드가 없어서 datatype property로 분류하였다. 추후에는 이 관계어를 통해 한국어 노드나 다른 언어의 노드로 연결할 수 있다.

대한 관계정보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문화유산과 주제에 대한 자원, 미디어, 컬렉션 자료도 찾을 수 있다. 즉,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자료 간의 관계가 필요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맥락 등 정보(지식) 간의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계를 앞서 검토한 데이터 모델과 박물관의 온라인 컬렉션 메타데이터에서 찾았습니다. 특히 박물관의 온라인 컬렉션 메타데이터는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인데 참고한 사례에서는 대부분 데이터타입 속성으로 처리했으나 시맨틱 관계 데이터로 바꿔 더욱 자유롭게 관망하고 배우도록 한다. 여러 자료와 관련 인물에 대한 관계는 BIBO 온톨로지 보다 약간 더 단순하게 접근하였다.

자세한 관계 속성 목록은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메인(주어)과 레인지(목적어)에는 점으로 되어 있으면 그 관계 속성은 해당 클래스끼리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대다, 다대일이 아닌 일대일로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를 한다.

Domain	Range	Name	정의	예시
• Heritage • Topic	• Heritage • Topic	skos:altLabel	비대표 페이지	
• Heritage • Topic	• Heritage • Topic	skos:prefLabel	대표 페이지	
Heritage	Concept	kh:designation	국가유산 지정 종목	
Heritage	Concept	kh:technique	기법	
Heritage	Concept	kh:function	기능	
Heritage	Concept	kh:features	특징, 요소	
Heritage	Concept, Agent	dct:subject	대상(주인, 무형 유산 보유자)	
Heritage	Concept, Agent	kh:subjectSecondary	보조 대상(무형유산 전승자)	
Heritage, Agent, Event, Place, Collection	Concept	dct:type	유형	
Heritage, Media, Resource, Collection	Agent	dct:creator	제작가	
Heritage, Resource, Collection	Agent	dct:contributor	제작에 기여한 자	
Heritage, Resource, Media	Agent	foaf:fundedBy	제작을 지원한 자	
Heritage	Place, Site, Structure	edm:currentLocation	현 장소(소장처)	
Heritage	Place, Site, Structure	kh:formerLocation	출토지, 전 장소	
Heritage	Place	kh:adminDistrict	행정구역	
Heritage	Event	dct:temporal	제작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ritage • Concept • Event • Collection • Individual Resource • Partial Resource • Person, Organ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ritage • Concept • Event • Collection • Collected Resource • Individual Resource • Organization 	dct:isPartOf	상위 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ritage • Concept • Event • Collection • Individual Resource • Collected Resource • Organ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ritage • Concept • Event • Collection • Partial Resource • Individual Resource • Person, Organization 	dct:hasPart	하위 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ritage • Event • Concept • Col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ritage • Event • Concept • Collection 	edm:isRelatedTo	관련 노드	
Resource	Resource	bibo:translationOf	번역 원본	
Resource	Agent	dct:publisher	출판사	
Resource, Media	Agent	edm:provider	제공 기관(웹사이트)	
Media	Agent	dct:rightsHolder	저작권 소유자	
Resource, Collection	Agent	bibo:editor	편집자	
Resource, Collection	Agent	bibo:translator	번역자	
Resource, Collection	Agent	bibo:contributor	기타 기여자	
Conference Series, Conference, Lecture	Agent	bibo:organizer	주관한 자	
Conference Series, Conference, Lecture	Agent	kh:participant	참여한 자	
Media	Resource	dct:license	라이선스(이용 허락)	
Media	Heritage, Topic	foaf:depicts	묘사한 것	

Media	Heritage, Topic	kh:depictsMain	묘사한 것(대표 사진)	
Resource, Collection	Heritage, Topic	dct:subject	다루는 주제	
Collection	Resource, Media	dct:references	참고 자료	
Event, Conference, Lecture	Place, Site, Structure	edm:happenedAt	일이 일어난 곳	

2. 플랫폼 환경 설계

작성 미완성

위키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온톨로지는 최신 변경 사항 일부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컬렉션 클래스 페이지 설계 아직 못했으며 미디어 페이지는 데이터 설계를 했으나 디자인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차 중간 발표 후 온톨로지 확정하여 최종 수정할 예정입니다.

상세 검색기능은 작년에 한번 시범했는데 온톨로지 수정한 후 아직 설계하지 못했습니다.

<http://ekch.org/wiki/>

1) 시맨틱 미디어위키(Semantic MediaWiki)

작성 미완성

2) 페이지 폼(Page Forms)

작성 미완성

3) 클래스별 페이지 양식

작성 미완성

4) 자동 데이터 질의 기능

작성 미완성

5) 상세검색 기능

미완성

VI. 샘플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작성 미완성

1. 샘플 콘텐츠 사례 선정

작성 미완성

샘플 콘텐츠(이 중 일부 선택)

- 문화유산으로 바라본 인물(선덕여왕, 이순신, 세종, 송시열, 지눌/자장/의상)
- 문화유산으로 바라본 사건(병자호란, 3.1운동)
- 문화유산으로 바라본 여성(열녀, 효부, 여왕, 왕비, 공주 등)
- 문화유산으로 바라본 부처님(불화, 불상에서 나타난 부처 및 보살 - 2~3 선택)
- 불전으로 바라본 한국 불교(대웅전, 극락전 용어와 모신 부처)
- 문화유산으로 바라본 민속신앙(장승, 당산 등)
- 문화유산으로 바라본 나전/금속(재질에 따른 유물)

※ 필요하면 노드 데이터, 링크 데이터를 부록에 실릴 예정

2. 플랫폼 콘텐츠의 활용 방안

작성 미완성

컬렉션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

사례 예시

- 해외 학예사 --> 박물관 소장품 관련 배경정보와 비슷한 유물 분석
- 미술사학 학생 --> 한 미술 특징의 시대별 비교
- 관광객 --> 방물할 유적지 관련 배경정보 모임
- 번역자 --> 작업을 위한 용어 목록 및 사용 사례
- 문화 콘텐츠 제작자 --> 역사 인물 관련 이야기 구성
- K-12 교사 --> 학습 계획안 만들기
- 대학교 학생(기말 프로젝트) --> 각 학생이 다른 역대 인물을 문화유산으로 바라보기(불교, 유교, 여성 등)
- 어학당(문화원) 선생님 --> 문화유산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VII. 결론

작성 미완성

【참고문헌】

법률

- 대한민국.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19409호, 2023. 5. 16 제정. 시행 2024. 5. 17.
[https://www.law.go.kr/법령/국가유산기본법/\(19409,20230516\)](https://www.law.go.kr/법령/국가유산기본법/(19409,20230516))
- 대한민국.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무형유산법). 법률 제19588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 2024. 5. 17.
[https://www.law.go.kr/법령/무형유산의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19588,20230808\)](https://www.law.go.kr/법령/무형유산의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19588,20230808))
-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9248호, 2023. 3. 21., 일부개정. 시행 2024. 3. 22.
[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19248,20230321\)](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19248,20230321))
-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법률 제19590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 2024. 5. 17.
[https://www.law.go.kr/법령/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19590,20230808\)](https://www.law.go.kr/법령/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19590,20230808))
- 대한민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법).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제정. 시행 2024. 3. 22.
[https://www.law.go.kr/법령/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19251,20230321\)](https://www.law.go.kr/법령/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19251,2023032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 평화문제연구소. 2015.
<https://www.ipa.re.kr/?mId=30&tId=32&cId=80&mode=view&lang=kr&theme=ipa&bNo=116&aCate=&aType=1&aKey=%EB%AF%BC%EC%A1%B1%EC%9C%A0%EC%82%B0&aPage=1&bId=23318&bApp=c>

논문

- 곽낙현, 「국내외 한국학의 확산과 진흥방안 -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진흥사업’현황 검토」, 『민족문화논총』 8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 곽낙현,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대학 한국학 개설 현황 검토-한국국제교류재단‘KF통계센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50, 한국국학진흥원, 2023.
- 곽수민, 「해외한국학 동향 분석 및 발전요인 연구」, 『정신문화연구』 35(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김진량, 「해외한국학의 현지화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성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42(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 변계원, 「해외 국악교육의 실태 분석과 세계화 방안 고찰」, 『한국음악연구』 49, 한국국악학회, 2011.
- 류인태, 「데이터로 읽는 17세기 재지사족의 일상 : 『지암일기(1692~1699)』 데이터베이스 편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9.
- 김지명, 「기록문화유산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 정주영, 「1970년대 소극장 연극 시맨틱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1975년 에저또창고극장, 1976-1979년 삼일로 창고 극장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강혜원, 「문화유산 해설문 영문 번역 용례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연구: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김사현, 「문화유적 안내 정보 모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서소리, 「문화유산 지식 정보 데이터 모델 연구: 불탑 지식 정보망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호정, 「한중 도자유물 가상 박물관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김현, 「인문학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큐레이션」, 연세대학교 인문융합교육원 주최 학술워크숍, 2021. 1. 28.

김현,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현장」, 『인문콘텐츠』 50, 2018. 9.

김현,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마스터플랜 연구, 2020. 3. 국학진흥원.

<http://dh.aks.ac.kr/~tutor/Documents/PDF/2020/DigitalCuration.pdf>

Deschaine, Mark, and Sue Ann Sharma. "The Five Cs of Digital Curation: Supporting Twenty-First Century Teaching and Learning." *InSight: A Journal of Scholarly Teaching* 10: 19-24. 2015.

Haidvogel, Martina and Layna White. "Reimagining the Object Record: SFMOMA's MediaWiki." *Stedelijk Studies Journal* 10, 2020.

Krabina, Bernhard. "Building a Knowledge Graph for the History of Vienna with Semantic MediaWiki." *Journal of Web Semantics* 76, 2023.

Kim Hyeon, Learning "Culture" in the Post-human Era, 2021 APHEN-ICH Field School: Posthumanism and ICH, 2021. 8. 16.

Twining, Lyndsey. 「Data-based Heritage Interpretation : An Ontology Design for Interpretive Information of Korean Cultural Heritages」,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단행본

국립문화재연구원. *Dictionary of Korean Archaeology*. 국립문화재연구원. 2014.

국립문화재연구원. *Dictionary of Korean Archaeology (The Paleolithic)*. 국립문화재연구원. 2018.

국립민속박물관. *Encyclopedia of Korean Folk Beliefs*. 국립민속박물관. 2013.

국립민속박물관. *Encyclopedia of Korean Folk Drama*. 국립민속박물관. 2020.

국립민속박물관. *Encyclopedia of Korean Folk Games*. 국립민속박물관. 2019.

국립민속박물관. *Encyclopedia of Korean Folk Literature*. 국립민속박물관. 2014.

국립민속박물관. *Encyclopedia of Korean Rites of Passage*. 국립민속박물관. 2017.

- 국립민속박물관. *Encyclopedia of Korean Seasonal Customs*. 국립민속박물관. 2010.
- 국립민속박물관. *Encyclopedia of Nongak*. 국립민속박물관. 2018.
- 국립민속박물관. *Encyclopedia of Traditional Korean Clothing*. 국립민속박물관. 2021.
- 김혜정. 「북한 민족유산(물질유산) 현황과 조사 연구 흐름 - 역사유적 중 매장문화재를 중심으로」. 『북한의 문화·자연유산과 남북교류협력 이해하기』 148~177쪽. 문화재청. 2021.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의 문화·자연유산과 남북교류협력 이해하기』. 문화재청. 2021.
- 박영정. 「북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현황」. 『북한의 문화·자연유산과 남북교류협력 이해하기』 246~275쪽. 문화재청. 2021.
- 성종상·김서린. 「북한 명승지의 유형과 현황」. 『북한의 문화·자연유산과 남북교류협력 이해하기』 302~327쪽. 문화재청. 2021.
- 이선. 「북한의 자연유산 현황과 과제 - 천연기념물을 중심으로」. 『북한의 문화·자연유산과 남북교류협력 이해하기』 276~301쪽. 문화재청. 2021.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6.
- 김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큐레이션', 『디지털 큐레이션』, 북코리아, 2023.
- 김현. '디지털 큐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와 기술', 『디지털 큐레이션』, 북코리아, 2023.
- 김현. '시맨틱 데이터 모델링의 첫걸음', 『디지털 큐레이션』, 북코리아, 2023.
- 김현, 임영삼, 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휴복스. 2016.
- Benardou, Agiatis, Erik Champion, Costis Dallas, and Lorna M. Hughes, eds. *Cultural Heritage Infrastructures in Digital Humanities*. Routledge. 2018.
- Buswell, Robert E., and Donald S. Lopez Jr. *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 Harrison, Rodney. *Heritage: Critical Approached*. Routledge. 2013.
- Hartsell-Gundy, Arianna, Laura Braunsteing, and Liorah Golomb. *Digital Humanities in the Librar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Subject Specialists*.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15.
- Hirsch, Brett D., ed. *Digital Humanities Pedagogy: Practices, Principles and Politics*. Open Books. 2012.
- Hoare, James E. *Historical Dictionary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owman & Littlefield. 2019.
- Hoare, James E.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Republic of Korea*. Rowman & Littlefield. 2020.
- Hyewon, Ven., and David A. Mason. *An Encyclopedia of Korean Buddhism*. 운주사. 2013.
- Jones, Ed, and Michele Seikel, eds. *Linked Data for Cultural Heritage*. ALA Editions. 2016.
- Kalay, Yehuda E., Thomas Kavan, and Janice Affleck, eds. *New Heritage: New Media and Cultural Heritage*. Routledge. 2008.
- Muller, A. Charles. *A Korean-English Dictionary of Buddhism*. 운주사. 2014.

- Pai, Hyung Il. *Heritage Management in Korea and Japan: The Politics of Antiquity and Identity*. 2014.
- Perry, Ross, ed. *Museums in a Digital Age*. Routledge. 2010.
- Pratt, Keith, and Richard Rutt. *Korea: A Historical and Cultural Dictionary*. Routledge. 1999.
- Ruthven, Ian, and G. G. Chowdhury, eds.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Access and Management*. Neal-Schuman. 2015.
- Sakr, Sherif, Marcin Wylot, Raghava Mutharaju, Danh Le Phuoc, and Irini Fundulaki. *Linked Data: Storing, Querying, and Reasoning*. Springer. 2018.
- Sabharwal, Arjun. *Digital Curation in the Digital Humanities: Preserving and promoting archival and special collections*. Chandos Publishing. 2015.
- Serrell, Beverly. *Exhibit Labels: An Interpretive Approach*. Rowman and Littlefield. 2015.
- Song, Ki-joong. *Glossary of Korean Culture*. 지문당. 2001.
- Suh, Cheong-Soo, Bernard Rowan, and Yoon-jung Cho. *An Encyclopaedia of Korean Culture*. 한세본. 2004.
- Terras, Melissa, Julianne Nyhan, and Edward Vanhoutte, eds. *Defining Digital Humanities: A Reader*. Ashgate Publishing. 2013.
- Tilden, Freeman. *Interpreting Our Heritag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 UNGEGN Working Group on Romanization Systems. "Korean." *Report on the Current Status of United Nations Romanization Systems for Geographical Names*. 2013. https://www.eki.ee/wgrs/rom2_ko.pdf
- Van Hooland, Seth, and Ruben Verborgh. *Linked Data for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How to clean, link and publish your metadata*.
- Warwick, Claire, Melissa Terras, and Julianna Nyhan, eds. *Digital Humanities in Practice*.
- Whitfield, Roderick, ed. *Dictionary of Korean Art and Archaeology*. Hollym. 2004.
- Willer, Mirna, and Gordon Dunsire. *Bibliographic Information Organization in the Semantic Web*. Chandos Publishing. 2013.

웹자원

국립국어원. "Romanization of Korean."

https://www.korean.go.kr/front_eng/roman/roman_01.do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main>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https://www.emuseum.go.kr/main>

국사편찬위원회. 실록 역사 용어 글로서리. <http://thesaurus.history.go.kr/eng/index.html>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http://esillok.history.go.kr/glossary/glossaryList.do?searchTermTypeEng=Glossary%20of%20Historical%20Terms>

국외소재문화재재단. <https://www.overseaschf.or.kr/>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 아카이브.

<https://www.overseaschf.or.kr/archive/index.do>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부산대학교. 한국어/로마자 변화기. <http://roman.cs.pusan.ac.kr/>

서울특별시. 서울 외국어 표기사전. <https://dictionary.seoul.go.kr/spelling/dictionary>

한국관광공사.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https://kto.visitkorea.or.kr/kor/translation/list.kto>

한국불교대학. 실용 한-영 불교용어사전.

<http://dic.tvbuddha.org/?PHPSESSID=9cc76a10b115e52b7b6f6b7186c251f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 사전. <http://glossary.aks.ac.kr/>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https://www.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https://www.e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모두 교육 플랫폼. modu.museum.go.kr/

국외소재문화재재단. <https://www.overseaschf.or.kr/>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s://www.cha.go.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 검색.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pageNo=1_1_1_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3D 문화유산 소개”.

https://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threeD/3dInfomation.jsp&pageNo=6_1_1_1

문화유산 지식e음. <https://portal.nrich.go.kr/kor/index.do>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무형유산 디지털아카이브’. iha.go.kr/service/index.nihc

문화유산채널. <https://www.k-heritage.tv/>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 안내판 검색’.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GuidePostView.do?pageNo=1_1_5_0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s://www.nrich.go.kr/>

한국문화재단. <https://www.chf.or.kr/chf>

세종학당재단. <https://www.ksif.or.kr/intro.do>

해외문화홍보원(KOCIS). <https://www.kocis.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www.aks.ac.kr/index.do>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https://ksps.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

<https://www.aks.ac.kr/aks/usr/smn/aksUsrSubMainView.do?menuNo=1010144000&>

lang=kor

한국학중앙연구원, Cultural Heritage Wiki.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유산 영문 해설문 편찬 연구팀. <http://dh.aks.ac.kr/~heritage/wiki/>

한국학중앙연구원, 『100가지 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2017.

<http://dhlab.aks.ac.kr/~Korea101/wiki/index.php/%EB%8C%80%EB%AC%B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기록유산 Encyves. <http://dh.aks.ac.kr/Encyves/wiki/>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위키. <http://dh.aks.ac.kr/Edu/wiki/>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http://dh.aks.ac.kr/wiki/>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s://www.kf.or.kr/>

한국국제교류재단. KF통계센터. <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Map.do>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 아카이브.

<https://www.overseaschf.or.kr/archive/index.do>

한국문학번역원. 디지털 도서관. <https://library.ltikorea.or.kr/>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 LOD. <https://www.nl.go.kr/NL/contents/N11000000000.do>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www.kocca.kr/>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main/main.do>

CJKV-English Dictionary of Confucian, Daoist, and Intellectual Historical Terms.

<http://www.buddhism-dict.net/dealt/>

Digital Dictionary of Buddhism. <http://www.buddhism-dict.net/ddb/>

International Korean Educators Network. ikeneducate.org

Heppler, Jason. What Is Digital Humanities. 2015.

<https://whatisdigitalhumanities.com/>

Presner, Todd, and Jeffrey Schnapp. *The Digital Humanities Manifesto 2.0*. 2009.

https://www.humanitiesblast.com/manifesto/Manifesto_V2.pdf

Garcia, Ashley Sanders. "Introduction to Digital Humanities." UCLA. 2018.

<https://asandersgarcia.humspace.ucla.edu/courses/dh101f18/>

Terras, Melissa. "Quantifying Digital Humanities." UCL Center for Digital Humanities. 2011.

<https://www.ucl.ac.uk/infostudies/melissa-terras/DigitalHumanitiesInfographic.pdf>

The British Museum. Teaching History with 100 Objects.

<http://www.teachinghistory100.org/>

InTaVia: In/Tangible European Heritage. <https://intavia.eu/>

Encyclopedia of Romantic Nationalism in Europe.

<https://ernie.uva.nl/viewer.p/21/56>

Asian Art Museum. Education. <https://education.asianart.org/>

Smithsonian Museum. Smithsonian Learning Lab. <https://learninglab.si.edu/>

Smarthistory. <https://smarthistory.org/>

Ohio State University. Brining Korea into the Classroom: Resources for Educators.
<https://u.osu.edu/k12korea/>

Google Arts & Culture. Korean Heritage.
<https://artsandculture.google.com/project/korean-heritage>

National Consortium for Teaching about Asia. <https://www.nctasia.org/>

Jogy Order of Korean Buddhism. <http://www.koreanbuddhism.net/>

Study Korean. study.korean.net/

East Asia Gateway for Linking Educators. <https://www.eagle.pitt.edu/index.php/>

Korean Art Song Resource. University of Michigan.
<https://koreanartsongresource.com/>

Korean History Digital Museum. UCLA. <https://koreanhistory.humspace.ucla.edu/>

CIDOC-CRM. <http://www.cidoc-crm.org/>

Europeana. <https://www.europeana.eu/en>

Europeana Data Model. <https://pro.europeana.eu/page/edm-documentation>

DublinCore. <https://www.dublincore.org/>

Page Forms. https://www.mediawiki.org/wiki/Extension:Page_Forms

Semantic MediaWiki. https://www.semantic-mediawiki.org/wiki/Semantic_MediaWiki

Victoria and Albert Museum. <https://www.vam.ac.uk/>

Digital Curation Centre. "What is digital curation." Digital Curation Centre.
<https://www.dcc.ac.uk/about/digital-curation>